2013

제주문예연감

총론

묵시록적 시대 앞에서
‘글로컬 아트(Glocal-Art)[1]’의 만개를 바라며

박경훈 _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Ⅰ. 들어가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태 이후, 인류의 문명은 ‘멜트다운’의 시대로 진입했다. 동시대의 우리는 모두 ‘후쿠시마의 자식’이다. 전 세계는 현재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극심한 기후변화 그리고 그 이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의 끝 모를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2] 이미 지구의 아마겟돈은 열렸다는 사람들도 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2013년 제주의 장마철, 뜨거워지는 기온만큼이나 지구의 대지는 타오르고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곳이 안전하지 않다. 가히 묵시록적 세계상의 현현이다. 마치 태고부터 늘 이어져 오던 아침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은 21세기 초반, 후쿠시마로부터 비교적 멀지 않은 청정자연의 섬, 제주에서 우리는 이 섬의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역설의 역설이다. 가장 청정한 섬이, 가장 위험한 좀 더 큰 섬의 옆에서 안전을 구가하고 있는 모습은, 흡사 쓰나미의 바닷가에 서 있는 사진작가의 뒷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도 세계는 어떠한가? 예술가의 눈길과 그들의 손끝을 통해서 빚어진 다

---

1)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은 Globalization(세계화)과 Localization(현지화)을 합성한 신조어다. 즉,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역화를 중심에 둔 전략을 말한다. 필자는 여기에 ‘예술’을 결합한 신조어로 ‘글로컬 아트(Glocal-Art)’를 제안한다. 지역적인 예술이 곧 세계적인 예술이라는 의미이며, 지역이 곧 세계의 중심일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다. 영화 <지슬>이 대표적인 사례다.

2) 후쿠시마의 방사능 유출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 내 일인 양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곧 일상의 마법에 걸려 잊어버렸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인 일본의 기술은 원전을 통제하지도 제압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수 주일 동안 방사능 해양 유출사실을 부인해오던 도쿄전력은 간교하게도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초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양한 형태의 창작물들은 우리 시대 우울한 묵시록적 세계 안에서 어떻게 질문하고 화답하고 있는가?

2012년도는 국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5년 만에 중앙정부의 권력이 바뀌었다. 권력은 바뀌었으나 보수정권이 그대로 이어져 급격한 변화는 없다 해도, 그에 따른 큰 줄기의 문화정책의 기조와 굵직한 사업들의 변화가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침체의 여파로 인해 문화예술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작가들의 부침이 따르고 있다.

제주도내 상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2013년 인구 60만에 도달 예정이고, 이 중 최근 3년간 이주민 수가 1만여 명 이상 급증하면서 이주민들의 존재감과 활동상들이 제주문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점이 예년과의 차이점이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주민들의 활동, 특히 문화이민자들의 활동상은 제주도 문화현상의 또 다른 분야로 특화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2012년도 제주문화계 최대의 이슈는 단연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이다. 이 영화 한 편이 제주문화예술의 위상을 한껏 돋보이게 했으며, 그 의미 또한 사뭇 깊기 때문이다. 영화 「지슬」로 결실을 맺기까지 연출을 맡은 오멸 감독이 근 10년 가까이 단편과 장편 그리고 실험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세계를 넘나들며 갈고 닦은 역량이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게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었다. 「지슬」은 영화제작 기반이 취약한 제주에서의 촬영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 열악한 장비는 물론, 스태프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슬」은 2012년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과 시민평론가상, 한국영화감독조합상-감독상, CGV무비꼴라쥬상 등 4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제29회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월드드라마), 제19회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황금 수레바퀴상', 제32회 이스탄불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 특별언급상' 등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슬」은 또한 지역예술의 존재성과 지속 가능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즉, 제주에서 만든 영화가 세계에 바로 통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주예술의 미래를

위해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글로컬 아트'(Glocal-Art)의 가능성이다.

항상 국토의 변방으로서, 1% 정치력만큼의 섬이었던 제주. 이제 청정환경의 시대를 맞아 섬의 진가를 더해가는 시대에, 그에 걸맞은 인문과 예술의 만개, 21세기 제주의 완성이라는 가능성을 영화 「지슬」과 오멸 감독은 가시화시킨 것이다. 이는 제주의 신진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천지개벽의 미래상이며, 롤모델이다. 비로소 제주섬의 후대 작가들은 제주에서 세계와 직접 '맞짱' 뜨는 시대의 도래를 목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슬」의 성취는 곧 제주예술의 성취이기도 하다.

Ⅱ. 각 장르별 총평

다음은 각 해당 장르의 전문가들이 정리한 결론을 종합한 것이다. 총 9개 분야의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한 제주문화예술의 2012년도 1년간 총결산 목록을 읽는 일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지슬」의 쾌거와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제외한 전 장르에 걸쳐 드러난 것은, 여전한 지역예술의 부진과 침체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문학의 경우, 제주문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되고 있다. 문단의 급격한 노령화가 주된 이유다. 특히 최근 40~70대에 이르는 소위 늦은 등단과 이모작 등단(타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늦은 나이에 등단하는 경우)이 잦아짐에 따라, 갑자기 원로가 양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생기발랄한 신진작품의 생산보다는 관조적이고 여가적인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신진작가들은 그에 따라 위축된 활동상을 보이며, 스스로 은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진단이다. 신진작가의 부진과 부재는 심각한 수준인데, 특히 소설의 경우, 몇 년간 등단 신인은 전무하며, 지역문예지에 발표되는 작품 수도 계속 줄어드는 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제주의 소설 분야는 궤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술의 경우, 미술시장의 침체와 여파가 제주에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미술시장의 추세가 '아트페어'에서 '옥션'으로의 이행기임을 진단하고 있다. 또한 미술매체의 디지털영상화 경향으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제주지역

의 경우 고전적인 매체의 활용과 장르언어 중심의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술시장이 열악하다보니 단순한 발표를 위한 전시로 끝나면서 작가들의 전업적 활동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전반적으로 제주미술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신진작가들의 예술계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악의 경우, 장르 내 공연형태와 장르특성의 변화를 꼽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 성악이 주를 이루는 공연 풍토가 기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특히 민요에 기반을 둔 성악공연 중심에서 근래에 이르러 미디어와 교통의 발달로 도서라는 지리적 제한성이 무너지고 공연자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지방의 국악예술과의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긴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미세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극의 경우도 예외 없이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장기간 침체국면에 있던 수도권 연극계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데 비해, 도내 연극계는 아직까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극이나 아동극 모두 도외 극단의 공연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에서 생산된 작품들은 평년작 수준이며, 새롭고 다양한 것은 외부로부터 수혈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자생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역량의 한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무용계 역시 지리멸렬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립무용단은 창단된 지 2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반복된 단원 내부의 갈등으로 정상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동안 도립무용단은 어느 정도 내부문제가 정상화되어 2012년도 한 해 동안 왕성한 활동을 벌이기는 했지만, 향후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간의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전국무용제에 참여할 전문 무용수가 부족하여, 전국무용제 기간이 되면 제주 대표 본선제에 참가할 단체를 구하지 못해 매년 애로를 겪을 정도이다. 이런 와중에 제주문화예술재단 국고민간보조금 지원으로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가 개최되어, 전국 각지의 뛰어난 기량의 청소년들과 제주 청소년들의 수준 높은 무용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특기할 만

한 일이다. 특히 전문 무용수와 안무가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건축의 경우 전반적으로 볼 때 예년에 비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건축 3단체가 함께 개최한 건축문화축제가 눈에 띄었고, 제주미술대전을 비롯한 각 단체별 회원전 및 각종 강연회 등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활약상에 비해, 내적인 충실성과 현상 타파를 위한 노력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현상공모 등의 운영방식이 크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예건축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발주방식에 있어서 신진건축가를 위한 제한 발주 등의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이다. 전시활동이 2010년 67회, 2011년 50회, 2012년 44회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 활동 부진은 전시회를 위한 재원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획된 전시라도 문진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주사진계의 허약한 재정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단체전과 달리 개인전은 작가로서의 온전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영상의 경우, 제주문화예술계 전반을 아우르는 쾌거가 나왔는데, 바로 영화「지슬」의 성공이다. 제주도 내에서 영화 찍기를 고집하며, 저예산 독립영화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치부심하던 오멸 감독의 4·3을 소재로 한 영화「지슬」이 전 세계에 그 위상을 떨쳤다. 이는 제주 출신만이 아니라, 제주에 살면서 제주의 영화를 만들어낸 점, 그러한 지역작가의 영화가 세계 유수의 영화제와 세계인들에게 먹혔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의 예술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도 했다. 한편, 2012년 제주에서는 영화와 방송드라마를 포함한 로케이션 활동이 다른 해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제주영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로케이션은 모두 42편으로, 이 중 영화가 19편, 방송드라마가 9편,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그 외 장르 14편이 제주에서 제작되었거나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는 전년도 27편에 비해 양적으로 15편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42편 중 제주 올로케이션 작품은 2~3편에 불과하여 외

적인 풍요 속의 내적 빈곤 상태로, 향후 제주 올로케이션 작품을 발굴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제주도 내에서의 각종 영화제의 활성화인데, 대규모의 영화제라기보다는 지역기반의 작은 영화제들이 연륜을 더해 가면서 하나의 중요한 문화예술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인권영화제 13회, 여성영화제 13회, 제주영화제 10회, 프랑스영화제 3회 등 작은 영화제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주의 중요한 문화매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영상문화의 시대에 바람직한 양상이다.

서예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괄목할 만한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전시에 있어서 2011년에 비해 12건이 늘어난 64건으로 19%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전시 유형별 현황을 보면, 개인전 10건(16%), 기타 단체전 54건(84%)으로, 작가의 전모를 알 수 있는 개인전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서단의 외형적 활성화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답보상태임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작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이제 제주도에도 반드시 서예학과나 서예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신진작가들을 육성, 제주서단의 맥을 잇게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추사와 소암이라는 한국 서예계의 시대를 달리한 두 거목은 제주서단의 크나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려는 후진 양성에는 너무 미진한 것이 서단이 당면한 고민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도내·외 공모전을 통해 배출된 이른바 추천 초대작가가 200명에 이르는데도 연간 연례적인 단체전(54건)의 비율(84%) 대비 개인전(10건)의 비율(16%)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개인전에 따른 과도한 예산부담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우선 해결해야 하겠지만,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향후 개인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역량 있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전시와 정진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영상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현재 제주도의 문화예술육성정책 전반의 점검을 해볼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예진흥기금과 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국·도비 사업들이 예전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침체에 대해 이제 냉혹한 평가와 함께 정책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늘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각종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전시 지원은 단체 중심이어야 할지, 작가지원이 되어야 할지, 자생적인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구사되어야 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재단과 문화 관련 집행부서, 그리고 예총, 민예총 등 대표성을 지닌 예술인단체들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개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인적 재생산, 즉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 부재이다. 특히 현재 지독한 불균형을 이루는 공연과 서예 분야가 그렇다. 또한 그에 따른 신진작가의 예술계 입문과 활동 부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 문학 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신진작가들의 입문과 육성을 위해 별도의 신진작가육성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제도의 질적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다. 현재의 지원제도를 새로이 점검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을 수용한 새로운 제도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Ⅲ. 나오며

이 연감의 지표만으로 제주문화예술계 전반을 평가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특히 기초자료의 문제인데, 현재 각 장르별 결산자료에 제주도 내 공공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시설의 사업에 대한 통계가 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 문예회관과 제주아트홀 등 공공기관의 사업들과 주요 민간기관·시설들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의 주요통계는 도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장단기 정책효과의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각 장르별 평가에 있어서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사업 중심의 기관·시설들의 1년간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었을 때에야 내실 있는 활동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연감의 작성을 위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물론 제주도 내 공공·민간 문화예술기관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내 문화정보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와 아카이브 시스템을 재단 내에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일로 여겨진다.

‘글로컬 아트’의 만개는 가능한가? 필자는 가능하다고 본다. 2012년 세계의 영화계에서 한국문화, 제주예술의 위상을 한껏 올려놓은 영화 「지슬」을 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문화의 변방으로 치부되어 오던 제주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다. 가장 제주적인 것, 가장 예술적인 것이 지역을 벗어나 세계적으로도 통한다는 실증적 경험, 이는 제주예술이 지향해야 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지슬」의 쾌거가 단말마적인 영광의 이벤트로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슬」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이를 제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컬 아트’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면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제주문화예술의 새 판을 짜는 일까지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자생적 토대가 불균등한 장르 간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자생적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미술분야의 활성화는 최종적으로 미술시장의 형성과 맞물려 있으며, 문학분야의 활성화는 도서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영상문화의 활성화는 독립영화전용관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렇듯 장르 간의 개별적 특성들이 그 해결책을 달리하듯, 좀 더 섬세한 정책 판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모두의 시대정신으로 돌아가 보자. ‘후쿠시마의 시대’, 예술이 인간의 영적인 활동의 부산물이라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전 지구적 절멸 위기와 가혹하고 급격한 기후환경의 변화, 불안정하고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힘든 경제환경의 시대, 즉 묵시록적인 시대에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한 채, 물적·영적 ‘공포’의 시대로 부표처럼 내몰리고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의 환경은 너무나 엄혹한데, 우리의 창작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예술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징후가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다. 예술 내적인 측면에서 혹연 우리는 너무 무풍지대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본다.

2013

제주문예연감

문학

2012년 제주문단의 현황과 과제

– 늦봄, 선작지왓 진달래밭 닮은 황홀한 서사를 대망하며

조중연 _ 소설가

Ⅰ. 들어가며

문학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삶의 두께가 두터워질수록 문학은 더욱 웅숭깊어진다. 작가는 오직 작품으로 말하고 승부해야 한다. 등단했다고 해서 무임승차를 하듯 작가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작품을 발표하고 작품집을 꾸준히 상재함으로써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제주문단은 파행을 거듭해왔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질더분했다. 문단 곳곳에 뒤집힌 대못 같은 갈등은 산재했고, 시한폭탄 같은 분열의 징조는 분명 어디엔가 똬리 틀고 있었다. 작가의 존재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했다는 데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끄러운 소문들을 성장의 고통으로 받아들여보자. 문단의 여러 잡음 가운데서도 진흙에서 쏘아 올린 신인의 작품들이 혜성처럼 등장했고, 중견 작가들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찍어 쓴 작품집을 상재했다.

지금부터 2012년 제주문단의 이모저모를 돌이켜보고자 한다. 중간에 흥미를 돋우기 위해 중견과 소장파의 라이벌 타입으로 꾸몄는데, 이는 어쩌면 제주문단 안에서의 숙명의 라이벌전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나, 나름의 조사 역시 첨부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신문 문학 기사를 참조하였으므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Ⅱ. 등단 및 출판, 수상, 행사 현황

2012년 제주문단은 침체 가운데서 나름의 실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한

해 동안의 제주문단의 활동을 등단 현황, 문학 관련 출판 현황, 문학상 수상, 문학 행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등단 현황

2012년 새롭게 등단한 문인은 27명이다. 2011년에 비하면 8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장르 역시 시와 수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사장르인 소설에서는 단 한 명의 등단자도 없었다. 다만 몇 해간 뜸했던 희곡 장르에서 신인이 등장했다는데 나름의 위안을 가져본다.

1) 갈래별 등단 현황

<표 1> 2011년·2012년 등단 문인 갈래별 분포와 비교

구 분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평론	희곡	계
2011년 등단 문인	10	2	3	19	1	0	0	35
2012년 등단 문인	12	3	0	10	1	0	1	27

2) 갈래별 등단 문인 분포와 유형

<표 2> 2012년 갈래별 신인 등단지 및 등단 작품

장르	성명	등단지 및 등단 작품
시	김광춘	『대한문학』 봄호 신인문학상 당선작 「춘정」 등 5편
시	김대오	『문학광장』 신인문학상 당선작 「빛방울 합창」 외 3편
시	김신숙	『제주작가』 신인상 「시간당 얼마의 과거」
시	김익수	『대한문학』 봄호 신인상 당선작 「지금은 중창불사 중」 등 5편
시	김종배	『문학세계』 9월호 신인문학상 당선작 「섣달 초나흗날」 등 5편
시	김종석	『한국불교문학』 가을 제27호 신인상 당선작 「소똥구리와 자본시장」 등 5편
시	김형주	『대한문학』 겨울호 신인문학상 당선작 「제주예찬」 등 3편
시	손창렬	『문학광장』 봄호 신인문학 운문부문 당선작 「애벌레」 등 3편

장르	성명	등단지 및 등단 작품
시	오유경	『월간 한국시』 7월호 당선작 「벚꽃 안녕」 등 3편
시	오중수	『대한문학』 가을호 신인문학상 당선작 「지우며 길을 걷다」 등 3편
시	이동빈	『모던포엠』 신인작품상 당선작 「제주, 그 사랑의 빛이여」 등 3편
시	한성국	『한올문학』 5월호 신인상 당선작 「아내의 기도」 등 3편
시조	강봉수	중앙시조백일장 차하 당선작 「숨비소리」
시조	서성금	『제주문학』 신인문학상 당선작 「음용불가」
시조	현경희	『제주작가』 신인상 「한라산 진달래꽃」
수필	강관보	『월간 신문예』 9월호 신인상 당선작 「뒤싸진 바당」
수필	강순희	『수필과 비평』 127호 신인상 당선작 「뱀이 사는 집」
수필	김순희	『에세이 문학』 겨울호 당선작 「동침」
수필	김양택	『수필과 비평』 126호 신인상 당선작 「삶의 동반자」
수필	박수선	『국보문학』 8월호 신인상 당선작 「막내 손자」
수필	부명숙	『에세이스트』 46호 신인상 당선작 「선운사 범종소리」
수필	신상범	『수필시대』 1, 2월호 신인상 당선작 「글이 칼보다 무섭다」
수필	오은숙	『STORY 문학』 여름호 신인상 당선작 「새벽길에서」
수필	현임종	『수필과비평』 10월호 신인상 당선작 「죽음에서의 탈출」
수필	홍은자	『수필과 비평』 8월호 신인상 당선작 「원담의 추억」
동화	부복정	『제주작가』 신인상 「제사상 차리는 아이」 2013년 불교신문 신춘문예 「행복 바이러스」
희곡	김종석	『한국불교문학』 여름 제26호 신인상 당선작 「당신의 욕망은 안녕하십니까?」

2012년에 등장한 신인 중 눈에 띄는 몇몇을 거론해보자.

2011년 『문예춘추』 봄호에 시로 등단한 강봉수가 2012년에는 시조로 영역을 넓혀 등단한 점이 특이하다. 강봉수의 등단작품 「숨비소리」는 생과 사의 고해(苦海)를 넘나드는 제주 잠수(潛嫂, 해녀)의 물질 과정을 제주사람의 시각으로 노래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뜸했던 갈래 중 희곡분야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문단 안에 발

을 들인 김종석 역시 눈에 띄는 신인이다. 김종석은 「당신의 욕망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작품으로 『한국불교문학』 2012년 여름 제26호 신인상 당선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약간의 각색만 하면 뮤지컬로서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며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도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 더욱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석은 같은 문예지 가을호에 시로 등단하기도 했다.

제주문단에서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공모하고 있는 『제주작가』 신인상과 『제주문학』 신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주작가』 신인상은 현경희(시조), 김신숙(시), 부복정(동화)을, 『제주문학』 신인상은 서성금(시조)을 당선자로 배출했다. 이 두 신인상은 제주문단의 오랜 라이벌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의 신인 등용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그 권위와 작품성을 인정받아 왔다.

『제주작가』 신인상 수상자 중 시조 부문 당선작인 현경희의 「한라산 진달래 꽃」은 소재를 꿰뚫어보는 눈이 예리하고 아픈 역사를 공글려 형상화 한 면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부문에서 「시간당 얼마의 과거」로 수상한 김신숙은 시적 진술을 잘 다듬어낸다면 향후 작품 활동이 기대된다는 가능성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동화 부문에서 「제사상 차리는 아이」로 수상한 부복정은 신인답지 않은 대단한 필력을 선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부복정은 2013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행복 바이러스」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부복정은 『제주작가』 신인상과 신춘문예 동시 당선으로 화려하게 제주문단에 이름을 내밀었다.

제22회 『제주문학』 신인문학상에서 시조 부문으로 당선된 서성금의 「음용불가(飮用不可)」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시조의 운과 율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고, 사물 바라보는 관조의 성찰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다.

제주문인협회 및 제주작가회의는 지역문학을 이끌 신인들을 발굴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배출한 신인에게 작품 활동을 전폭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차세대 제주문단의 후배들을 키우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혹 당선작으로 밀 만한 작품이 없더라도 신인의 패기와 미래가 보인다면 파격적으로 끌어안을 필요도 있다.

이외에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제32회 백록문학상 공모에서는 안재현(시·제주대학교 수의학과)과 박여주(소설·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당선되었다. 백록문학상은 대학생들의 문학역량을 키우고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주대신문이 1981년 제정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편, 대기고등학교 1학년 문혁준은 제20회 대산청소년문학상에서 소설 부문

중 「감귤꽃」이란 작품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대산청소년문학상은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내일의 한국문학을 이끌어나갈 문학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장학사업이다.

2. 문학 관련 출판 현황

제주문단의 활동 현황은 출판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갈래별 작가의 단행본이나 동인지 및 문예지 출판 등으로 문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개인 작품집의 절반가량이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예진흥기금을 수혜 받아 출간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도 갈래별 특성은 드러난다.

1) 단행본 출판 현황

<표 3> 2011~2012년 간행된 개인 작품집(단행본)

연도	시(조)집	소설집	수필집	아동문학	희곡집	평론집	기 타	계
2011	29	8	19	5	0	2	7	70
2012	21	4	7	3	1	1	8	45

<표 4> 2012년 간행된 개인 혹은 단체 단행본 출판 현황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시	강원호	서귀포에는 불알이 없다	세림
시	고광자	천륜의 바다	도서출판 등대지기
시	고광자	시가 있는 해송의 집	도서출판 등대지기
시	고훈식	때로는 질퍽녀의 불끈 남처럼	도서출판 국보
시	김경훈	강정은 4·3이다	도서출판 각
시	김길웅	허공을 만지며 고등어를 굽다	도서출판 대한북스
시	김문택	ᄒᆞ루라도 걸어봤으면	도우미출판사
시	김석교	카르마의 비	심지
시	김성수	눈으로 먹는 밥	모아드림
시	문희주	열리는 새날에	이담 북스
시	박동일	늦게 나온 달빛	(주)우리글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시	배진성	꿈섬	리토피아
시	부상호	터무니 사랑	도서출판 새미
시	이성준	설문대할마님, 어떵 옵데가?	도서출판 각
시	진창진	하이얀 슬픔을 방목하다	한국아카이브
시	홍길원	꽃도 눕는구나	그림과 책
시	(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무너지지 않는 길이 되겠네	고두미
시	(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4월 꽃비	심지
시조	김정숙	나도바람꽃	동학사
시조	오영호	올레길 연가	고요아침
시조	장영춘	어떤 직유	도서출판 동방기획
수필	김길웅	검정에서 더는 없다	도서출판 대한북스
수필	고연숙	노루의 눈물	심지
수필	김가영	타인이라는 거울	오름book
수필	김여종	덤 인생	대한books
수필	정문길	사라진 페르시아 제국의 꿈	한솔미디어
수필	허경자	그 섬이고 싶었네	한국문화사
수필	이용언	내 안에 한그루 나무가 자란다	대한books
소설	김현자	슬이의 노래	청어
소설	홍창국	신을 빌린 남자	도서출판 제주문화
소설	김태우	바다를 찾아 떠나는 돌	한국장애경제인·대전충남인쇄사업단
소설	현길언	꿈은 누가 꾸는가?!	물레
아동문학	김영기	친구야 올레로 올래?	아동문학세상
아동문학	강순복	끼꾀꼴 깡끈꿈	도서출판 열림문화
아동문학	김정희	오줌폭탄	제주사람들
희곡	강용준	외할머니	연극과 인간
평론	홍기돈	문학권력 논쟁, 이후	예옥
기타	김순이·표성준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기타	문희주	웃음의 미학과 놀이	이담 북스
기타	오한일	옛 제주인의 샘	서울문화사
기타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기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의 고문서	제주교육박물관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전설집2	제주문화원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신화집	제주문화원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신화집 일본어판	제주문화원

(1) 시집

올해 발간된 19권의 시집 중에서 김석교 제3시집『카르마의 비』(심지)가 두드러진다. 홍기돈 문학평론가는 “그의 시 ‘가지 못한 길’이 여전히 자신 앞에 놓여 있음을 천명해 놓은 것인가. 이후 김 시인의 새로운 시편들은 아마도 그 길 위에 펼쳐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평했다.

김경훈 제9시집『강정은 4·3이다』(도서출판 각)는 평화가 깨지고 인권이 유린되는 아픈 마을 강정에서, 실천적인 평화와 세계적인 연대로 해방과 통일, 평화와 사랑이 기적처럼 새 길을 만들고 있다. 김경훈은 이것이 강정의 정신이 4·3인 이유라고 책머리를 열고 있다.

김성수가 상재한 제2시집『눈으로 먹는 밥』(모아드림)에 있어 ‘밥’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영양 공급의 수단의 의미를 초월해 상대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인간 문화의 시원(始原)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시인 변종태는 “김성수의 시를 읽다 보면 시집 전편에서 외로움이 뚝뚝 흐른다”며 “외로움의 끝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결국 시인은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제3시집『올레길 연가』(고요아침)를 상재한 오영호는 자연을 의인화하기도 하고 관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빼어나다. 김병택 평론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시인의 정신적 활동의 궤적이라고 평했다.

(2) 소설집 및 장편소설

장편소설『꿈은 누가 꾸는가?!』(도서출판 물레)에서 현길언은 ‘아기장수 우투리’ 설화를 빌어 옛 제주 사람들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태어난 아기는 훗날 역적이 될 것이라는 권력자의 믿음 때문에 날개가 꺾여 버리고 만다. 가공의 인물인 김만덕의 옛 연인 정득영으로 당시의 상황이 묘사된다. 정득영은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태어난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이지만 토착 세력에 항거하다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다. 죽은 정득영은 김만덕 주변에 머무르며 못 다한 꿈을 이뤄간다. 작품을 가로지르는 ‘장수 여’ 이야기는 제주 민중이 품고 살던 염원의 산물이다. 백성을 괴롭히던 중간 관리들의 횡포와 합법을 가장한 각종 수탈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고명철 문학평론가는 작품 해설에서 “사방이 물로 갇힌 공간적 한계와 모순투성이라는 제도적 결함을 지닌 중세 질서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 작가가 이 시대에

타전하고자 하는 소설적 전언을 만나게 된다"고 이 작품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라중 교사인 김현자의 장편소설『슬이의 노래』(청어)는 김순지 선생이 쓴 소설 '슬이'를 전시하는 과정에 소설 '슬이'의 삽화를 그렸던 옥이에 의해 '슬이'가 분실되고 '슬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얼핏 보면 추리소설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주의 고대사를 넣은 구술성, 연행성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에 놓인 시대적 상황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작가는 슬이의 행방을 찾았지만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주가 만나게 된 '4·3'도 그 이유 중 하나로 포함됐다. 민중의 트라우마를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지역사회 그리고 당시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글로 풀어냈다.

"제주문학이라는 지역문학과 한국문학이라는 개별 국민문학의 구체성을 지니되, 더 이상 제주문학과 한국문학에 자족하는 게 아닌, … 제주의 문제와 지구적 문제가 긴밀히 연동되고 상호 침투하는 '지구적 세계문학'의 가능성과 씨름하고 있다"는 고명철 문학평론가의 말이 와 닿는다.

김태우 장편소설『바다를 찾아 떠나는 돌』(LI네트웍스)은 모험심이 강한 오백장군의 아버지가 한라산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고기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뭍으로 내려간 뒤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는 데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초원에서의 인연', '성숙된 아픔', '동반자를 찾아 나서다', '함께하는 여정', '백록담을 품다'까지 오백장군이라 불리는 바위에 서려 있는 애환을 글로 녹여냈다.

홍창국 소설집『신을 빌린 남자』(제주문화)에서 작가는 주변과 모든 사물들로부터 소통부재의 원인을 찾으려 애쓰는 남자를 이야기의 화두로 꺼냈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의 고리들, 모순들에서 일탈하고 싶은 주인공의 몸부림을 '신을 빌린 남자'로 그려냈다. 자유분방한 소설의 허구를 잘 살려내고자 노력했던 작가의 결과물로 신인상으로 등단할 수 있게 한 처녀작이다. 구인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실을 바탕으로 리얼리티에 의한 새로운 질서에 의한 서사적 현실을 창조해 신나는 자아 성취의 날개를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서평을 대신했다

(3) 희곡집

강용준은 제주인의 삶의 기록이자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의 신화, 역사, 바다를 소재로 희곡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작가이다. 희곡집『외할머니』(도서출판 연극과인간)에서 작가는 신화 속 '자청비', 역사 속 인물인 홍윤애와 조정철, 4·3사건 희생양인 세 젊은이 등을 통해 세상을 본다.

유민영 서울대 석좌교수는 강씨의 희곡집 발간에 부쳐 “대체로 상당수 극작가들이 단막극으로 승부를 거는데 비해 강씨는 항상 장막극으로 대결을 하는 호흡이 긴 극작가”이며 “탄탄한 구성력과 세련된 언어구사가 돋보이는 극작가”라고 말했다.

(4) 평론집

『문학권력 논쟁, 이후』(예옥)는 2000년대 초반 문학권력 논쟁을 주도했던 소장 비평가 홍기돈의 세 번째 비평집이다. 김동리·이광수·정지용 연구를 통해 민족문학론을 재구성하고, 오늘날 한국문학에 비판적 비평을 가한다.

(5) 기타

김순이(시인·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와 표성준(한라일보 기자)은『제주 유배인과 여인들』(여름언덕)에서 제주로 유배 온 몇몇 인물들과 이들을 뒷받침해준 여인들을 조명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한라일보에 게재된 연재물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것으로 불우한 왕족 해안군과 혼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까지 낳았지만 첩실 대접을 받은 경주 이씨 여인, 조정철을 돌봐줬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과 매질로 목숨을 잃은 홍윤애 등 제주여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유배인들과 관계를 맺은 여인들의 인간적인 면을 새롭게 조명하며 제주 유배 문화에 감동과 향기를 덧입히고 있다.

2) 순문예지 및 문예단체 기관지·동인지 발간 현황

<표 5> 2012년 간행된 문예지·문예단체기관지·동인지 현황

구 분	순문예지	문예단체기관지			
발간 주기	계간	월간	계간	반년간	연간
책이름	『다층』	『시조 갤러리』	『제주작가』 『삶과문화』	『제주 문학』	『울음의 본적』, 『진흙이 쏘아올린 연꽃』, 『신촌 가는 옛길』, 『붉은발말똥게』, 『백록수필』, 『제주수필』, 『제주여류수필』, 『동녘에 이는 바람』, 『귤림문학』, 『가을 연못에 빠진 낮달』, 『글 따는 손』, 『빈 가지에 흔들리다』, 『애월문학』, 『서귀포문학』, 『트멍』, 『문화와 현실』, 『징검다리』, 『녹담수필』, 『세 친구의 무한도전』, 『서귀포 예술지』, 『제주예총』, 『섬마루문학』

<표 6> 단체별 출판 현황

장르	단체명	도서명	발간 호
시	고팡문학동인회	『신촌 가는 옛길』	제2호
시	다층	『다층』	제53호~제56호
시	작은詩앗 채송화	『울음의 본적』	제9호
시	한라산문학동인회	『진흙이 쏘아올린 연꽃』	제24호
시조	젊은시조문학회	『시조갤러리』	제19호~제30호
시조	정드리문학회	『붉은발말똥게』	제3호
수필	글을사랑하는모임	『징검다리』	제5호
수필	녹담수필문학회	『녹담수필』	제11집
수필	백록수필문학회	『백록수필』	제11호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	제19호
수필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	제11호
아동문학	제주아동문학협회	『세 친구의 무한도전』	제31집
종합	(사)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서귀포문학』	제23호
종합	(사)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	『제주문학』	제56호~제57호
종합	(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제주작가』	제36호~제39호
종합	구좌문학회	『동녘에 이는 바람』	제7호
종합	귤림문학회	『귤림문학』	제21호
종합	돌과바람동인	『가을 연못에 빠진 낮달』	제2호
종합	동녘도서관	『글 따는 손』	제5호
종합	(사)한국예총서귀포지회	『서귀포예술지』	제9호
종합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예총』	제25집
종합	섬돌문학동인회	『빈 가지에 흔들리다』	제3호
종합	애월문학회	『애월문학』	제3호
종합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1호
종합	제주도청문학동호회	『섬마루문학』	제2집
종합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제44호~제47호
종합	제주문화포럼	『문화와 현실』	제15호
종합	제주펜클럽	『문학의 섬 제주』	무크지
종합	한림읍책읽는주부들의모임	『트멍』	제3호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문화』	제18호

(1) 제주문단의 양대 기관지『제주문학』·『제주작가』비교

<표 7> 제주문인협회 반년간지 제주문학 수록 작품수 (단위 : 편/(명))

구분	시(시조)	수필	소설	아동문학	평론(서평)	합계
2012년 상반기	67(45)	20(20)	1(1)	9(6)	1(1)	98(73)
2012년 하반기	67(38)	27(27)	1(1)	8(5)	4(4)	107(75)

<표 8> 제주작가회의 계간지 제주작가 수록 작품수 (단위 : 편/(명))

구분	시(시조)	수필	소설	아동문학	평론(서평)	합계
2012년 봄호	50(19)	1(1)	3(3)	1(1)	0	55(24)
2012년 여름호	46(17)	2(2)	3(3)	0	1(1)	52(23)
2012년 가을호	48(19)	1(1)	1(1)	1(1)	0	51(22)
2012년 겨울호	45(17)	1(1)	2(2)	1(1)	0	49(21)

<표 7>, <표 8>에서 보다시피『제주문학』은 수필과 아동문학 분야에서 작품수가 두드러지고,『제주작가』는 시와 소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다. 이는 편집의도 및 방향과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

『제주문학』은 많은 회원들의 작품을 일일이 싣다 보니 내적인 갈등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수필 분야의 회원 증가로 수필의 수록 지면은 전체 지면 중 1/3~1/4을 넘나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집의 구성이나 기획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외부 평론가를 투입하여『제주문학』내에서의 자정 활동을 꾀한 게 눈에 띄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례사 비평의 수준이 되지나 않을까 저어하다. 특히 소설 장르의 약세는 제주문단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소설에 대한 편집자의 애정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또한 오랜 전통의『제주문학』은 회장이 바뀔 때마다 표지 제자가 바뀌는 등 보이지 않는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직언을 하자면『제주문학』편집권의 완전한 독립이 조속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작가』는 소수의 회원이지만 나름의 열정으로 지역지로는 드물게 계간지를 내고 있다. 매번 특집마다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고, 기획도 참신한 편이다. 외부 지역단체와의 '공감과 연대'라는 꼭지로 교류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역시 계간으로 책을 내는 데 힘이 부치는 것은 안팎으로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서사 문학 분야, 소설의 부재는 아마도 제주문단의 쇠퇴를 예고하는 것일 것이다. 제주작가회의는 신인들의 부재로 소장파가 가분수 형태의 부담을 지고 있고, 평론

의 결핍은 자아 성찰에 있어 자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2) 제주문단의 소장파(제주문인협회·제주작가회의)

제주문단의 소장파라 부를 만한 작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소장파는 이윽고 중견이 되어 제주문단을 이끌어갈 제주문단의 미래이다.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의 소장파 중 그래도 도드라지는 시인 두 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제주문단의 발전을 꾀한다는 의도이며, 더욱 창작에 매진하자는 동기 부여의 측면이기도 하다.

제주문인협회의 소장파는 김병심이다. 2012년『제주문학』상반기에 발표한「왕과 나」란 작품은 지금까지 김병심의 시 세계와 관심사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평론가 김 종은 "「왕과 나」는 강물처럼 늠렬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야심찬 작품이다. 작품의 줄거리에 긴장과 이완이 있고 다듬어낸 시어들이 자못 탱탱하다."라고 평했다.

제주작가회의 소장파로는 현택훈을 들 수 있다. 현택훈은 2007년『시와 정신』으로 등단하여 시집『지구레코드』를 상재했다. 그는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여 탄탄한 기본기와 함께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독서 덕택에 시의적절한 시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엮는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것이 장점이다. 또한 언어감각이 뛰어나 시에 따라 적절한 리듬감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김병심의 서사와 남성적인 어조와는 달리 내성적이면서 인고의 여성적 어조가 감칠맛이 난다.

한 명은 과감한 상상력으로 제주도 거대 서사를 시에 녹여 내고 있고, 한 명은 작은 소재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관찰력과 감성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소장파 시인들이 앞으로 제주문단에서 어떤 작품을 발표하고 활동하는지 좀 더 지켜보자.

(3) 시와 시조 동인회

시 동인회로는 한라산문학동인회가 홀로 올연하다. 한라산문학동인회는 2012년 제24집『진흙이 쏘아올린 연꽃』을 발간했다. 문단으로 치면 중견 작가의 관록이다. 또한 신인 모집에 적극적이어서 행사나 출간에 막강한 동력을 지니고 있다. 한라산문학동인회는 탑동 및 차 없는 거리 시화전, 마라도 창작스튜디오와의 공동주관으로 '오래 묵힌 술의 그윽함', 제주민예총의 '평화로운 강물이 맛있는 술을 빚는다' 등의 행사를 차질없이 소화해냈다. 또한 내실 있는 24번째 동인지를 상재

했다. 다른 문학동아리들의 활동이 어금지금한 상황에서 당분간 한라산문학동인회의 독주는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시조 동인회로는 '정드리문학회'와 '젊은시조문학회'의 경쟁이 볼 만하다. 이들은 제주 시조의 탄탄함과 건재를 과시하는 대표적인 시조 동인회이다. 전국적인 실력과 열정을 지닌 제주 시조는 이른바 제주문단의 자존심으로 이미 우뚝 선 상태이다.

3) 문학상 수상

2012년 문학상을 수상한 문인은 모두 6명이다. 오승휴가 2009년 발간한 수필집 『내 마음을 알 거야』로 제12회 수필과비평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용언은 2012년 대한문학제에서 대한작가상을, 문순자는 서귀포문학상을, 강만구는 제10회 한국문학신문문학상 수필부문 대상을, 김용길은 경기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2012 한국시학상을, 강용준은 제12회 제주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제12회 제주문학상의 수상작은 강용준의 네 번째 희곡집 『외할머니』로, 표제작인 「외할머니」부터 「황금나무 과수원」, 「탐라순력도」, 「나순량 후보」, 「간병인」 등 작품마다 서사를 깐깐하게 굴려 테마를 세우는 솜씨가 빼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문단은 올해의 우수교양도서 선정이라는 쾌거도 거두었다. 문충성은 『허물 어버린 집』(문학과지성사)으로 문화부 우수교양도서, 번역가 김석희는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웅진지식하우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하는 올해 우수교양도서로 각각 선정됐다.

김석희의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저자가 육지의 '벗'들에게 '애월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온 60편의 편지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환갑에 시도한 귀향에서 땅을 고르고, 집을 짓고, 고향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어머니와 애틋한 정을 나누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

4) 문학 행사

서귀포문인협회는 '시 읊조리니 봄이 오다'라는 모토로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를 열었다. 대한민국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서귀포라는 주제로 올해로 13번째 꾸려진 행사는 서귀포시 칠십리시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시조시인'을 꿈꾸며 모인 젊은시조문학회는 '누구나 함께하는 시조 낭송의 밤'

과 '시화전'을 개최했고, 현대문예제주작가회는 '시와 풍류로 열리는 서귀포의 가을'을 주제로 시사전을, 제주시사랑회는 산지천 해상호에서 매월 정기 시낭송회를 열었다. 그리고 제주문학의집은 '꿈다락 토요학교'를 매주 토요일마다 열어 어린이들의 제주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주문인협회는 산지천 광장에서 제주문학동인축제를 개최했다. 도내에서 활동중인 여러 동인회간의 화합과 교류를 통해 제주문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주작가회의는 '거리에 흐르는 가을의 詩' 행사와 마라도 창작스튜디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마라도 창작스튜디오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문학창작 실지원사업으로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 창작실을 만든다는 획기적인 기획으로 주목을 받았다. 제주문단의 확장과 타 지역 문인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둔 이 마라도 창작스튜디오에는 2011~2012년까지 40여명의 문인들이 다녀갔다.

그러나 지리적인 악조건과 재정적인 열악함, 그리고 창작실 임대 조건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어 그 지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학 창작실 사업의 파급력으로 볼 때 제주도나 서귀포시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5) 부고

2012년 제주문단은 두 분의 소중한 작가를 잃었다. 소설가 오성찬과 정군칠 시인이 그들이다.

고 오성찬은 서귀포시 서호동 출신으로,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창작활동을 해 온 제주를 대표하는 원로작가다. 1969년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별을 따려는 사람들」로 등단했다.

4·3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작가는 「하얀 달빛」, 「잃어버린 고향」 등의 단편을 통해 4·3사건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4·3사건의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절, 문학을 통해 가장 일찍 4·3의 실상과 아픔을 알린 용기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특히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와 「죽은 장군의 증언」 등 4·3을 소재로, 당시 공산주의자와 토벌대원의 삶 혹은 희생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등 역사의식에 주목해 역사적인 사건을 문학작품의 주요 소재로 다뤄온 것도 그의 작품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오씨는 10여 년 동안 제주도내 마을의 지명유래를 밝히는 마을시리즈를 발간해 향토사 발굴에도 크게 기여했다.

고 정군칠은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1998년 현대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가슴 속에서 끓는 서정을 터트리듯 시로 써 온 그는 2003년『수목 한계선』과 2009년『물집』등 두 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특히『물집』으로 지난해 처음 제정된 제1회 서귀포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기도 했다.

제주작가회의 회원이었던 작가는 늘 지역에서 문학가로 살아간다는 고민을 품어왔다. 그 때문에 시인으로서 창작활동 외에도 교육과 문화기획 등에 시간을 쏟으며 보다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고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그의 유해는 그가 늘 곁에 끼고 살았던 서귀포시 중문동 '베릿내' 앞바다에 뿌려졌다.

Ⅲ. 나오며

현재 제주문단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문단의 급격한 노령화이다. 비단 제주문단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제주문단을 두드리는 사람은 30~40명 내외. 대부분이 40대 후반부터 70대이다. 신인들은 지역사회의 연고를 앞세워 문단에 노크하고 이미 중견 혹은 원로가 된 추천자들과 막역한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등단을 하고 나서 2~3년 이내에 제주문단의 중견 혹은 원로로 자리를 잡는다. 이른바 무임승차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문단의 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서는 문단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문단 밖에서는 자신의 출신 성분과 사회적 위치가 통할지 모르지만 문단 안에서 사회적 관록으로 승부를 봐서는 안 된다. 오직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문단의 선배이고 어른이다. 글을 써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자는 의미이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단의 일반화된 경향 속에서 젊은 신인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젊은 신인이 왜 없겠는가. 다만 그들은 제주문단에 발을 들였다가 스스로 은둔을 택하는 것뿐이다. 제주문단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젊은 작가들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낙관론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략적으로 후배를 양성하고 지켜보고 격려함으로써 제주문단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제주문단의 최약 장르인 소설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등단 신인은 거의 없는데다가 지역문예지(『제주문학』·『제주작가』)에 발

표되는 작품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괜찮은 소설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쭙잖게 2~3년의 스파르타식 공부를 해서 어찌어찌 등단을 한다 해도 그로부터 창작집을 내는 데 3년이 걸리고, 이후는 시간과 경제문제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등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글을 마음의 수양으로 삼고 평생을 거쳐 위대한 작품을 쓰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끈기가 중요한 것이다.

문학이 자신의 명예나 과시의 도구가 될 때 작가는 영원한 나르시스적 우물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는 제주문단 뿐만 아니라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자신에게 꽂는 자아성찰의 비수이다.

부디 제주문단에 어느 늦봄, 한라산 선작지왓의 진달래밭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강렬한 서사가 머릿속에서 빵빵 터지는 작품이 나타나기를 대망해본다.

2013

제주문예연감

미술

2012년 제주 미술계 현황과 과제

장은철 _ 한국화가

Ⅰ.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2012년 제주도의 미술 분야인 전시, 행사, 수상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2012년 제주 미술 전반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행사와 각종 수상은 개괄적인 해석으로 대신하고 전시 활동 중심의 논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4년간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내·외에서 이루어진 전시를 지역별, 시기별, 장소별로 구분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시의 성향이 다양화되어 특정한 형식이나 형태, 내용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다 전시 성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었으며, 그 행사 자체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분류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미술 자체가 조형예술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각종 전시 형태 변화로 인해 조형 예술의 보편적 정의와 장르 구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전시장을 벗어나 카페 또는 대형건물의 복도나 로비(홀) 등을 활용한 전시 방식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기획전이나 초대전 그리고 개인전과 같이 명확하게 이름 붙였던 전시 성격도 이제는 모호해져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동시대적인 미술의 다원화 경향 탓에 기존 방식대로 서술하거나 비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본다.

여기서는 2012년 제주 미술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방법이나 관점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전시 주체가 붙인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전시 성격도 주체가 규정한 대로 정의하였다.

개최 지역은 도내, 도외, 국외로 구분하였으며 제주시, 서귀포시, 수도권, 수도권 외로 다시 세분하였다. 전시와 행사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는 편의상 하나의 전시 또는 행사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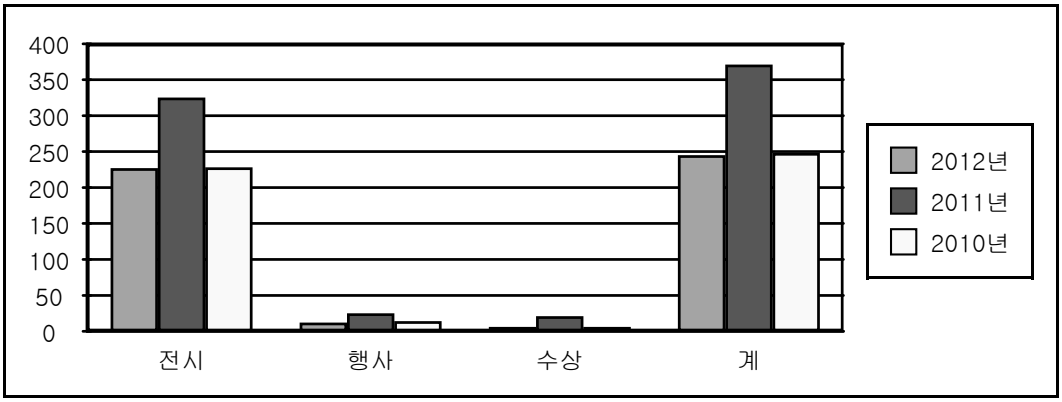
여기에 인용된 자료들은 모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제공받았으며 지난 몇 년간의 연감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Ⅱ. 2012년 제주미술계 활동 현황

2012년 미술활동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시 227건, 기타 행사 12건, 각종 수상이 6건으로 집계되었다. 총 245건으로 전년도 374건과 비교하여 볼 때 34% 감소하였다. 이는 큰 감소폭을 나타낸 것으로, 전시 활동에서는 2010년 228건에서 2011년 326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2012년 227건으로 다시 감소하여 2012년의 상황은 행사와 수상면에서도 2010년도와 매우 유사하다.

<표 1> 전년 대비 미술관련 활동 변화 추이 (단위 : 건)

구분	전시	행사	수상	계
2012년	227	12	6	245
2011년	326	26	22	374
2010년	228	14	6	248



최근 7년간의 전시활동을 집계해 보면(<표 2>) 2006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 추세에서 2011년 한 해만 전시 횟수가 갑자기 증가했다가 2012년에 들어서 주춤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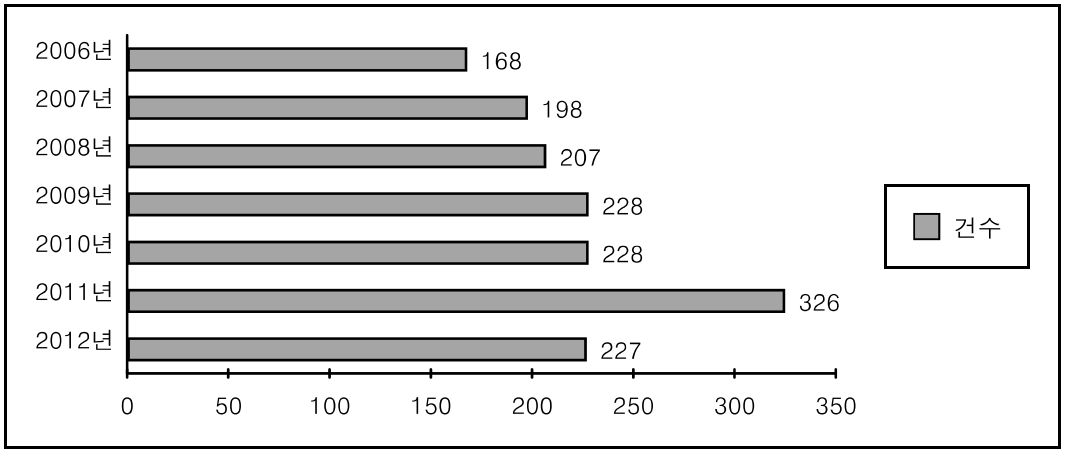
이렇게 전시 횟수가 감소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계미술시장의 불황

여파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까지 파급되었다는 점과 2012년 미술시장의 양도소득세 여파로 인해 미술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치상황의 변화 시기였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있다.

특히 미술품양도소득세법은 201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미술계 상황을 볼 때 이미 2012년 하반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경기 불황과 더불어 미술품 구입자의 신분이 드러나서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앞으로 확산된다면 양도소득세법의 후유증은 지속될 것이고 결국 미술인들은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화랑가나 컬렉터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미술계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표 2> 전시 활동 변화 추이(연도별)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168	198	207	228	228	326	227



1. 2012년 전시 현황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개최 지역별로 보면, 총 227건의 전시 중 도내 전시는 201건(88.5%), 도외 전시 20건(8.8%), 국외 전시 6건(2.7%)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326건에 비해 무려 99건(30.4%)이 감소했다.

제주시권에서 170건(74.8%)의 도내 전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여전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서귀포시권에서는 이중섭창작스튜디오가 산

남지역의 전시문화를 주도한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타 전시 시설들은 연평균 3회 내외의 활동에 그쳐 그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외 활동 또한 하석홍, 양경식 그리고 장은철이 해외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제주도를 벗어나 국내, 외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

<표 3> 지역별 통계(도내·외 활동)

구분	도 내		도 외		국 외	계
	제주시	서귀포시	수도권	수도권 외		
2012년	170	31	13	7	6	227
비율(%)	(74.8)	(13.7)	(5.7)	(3.1)	(2.7)	(100)
2011년	233	50	29	10	4	326
비율(%)	(71.5)	(15.3)	(8.9)	(3.1)	(1.2)	(100)
2010년	163	38	15	8	4	228
비율(%)	(71.5)	(16.7)	(6.6)	(3.5)	(1.7)	(100)
2009년	157	45	18	4	4	228
비율(%)	(68.9)	(19.7)	(7.9)	(1.7)	(1.7)	(100)

<표 4>의 개최 장소를 보면,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의 활용도가 47건(20.7%)으로 높은 편이나 이 곳을 이용한 미술관련 전시는 2009년 33%, 2011년 23%로 점차 감소하였다. 제주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은 각각 전시 비중이 전체 전시 건수의 10%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에게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색다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단체 지원사업과 여성작가 발굴사업 등 돋보이는 전시기획을 벌여 새로운 문화생산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서귀포시권에서는 이중섭창작스튜디오가 12건(5.3%)으로 그나마 산남 지역의 대표 문화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산남지역은 관광특구로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관광 상품과 관련된 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획과 안정적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특유의 문화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작가의 산책길'과 같은 프로젝트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표 4> 장소별 통계(도내 활동)

구분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기타(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계
	문예회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연갤러리	현인갤러리	이중섭창작스튜디오		
2012년	47	17	7	37	10	12	97	227
비율(%)	(20.7)	(7.5)	(3.1)	(16.3)	(4.4)	(5.3)	(42.7)	(100)
2011년	67	21	11	36	17	19	112	283
비율(%)	(23.7)	(7.4)	(3.9)	(12.7)	(6.0)	(6.7)	(39.6)	(100)
2010년	73	7	9	31	10	11	60	201
비율(%)	(36.3)	(3.5)	(4.5)	(15.4)	(5.0)	(5.5)	(29.8)	(100)
2009년	67	3	10	20	13	0	89	202
비율(%)	(33.0)	(1.5)	(5.0)	(10.0)	(6.4)	(0)	(44.1)	(100)

※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시 비중이 높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음.

<표 5> 시기별 통계(도내·외 활동/전시 시작일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타	계
2012년	9	18	23	13	22	16	21	19	19	24	20	23	0	227
비율(%)	(4.0)	(7.9)	(10.1)	(5.7)	(9.7)	(7.0)	(9.3)	(8.4)	(8.4)	(10.6)	(8.8)	(10.1)	(0)	(100)
2011년	25	18	17	25	31	21	26	20	21	37	35	39	11	326
비율(%)	(7.7)	(5.5)	(5.2)	(7.7)	(9.5)	(6.5)	(8.0)	(6.1)	(6.4)	(11.3)	(10.7)	(12.0)	(3.4)	(100)
2010년	17	12	11	15	17	22	19	22	20	26	24	23	0	228
비율(%)	(7.5)	(5.3)	(4.8)	(6.6)	(7.5)	(9.6)	(8.3)	(9.6)	(8.8)	(11.4)	(10.5)	(10.1)	(0)	(100)
2009년	13	12	14	15	22	17	18	24	29	17	23	20	4	228
비율(%)	(5.7)	(5.3)	(6.1)	(6.6)	(9.6)	(7.5)	(7.9)	(10.5)	(12.7)	(7.5)	(10.1)	(8.8)	(1.7)	(100)

※ 기타 : 연중 상시 전시되거나 전년도에 전시되어 그 다음해로 이어진 경우를 지칭함.

<표 5>는 개최 시기에 대한 통계로서 예년에는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을 피하여 날씨가 맑은 10월 이후에 활동이 많았으나, 2012년에 들어서는 3월, 5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 골고루 전시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하반기 집중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전시 준비 및 진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2012년 행사 및 수상 현황

1) 행 사

⑴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상상놀이터'를 주제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도립미술관의 연중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어린이들이 동물 조각을 조립하고 무늬를 그리도록 배려한 체험프로그램 '와글와글 동물친구들'도 흥미를 끌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강좌 '미술의 이해와 감상' 및 미술관 내 음악회 공연도 주목할 만했다.

⑵ 라온프라이빗타운에서는 미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을 초청하여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⑶ 제주대학교 의류학과에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천연염색포럼을 열어 도민들과 천연염색의 신비한 색상이 갖는 매력을 체험하고 선보이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⑷ 제주은행 본점에서는 '아이러브 제주'를 주제로 한 초등학생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 은행의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살린 행사를 개최하였다.

⑸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는 '현대미술로 풀어낸 돌문화'라는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⑹ 이호해변 캠핑장에서는 2012 탐라대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한 '2012 탐라국제아트캠프'가 마련되었다.

⑺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에서는 '2012 거리예술제'를 개최하여 제주시 연동 소재 바오젠거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거리예술의 신선한 맛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거리예술제는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예술 행위라는 점에서 현장성, 즉시성,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⑻ 제주한국화협회에서는 협회전의 일환으로 전통부채 그림 그리기 가족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전통 회화를 체험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2) 수상 현황

⑴ 아시아프(ASYAAF)가 주최한 아시아청년미술제에서 정혜윤이 회화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프는 단순한 미술 작품 전시 및 판매가 아니라 교육과 축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행사로서 지역에서도 창의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⑵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한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에서 한국화에 현덕식, 서양화에 변세희가 각 부문 대상을 차지하였다.
⑶ 중소기업청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2회 대한민국공예품공모대전에서 한오경이 개인상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현병묵과 신재현이 개인상 부문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

Ⅲ. 제주 미술의 흐름

1. 특정 지역 중심의 문화 활동 전개

201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과 시·도기획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과 지역주민간의 지속가능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미술문화 형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성산읍 삼달리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문화활동은 예술을 통한 농촌의 활성화, 예술성과 지역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 전시 활동의 다변화 현상

기존의 전시장과 다른 특정 장소(카페, 음식점, 병원 로비, 관공서 복도 등)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등 전시 형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취미활동으로 시작된 소규모 그룹의 전시 또는 도외 활동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전시회가 의외로 많아 일반인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을 알 수 있다.

3. 대형 전시관의 역할 강화

제주도립미술관이 개관 3주년을 맞아 기획한 '한라산과 일출봉'展과 '제주작가 3인3색의 제주이야기'展이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해외미술 특별기획으로 '인도의 신화와 민화이야기'展을 선보였다.

제주현대미술관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展과 '여성작가'展 등의 특별전을 열었다.

그리고 국립제주박물관의 '인도네시아 특별展'은 해양문화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시로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120점의 금속공예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했다.

KBS제주방송총국이 제주돌문화공원 전시실에서 제주 청년작가기획전 '섬의 무게, 시간의 풍토'展을 주최하여 대형 전시관의 위상을 한층 새롭게 했다. 앞으로는 대형 전시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전시 프로젝트를 기대한다.

4. 신진 작가 편중 현상의 대두

현재 우리나라의 화랑가는 지나치게 젊은 작가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신진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화단에 등장해야만 주목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신진작가 선정 기획전이라든가 신진작가 초대전 등의 행사명은 웬만한 전시에 단골 메뉴처럼 따라붙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일생에 한 번 받는다는 신인 배우상처럼 단발성에 그치는 것에 그렇게 열의를 쏟아야 하는지 씁쓸하다.

'꽃보다 할배'라는 어느 TV프로그램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나간 세월을 뒤로 하고 오늘도 묵묵히 작품에 자신의 남은 혼을 쏟아 붓는 중견, 중진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그들도 과거에는 '신진'이었으며, 노련함과 숙련됨 속에 무르익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화단은 기억해야 한다. 그들을 자극하고 끌어들이는 기획전을 화랑이 유치한다면 미술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으며, 불황을 타개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중견, 중진 화가들도 지나치게 권위의식이나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창작의 열정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균형 있는 전시와 기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지난 몇 년간 이어지는 불황에 2013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법으로 우리 미술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그 여파는 제주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세기를 지나며 세계미술시장은 '비엔날레'가 대세를 이루던 시기를 지나 '아트페어' 전성기를 거쳐왔다. 이제는 점차 '옥션(경매)'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이 과정에서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곧 작품의 예술성과 작품 성향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자본화되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풍조에서 예술은 그저 자본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필연적으로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미술은 이제 고정된 프레임을 벗어나 3차원의 영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와 같은 전시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기발한 전시 형태와 내용이 등장하고 있으니 이것은 다양한 내용의 전시를 원하는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현상으로 보인다.

2012년 제주 미술의 현황을 볼 때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잘 팔리는 작품을 그리는 상업적인 작가가 있는가 하면 변덕스러운 대중 사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대어 근근이 활동을 이어가는 가난한 작가도 있다. 자기 작품에 자존심을 걸고 노력하는 미술인들이 있기에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제주미술의 전망을 어둡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저조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림을 볼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구입할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술인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미술시장의 다양한 기류 변화와 가치의 혼란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13

제주 문예연감

서예

2012, 제주 서예계 현황과 과제

– 외형적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오창림 _ 서예가

Ⅰ. 들어가며

서예는 붓으로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예술이다. 전통적으로 서예는 문인화와 전각을 포함한 범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서예작품을 새긴 서각은 제외하였다. 근래에 공모전 등에서 서예의 범주에 서각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통적 인식과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고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서단 내의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인화는 전통적으로 문인이 문필의 여기(餘技)로서 사의성(思意性)을, 그리고 (圖寫) 미처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뜻을 글씨로 보충한 것이다. 전각(篆刻)은 전서(篆書)로 돌에 새기기 전에 인고(印稿)를 붓으로 쓰기도 하거니와 측관(側款)을 철필(鐵筆)로 새긴 뒤에 탁본을 하기도 하고 도장을 새긴 연유 등을 붓으로 쓰므로써 완성된 서예작품으로 볼 수 있다.

서각은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새김질하는 예술이다. 글씨를 각하여 서각이라 견강부회(牽强附會)할 수도 있겠으나, 글씨를 각해서 서각이라 한다면 그림을 각하면 화각(畵刻)이 되어야 하니 역시 각수(刻手)의 공(工)이므로 전통공예의 범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 글은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서예계의 활동분석을 통하여 서단(書壇)의 내실을 기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부득이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인적 범주로는 제주출신 도내·외 작가와 도내 전시관에서 전시·활동한 도외작가를 포함시켰다. 전시활동 범주는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교류전, 공모전 및 수상 등 기타행사로 분류했다.

Ⅱ. 전시 현황

1. 제주서단(書壇)의 현황

제주의 서단의 형성과정을 보면 조선시대 유배객이나 혹은 목민관으로 제주를 방문한 당대 최고라 할 만한 문인들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증자(曾子)와 주자(朱子)를 기리며 오현단(五賢壇)내 '증주벽립(曾朱壁立)'이라 쓰고 마애각석을 세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8년 여 유배생활 동안 '세한도(歲寒圖)'와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한 김정희(金正喜), 제주목사로 재임 중 아들 낙원(樂圓) 등과 오라동 소재 방선문을 찾아 바위에 '환선대(喚仙臺)'라 글씨를 쓰고 각석한 김영수(金永綏), 구한말 구국지사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등이다.

이러한 인문적 환경 아래 일가를 이룬 근현대 향토서예가로는 추사의 제자 연농(硏農) 홍종시(洪鍾時)를 비롯하여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 해주(海州) 원용식(元容植), 수암(修庵) 강용범(姜容範), 청탄(聽灘) 김광추(金光秋), 소암(素菴) 현중화(玄中和), 만농(晩農) 홍정표(洪貞杓), 해정(海丁) 박태준(朴泰俊) 등이 있다.

특히 서예와 문인화, 전각에 이르기까지 일가를 이루고 작품 감식과 수장에도 남다른 조예를 지녔던 청탄 김광추와 일본유학을 통하여 육조서(六朝書)의 정수를 터득하고 변방에서 유유자적하며 한국서단의 거장으로 입지를 견지한 소암 현중화, 양화를 전공했으나 국전에서 서예가로 입신하여 대한민국국회서도회 등을 이끌며 제주서예인의 중앙서단 진출의 물꼬를 튼 해정 박태준 등의 활약 등에 힘입어 지금의 제주서단의 틀이 형성되었다.

2012년 12월 현재 제주서단의 인적 구성을 보면 1975년 제주일보에서 제주도미술전람회로 시작하여 1989년부터 주관처가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로 이관된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이 올해로 38회째를 맞으며 배출한 추천 및 초대작가가 85명이며, ㈔한국서예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서예대전이 19회째 배출한 초대작가는 47명, 그리고 ㈔한국서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주관 한라서예전람회가 11회에 걸쳐 배출한 초대작가 15명 등을 포함하여 30여 단체에서 대략 50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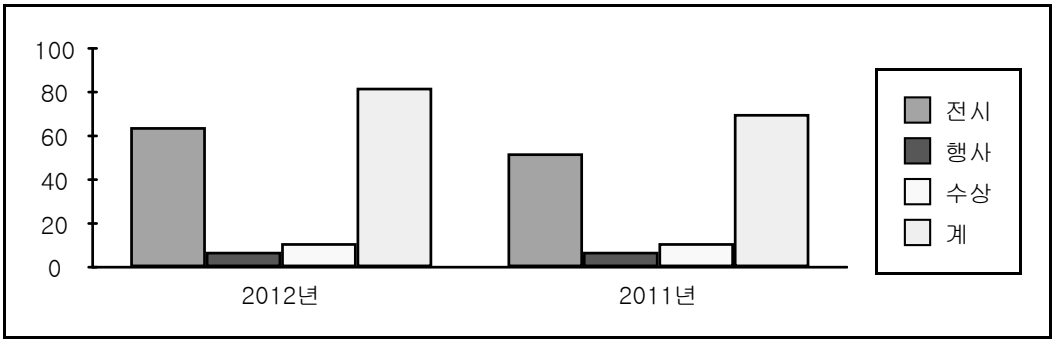
2. 전시 현황

임진년 한해 서단의 활동상을 살펴보면 총 63건의 전시회, 행사 7건 및 수상 11건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대비 서단 활동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시에서 11건이 늘었고, 행사와 수상은 증감이 없었다.(<표 1> 참조)

<표 1> 서단 활동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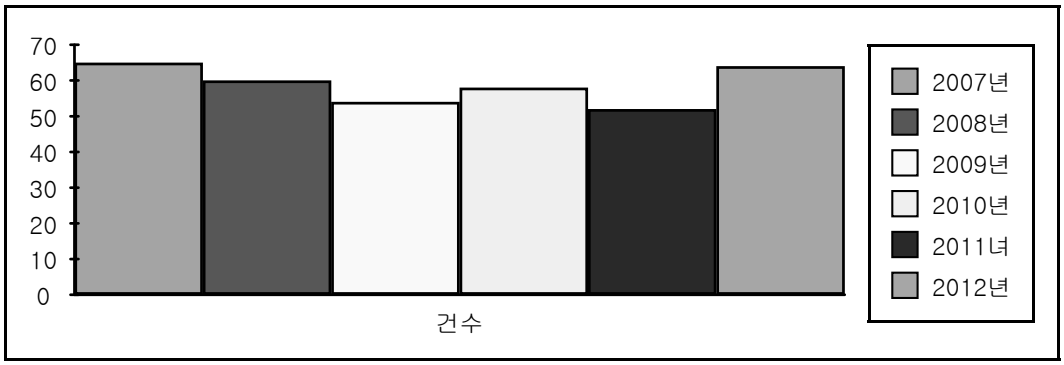
연도	전시	행사	수상	계
2012	63	7	11	82
2011	52	7	11	70



그리고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몇 년간의 전시현황 및 변화 추이는 2007년 65건, 2008년 60건, 2009년 54건, 2010년 58건, 2011년 52건, 2012년 63건 등으로 들쭉날쭉했다. 이는 사숙전과 동호회원전이 주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여부에 따라 전시를 거르는 현실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표 2> 전시 현황 및 변화 추이 (단위 :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65	60	54	58	52	63



2012년 전시 유형별 현황을 보면(<표 3> 참조) 개인전 10건(16%), 기타 단체전 54건(84%)으로 개인전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주서단의 외형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내적 성장이 답보상태임을 보여준다.

<표 3> 2012년 전시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개인전	단체전	교류전	공모전	계
건수	9	34	8	12	63
비율(%)	14	54	13	19	100

지역별 전시현황을 보면(<표 4> 참조) 특별자치도제 실시로 제주시 집중현상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서귀포시에는 김정문화회관과 소암기념관 기획전시실이 있으나 규모가 있는 전시를 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이다.

<표 4> 2012년 전시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서귀포시	제주시	도외	국외	계
건수	8	46	5	4	63
비율(%)	13	73	8	6	100

2012년도 전시개최 월별 현황을 보면(<표 5> 참조) 연중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의 영향으로 농한기인 9월과 12월에 8건과 13건으로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2012년 전시개최 월별 현황 (단위 : 건)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횟수	5	5	4	4	5	3	5	4	8	3	4	13	63
비율(%)	8	8	6	6	8	5	8	6	13	5	6	20	100

1) 개인전

○ 수행자이면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법산스님이 '법산 서각행전'을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얼어 서예 10점과 조형서각 4점 및 현대서각 30점을 선보였다.

○ '결곶 김명희전'이 한국한글서예정예작가초대전의 일환으로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렸다.

○ 2011년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서예가 박민자가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추사 김정희의 글귀로 전서, 예서, 금문, 한글민체, 서간체 등 30여 점을 전출했다.

○ ㈔한국서가협회 제주지회장 양상철이 '덕암 큰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초대로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선사의 향기전'을 가졌다.

○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초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현민식이 팔순 서예인생을 정리하는 '법고창신 60년 서화전'을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었다. 왕희지서 집자성교서 등을 완임한 대작을 선보이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 제주현대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한태상의 '문자추상전'과 양상철의 '필묵변주전'이라는 이름으로 특별기획 현대서예전을 열었다.

○ 현대미술관 초대작가 김구해가 임진왜란 420주년을 기념하여 '임진메아리전'을 열었다. 순지를 이어붙인 120미터 두루마리에 세필로 쓴 장편의 임진록을 비롯한 문기 넘치는 문인화, 전각작품, 임진왜란 당시 백병전에 썼음직한 죽창(竹槍)도 설치작품으로 전시되었다. 제주 전시에 이어 여수시의 초대로 여수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전시를 마무리했다.

○ 제주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 김선영이 조선조 의녀 김만덕의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는 4번째 개인전 '소정 김선영 서예작품전'을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었다.

○ 서귀포소묵회 회장 오창림이 30년 필묵생애를 돌아보는 첫 개인전 '소전 오창림 서예전'을 열고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2) 단체전

○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회장 현병찬)는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축하하고, 제주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제주도내 13개 서예단체의 회원들을 초대 '제주서예문인화 작가 100인 초대전'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가졌다.

○ '제주도미술대전 서귀포서예초대작가전'은 서귀포 지역 예술 창달에 뜻을 함께하는 회원 10명이 한글과 한문 등 다양한 서체로 각 3점씩 총 30점을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선보였다.

○ 여성작가 김미숙·김순자·좌경신·홍희숙 등 4인이 의기투합해 합동전 '봄꽃 머물다' 전을 제주도문예회관에서 가졌다. 전출된 한글과 한문, 문인화 등의 작품에서 20여 년 쌓아올린 내공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였다.

○ 총 197점이 전출된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전은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회장 현병찬)가 '제주서예문인화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겸하여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렸다. 한편 전시기간 중 (사)한국서가협회 김희정 초대작가의 '서예, 음악을 그리다'라는 제하의 강연회가 있었고, 이어서 추사 김정희 선생 탄신 226돌 기념 행사와 함께 전출된 작품 중에서 선정한 제주작가상에 김혜정이 선정되었으며, 원로작가상에는 문기선이 선정됐다.

○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전'은 제주서단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해정 박태준 선생의 문하생 모임인 정연회(회장 부현일)가 주관이 되어 치르는 11번째 추모제전이었다. 10주기 때는 유묵집을 발간하는 등 유고전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 추모전은 스승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의 애틋한 마음을 작품마다 느낄 수 있는 전시로 마련했다.

○ 석산묵연회로 출발하여 확대 개편된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이사장 강창화)가 18번째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전을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고 그동안 꾸준한 고법연마와 해외교류전 등으로 축적한 경험이 더해져 한글·한문·문인화·각자 등 다양한 작품 58점을 선보였다.

○ ㈔대한서화예술협회제주지회(회장 김안국)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와 탐라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화예술작품 길거리 깃발전'을 용담 레포츠공원에서 가졌다. 180점의 서화작품을 배너로 제작하여 제주지역 90곳에 전시했는데 바람의 섬 제주에 어울리는 전시기획이 돋보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이사장 임정택)가 23번째 회원전을 제주도문예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전시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특별 기획전'으로 회원 41명이 출품했다.
○ ㈔삼무서회(이사장 강경훈)가 '제10회 삼무서회전'을 소암기념관에서 열고 출품회원 9명의 작품 30여점을 전시했다.
○ 서귀포소묵회(회장 오창림)가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56회 정기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성산포문학회와 공동주관한 행사로 성산읍 소재 문인들이 옛 문헌을 정리하면서 가려 뽑은 한시와 현대 문인들의 글감을 소재로 한 한글작품 등 30여점에 소암선생의 유작비문(遺作碑文)을 탁본한 작품이 처음으로 전시됐다.
○ ㈔한국서도협회제주도지회(지회장 조용옥)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창립전을 가졌다. 회원 36명으로 지회를 결성하고 '서예문화의 확산'이라는 좌표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
○ '2012 세종한글서예한마음잔치'는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회장 현병찬)의 이사 및 초대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내걸었다. 이때 개막식과 함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종국 회장의 '세종성왕과 한글'이란 주제로 강연회도 있었다.
○ 제15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이 서귀포시의 주관으로 소암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소암선생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참선과 수행을 통해 빛나는 예술정신, 자연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서단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 전시에는 소묵회 회원작품 및 도내·외 초대작가의 작품 등 50여점이 전출되었다.

3) 교류전

○ ㈔삼다연서학회(이사장 김선영)는 4건의 국내외 교류전 등을 가져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장애인 예술복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김 이사장의 영향으로 상해, 대만 등지에서 열린 국제서화교류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한국서예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영진)와 같은 협회 전북지회간 '제주·전북서예협회교류전'이 도 문화예술진흥원 초청으로 열렸다.
○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문자'의 역사적 자랑거리를 안고 있는 청주의 해동연서회와 제주의 한묵회가 '제주·청주한마음한글서예전'을 제주

문화예술인마을 '먹 글이 있는 집'에서 가졌다. 청주에서 32명, 제주에서 28명 등 총 6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이사장 강창화)와 대만 중화민국서학회(회장 장병황)의 '국제서화교류전'이 대만 기륭시 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전시에는 대만 작가들의 서화작품 27점과 제주에서는 26명의 작품 48점이 전출되어 양국 서화인의 우의와 서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 제주전각학연구회(회장 김재흥)는 전남지역의 여류 문인화그룹인 여우회(女友會)와 함께 '필묵도흔상생전'을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고 20명의 작품 54점을 선보였다.

○ '연緣 – 마쓰모토 호스이·소암 현중화 – 일본 서해사 제주방문교류전'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립 소암기념관 초청기획전으로 마련한 이 전시에 소암 현중화(1907~1997)의 문하에서 정진하는 소묵회(제주, 목포, 서귀포, 광주, 마산) 회원들과 소암선생 일본 유학시절 스승으로 모셨던 마쓰모토 호스이(1891~1971)의 서맥(書脈)을 잇고 있는 서해사(書海社)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암 현중화 선생은 물론 그의 스승 마쓰모토 호스이의 작품 등 81점이 걸렸다. 한편 서(書)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단아하고 정교한 필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풍을 이룩한 마쓰모토 호스이는 일본 내에서 구양순체의 독보적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일찍이 그가 창설한 서해사는 60년 넘게 '서해'라는 서예지를 발간해오면서 일본 동경지방의 대표적인 서예교육 및 학술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4) 공모전

○ ㈔한국서예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한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대전에서 총 143점 출품작 중 대상 등 60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 전시와 더불어 제주서예문화축제를 함께 열었다. 제주도서예대전 초대작가전, 붓은 나의 친구, 서예문화 체험의 날, 문인화 체험의 날, 전각문화 체험의 날 등 전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일반 대중들과 함께하는 축제행사로 자리매김하려는 흔적이 돋보였다.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에는 문인화 포함 서예 부문 출품작 193점 가운데 대상 등 98점이 선정되었다. 한편 2012년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특선 이상의 후보자들은 현장

휘호로 서사능력 검증을 통해 당락이 결정됐으며 그 결과 2명의 후보가 탈락하는 이변이 있었다. 입상작 전시와 별도로 전시되는 추천·초대작가전은 전시장 대관 등의 이유로 신규초대작가에 한해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 초대작가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 ㈔소암현중화기념사업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후원을 받아 제6회 소암현중화기념 전국대학생경서대회를 소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하고 예선 심사에서 통과된 40(한글 10, 한문 30)명은 서귀포에서 현장 휘호를 통해 본선 수상작이 가려졌다. 한편 수상작 전시는 이듬해 경서대회 기간 중 소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한 제22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서예분야에서 성정자가 대상을 수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한글서예사랑모임(이사장 현병찬)이 훈민정음 반포 566돌 한글날을 맞아 제11회 한글사랑서예대전을 개최했으며, 한글으뜸상은 양문중이 차지했다. 총 162점의 입상작과 초대작가 작품 35점은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전시되었고, 제주신화역사탐방 및 한글서예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이사장 강창화)가 제12회 전국추사서예대전을 개최했다. 추사적거지 인근 보성초등학교에서 현장 휘호를 거쳐 종합대상과 한문부문 대상에 강형근 등 164점이 입상했고, 우수상 이상은 대정읍 추사적거지에서 전시되었다.

○ 제3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글부문에 김인순, 한문부문 정석자 등 7명이 특선, 10명이 입선을 차지했다.

○ 제24회 대한민국서예대전 해서 부문에 김지웅 외 1명이 입선을 차지했다.

○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양상철)가 전국 공모로 진행한 「한라서예전람회」에 모두 305점이 출품되었으며 184점의 입상작이 가려졌다.

○ 제2회 의정부국제서예대전에서 특선에 조동호, 그 외 3명이 입선에 뽑혔다.

○ 제22회 공무원 미술대전에서 부윤자 등 특선 2명과 입선 8명이 영예를 안았다.

○ 제20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에서 한문 부문 오태숙 등 4명이 입선했다.

Ⅲ. 나오며

2012년 서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 서예계는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서단의 내실과 미래비전을 위해서 지역대학에 서예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과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학부에 서예전공이라도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 청년작가의 발굴 육성이 없는 한 서단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제주는 역사적으로 풍부한 인문학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미 추사 김정희와 소암 현중화의 업적만으로도 제주는 한국서단의 중심지라는 자산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훌륭한 유산을 세상과 소통시킬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대학에 서예과를 신설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청년작가와 서예전문 학예사 등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추사기념관과 소암기념관이 문화시설로서 제몫을 다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미래의 추사와 소암의 출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모전의 위상 제고와 개인전 활성화 지원책 등이 절실하다. 현재 도내·외 공모전을 통해 배출된 이른바 추천·초대작가가 200명에 이르는데도 연간 단체전(54건)의 비율(84%) 대비 개인전(10건)의 비율(16%)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개인전에 따른 과도한 예산부담이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 등용문의 유일한 출구를 공모전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제는 서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모전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공모전이 공부정도의 점검과 창작의욕의 고취에 필요한 것이라면 각종 공모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시상금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모전 시상금의 직접 수여보다는 수상작가나 추천작가에게 이듬해 개인전 또는 부스전이라도 열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이 주어진다면 명실상부한 작가등용문으로서 공모전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전을 열 수 있는 역량 있는 작가를 선발한다면 공모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신진작가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고 그 결과 관객도 질 높은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공모전은 그야말로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도시의 기치 아래 공공기관마다 개설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서단의 양적 성장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주로 성인 대상의 무상교육 수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설학원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문을 닫게 되면서 서예에 뜻을 둔 젊은 층이 공부할 기회를 잃어 서단 구성원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기관의 예산 및 장소 부족으로 인한 개설 진입 장벽과 학습자의 강사 선택권의 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민간시설로 이관하고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도민의 선택권 폭도 넓혀주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서예 학습의 기회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서단의 질적 도약의 단초를 외부 요인에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단 구성원 개개인이 '왜 서예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견지하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시대적인 변화와 요청에 앞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다.

2013

제주 문예연감

사진

2012 제주 사진의 동향과 전망

김병국 _ 제주한라대학교 강사

Ⅰ. 들어가며

제주 사진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쉽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디지털카메라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제주 사진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사진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인이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사진과 정신의 힘은 외면적, 감각적 인지와 달리 내면적 요구와 관계된다. 사진은 최소한의 정신적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2년 한 해 동안 제주의 사진 활동을 분석해 보겠다.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전시는 총 44회에 이른다. 개인전은 10회, 단체전은 34회에 걸쳐 열렸다.

그 중에서도 특색 있는 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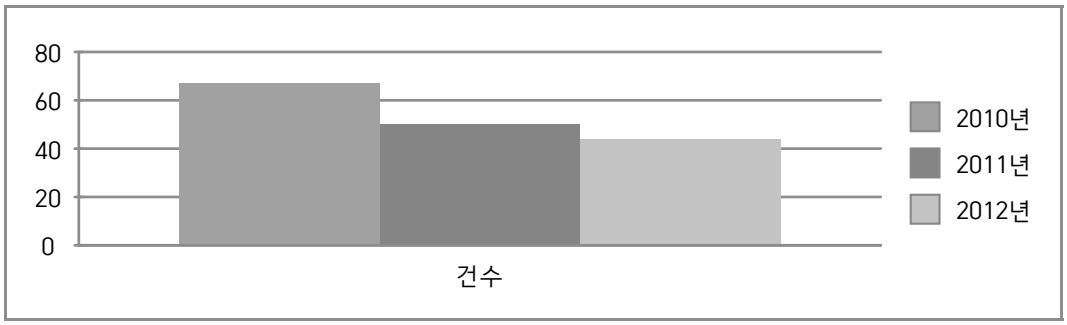
Ⅱ. 활동 현황

1. 전시 현황

사진 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는 예년에 비해 점점 감소했다.

<표 1> 전시 활동 변화 추이(연도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67	50	44



<표 2>에서 보듯이 개최 지역별로 보면, 총 44건의 전시 중 도내 전시는 42건(95.5%), 도외 전시는 2건(4.5%)으로 집계되었다.

도내 전시에서는 제주시권에서 36건(81.8%)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모든 전시가 개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내 뿐만이 아니라 도외 또는 해외에서도 전시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

<표 2> 지역별 통계(도내·외 활동)

구분	도내		도외		국외	계
	제주시	서귀포시	수도권	수도권 외		
2012	36	6	2	0	0	44
비율	81.8	13.7	4.5	0	0	100

<표 3>을 통해 2012년 개최된 사진전을 성향별로 비교해 보면 개인전이 10회(22.7%), 단체전 19회(43.2%), 기획전 8회(18.2%), 공모전 3회(6.9%), 소장전 2회(4.5%), 기타 전시 2회(4.5%) 등이다.

개인전과 단체전은 수치상 소폭 감소한 경향이 보인다. 대부분의 전시 예산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대고 있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하면 전시를 취소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아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표 3> 성향별 통계(도내·외 활동)

구분	개인전	단체전	기획전	공모전	소장전	기타	계
2012	10	19	8	3	2	2	44
비율	22.7	43.2	18.2	6.9	4.5	4.5	100

3. 전시 장소별 통계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작가나 단체가 전시 장소로 문예회관 전시실을 선호하다 보니 17건(38.5%)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시 활동을 살펴보면 비율면에서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 장소별 통계(도내 활동)

구분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기타	계
	문예회관	학생문화원	자연사박물관	국립박물관	현대미술관	연갤러리	신산갤러리	설문대여성센터	갤러리노리	이중섭미술관	이중섭스튜디오	두모악미술관	자연사랑미술관	문화곳간갤러리		
2012	17	2	2	1	1	1	1	1	1	1	1	1	1	1	12	44
비율	38.5	4.5	4.5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7.2	100

<표 5>와 같이 개최 시기별로 보면 연중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도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개인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표 5> 시기별 통계(도내·외 활동 / 전시 시작일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2	2	3	4	3	4	3	2	7	4	6	4	2	44

4. 수상 및 발간

<표 6>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07.20	김재준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기도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표 7> 발간

일자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02.05	김상부	사진으로 보는 제주 야생화	도서출판 늘

5. 개인전

2012년 한 해에 총 10회의 개인전이 열렸다. 2010년 13회, 2011년 15회에 걸쳐 열린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못 미치는 활동이다.

2012년에 열린 개인전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이 주로 열었다. 신진작가의 경우도 비록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인상에 남는 전시를 펼쳤다. 예년에 비해 개인전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작품 활동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전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어느 분야든 모든 예술에는 시간과 노력, 때로는 금전적 희생도 필요하다. 작가들이 기획 능력을 키워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더 좋은 작품 활동, 사진가의 시선이 고스란히 묻어난 전시를 기대한다.

김상부는 제주 야생화를 현장에서 보고 느낀 감흥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한 촬영의 길잡이가 되도록 생태적인 설명보다는 다양한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꾸민 사진집『사진으로 보는 제주 야생화』를 출판하고, 그 감흥을 고스란히 전시로 담아냈다. 작가는 지금까지 8회에 걸쳐 개인전을 개최할 만큼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진가이다.

김병국의 여섯 번째 개인전은 '하얀 바다'를 주제로 언제나 파란 이미지로 부대껴오는 것들에서 작가는 숨겨진 색을 끄집어냈다. 전시 공간도 색달랐다. 제주 시내에 있는 전시장이 아닌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빈집프로젝트로 창고를 갤러리로

탈바꿈한 문화곳간 갤러리(서귀포시 삼달리)여서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과 올레꾼들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철(제주불교신문 기자)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제주불교 10년, 그 안에서 我를 보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2002년 불교 신문과 인연을 맺으며 찍어온 사진들 가운데서 추려낸 40여장은 마치 옛 일기장을 들춰보듯 잊었던 것들을 되살리고 되찾아야 할 것들을 보여준다. 전시작품들은 일반 취재 사진 같은 치열한 현장감 대신 수다스럽지 않으며 고즈넉한 풍경들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새삼 가르쳐주었다.

사진작가 이다슬의 개인전이 'Nothing in the intervals between rain(비가 그친 뒤에)'라는 주제로 갤러리노리에서 열렸다. 작가는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가 한 프레임 안에서 보일 때의 '신비로움'과 '불편함'을 동시에 담아내기도 하고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일정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이는 작가 본인이 집필한 소설『I know』를 바탕으로 한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시각화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관한 은유적이면서도 동시에 공공연한 암시를 드러낸다. 작가의 글과 사진을 통해 묘사된 일종의 허구(Fiction)는 현실보다 오히려 더 적나라한 현실(Fact)을 보여주는 팩션(Faction)으로 변모된 채 관객에게 다가선다. 이번 전시는 유럽의 아일랜드에 체류하며 채집·기록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사진작가 박훈일의 6번째 개인전이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기억: 낯선 익숙함'으로 열렸다.

"오래된 기억,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아이들과 고구마를 캐먹었고, 콩을 구워먹었다. 지네 잡고, 고사리를 꺾고, 학교엔 가지 않았다. … 지금, 그 곳은 새 길이 만들어졌고, 그 때의 추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낯선 풍경에 서 있다. 언젠가 와 본 듯 익숙한 다른 풍경이다.... 박훈일의 작업노트 중".

그는 현재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을 지키며 사진작업을 하고 있다.

제3회 권기갑 개인전 '생명과 신화의 섬, 삼다도'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에서 열렸다. 권기갑은 지난 수년간 제주의 단순한 풍광을 찍어 온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적 풍경으로서 가장 제주다운 전통과 역사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의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예술 사진 속에 담겨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 제주 문화의 본질을 찾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 보태지면서 사진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기록'이 되고 '예술'이 된다.

개인전을 비롯해서 사진계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시가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내 뿐만이 아니라 도외 또는 해외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등이 작가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개인전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2012년 제주 사진 전시 현황(개인전)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04~02.10	김상부 8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김상부
05.04~06.05	김병국 6번째 개인전「하얀 바다」	문화곳간갤러리	김병국
06.15~06.21	이병철 두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제주불교신문
08.13~12.31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개관 10주년전「바람」	두모악미술관	김영갑갤러리
08.20~10.21	「좀녜, 사라져가는 해녀 10년의 기록」	해녀박물관	김흥구
09.25~10.05	김완수 작가「북극점 사진전」	제주도청 1층 로비	제주특별자치도
10.09~10.30	이다슬 개인전「Nothing in the intervals between rain」	갤러리 노리	이다슬
10.16~10.25	박훈일 6번째 개인전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박훈일
10.28~11.02	강길순 개인전「길 위에 쓰다」	이중섭스튜디오	강길순
11.06~11.10	제3회 권기갑 개인전 「생명과 신화의 섬, 삼다도」	제주도문예회관	권기갑

6. 단체전

사진 동호회 섬에서 부는 바람이 1999년부터 매년 독특한 소재로 좋은 전시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건축'이란 주제를 내밀었다. 건축물을 공통 주제로 하고 각 개인별로 소주제를 각자 정해서 촬영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사진작가 서재철(66)과 월간 조선 사진기자로 현장을 누비고 있는 딸 서경리(30)가 사진전 '하늘 아래 제주'를 열었다. 제주에서 부녀가 함께 전시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로, 특히나 사진 분야에서는 처음 열린 전시였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생명의 기적'을 주제로 한 매그넘 & 글로벌펀드 세계순회사진전이 개최되었다. '생명의 기적' 사진들은 전 세계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현장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어떻게 에이즈 치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희망도 전

해주는 전시였다.

제주영상동인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제주 것에 대한 아쉬움을 꾹꾹 눌러 담은 '제주인의 삶' 세 번째 테마로 '제주 돌담'을 사각 프레임에 담았다. 돌담을 쌓는 과정에서부터 주변의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지형에 따라 다른 지질학적 특성까지 제주 전역에 퍼진 총 3만 6,000여㎞의 돌담 이야기가 45장의 사진에 함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 사진동우회 파노라마 창립전이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회원들은 뷰파인더를 통해 본 팽나무에 주목했다. 팽나무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만나 희노애락을 같이 공감하며 쉬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소망을 들어주던 나무다. 제주의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인고의 세월을 견딘 모습에서 옛 사람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주생태사진연구회는 전시회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나다'를 열었다. 바다·곶자왈·오름·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천혜의 제주 자연자원에 대한 생태사진을 통해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환경생태자원에 대한 우수성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정기 사진전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버섯·새·곤충·꽃·야생란 등 생태사진 45점 및 바닷속 비경 3D 동영상 등이 전시되었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 64주년을 맞아 4·3의 진실과 역사를 되새겨 보고 평화,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제주4·3의 상처 치유, 해원과 상생의 정신 확산,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내용을 주제로 한 '4·3 기억과 현재 사진공모전'이 그것. '4·3 기억과 현재 사진공모전'은 2011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다양한 작품 사진으로 도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우수 2점, 장려 7점, 입선 18점 등이 입상장으로 선정됐고, 수상작은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전시를 열었다.

오름의 봄과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비경을 담은 '오름이야기'가 제주오름사진연구회 제20회 회원전으로 열렸다. 오름에 오르는 모습, 오름에서 본 한라산, 오름 사이사이로 비추는 햇살 등 오름에 가까이 선 이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오름을 등지고 바라보는 제주의 모습은 숨은 비경으로 다가온다. 오름마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회원들은 각자 오름이 가진 풍경의 색을 사진 작품으로 옮겼다.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과 제주도 한일친선협회가 일본 풍경 사진전 「일상의 숨결을 느끼며」전을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간 지진과 쓰나미로 세계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1년. 여진과 방사능 유출 위험 등에 대한 뉴스도 시들해지고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 역시 조심스럽게 정리되는 시점, 일본의 풍경을 소개하는 사진전이어서 눈길을 끌만 했다. 미야기현 센다이

시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방의 모습과 제주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오사카 주변의 일상이 사진을 통해 펼쳐졌다. 다카하시 아유미(미야기현 센다이)·스도 히데사와(오사카) 등 두 명의 작가가 각각 출신지의 모습을 사각 프레임에 담아냈다.

제주시 중앙로에서 동문로 그리고 탑동광장까지 지금과는 다른 구도심의 그 때 그 시절을 엿볼 수 있었다. ㈔탐라사진가협의회가 시간을 쫓아가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기억을 되살리는 '구도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전을 제주시 삼도2동 북카페 각에서 펼쳤다. 지금 어린 세대들은 보지 못했던 풍경, 그 때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깊은 추억으로 와 닿는 전시였다.

제주민속사진연구회가 '제주의 포구'를 주제로 흑백사진 40여점을 펼쳐놓았다. 몇 척의 어선들이 포구임을 알려주고, 돌로 쌓아올린 방파제가 투박하지만 왠지 모를 정겨움을 자아낸다.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것 같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의 구심점으로,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작은 어선들에게 피난처로 나름의 역할을 굳건히 해냈던 곳. 앞개 포구, 다끈개 포구, 내도 포구, 복덕개 포구, 안개 포구, 개창 포구, 큰물 포구 등 꼬박 1년을 걸려 찾아다니며 만난 포구들이 사진으로 내걸렸다.

2012년 단체전은 34회였다. 예년에 비해 수치상 소폭 감소한 것이다.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2012년 제주 사진 전시 현황(단체전)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4~01.09	섬에서 부는 바람 11번째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섬에서 부는 바람
01.25~01.31	제주대학교 사진동아리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사진동아리회
02.01~06.30	「하늘 아래 제주」전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서경리
02.12~02.17	제주사진교실 3번째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사진교실
03.02~03.07	일본풍경 사진전「일상의 숨결을 느끼며」	제주도문예회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제주도한일친선협회
03.08~03.18	「동일본대지진 복구사진전」	제주학생문화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03.25~03.30	「제주수중사진연구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수중사진연구회
03.30~04.30	사진기획전「4·3 그 아픔과 기억」	탐라사진가협의회	탐라사진가협의회
04.04~04.20	「기억 속의 제주 포구」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16~04.20	「제21회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04.24~05.22	매그넘 세계순회사진전 「생명의 기적」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5.06~05.10	「포스나인 제5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포스나인
05.07~05.13	「가족과 함께 하는 기상사진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지방기상청
05.21~05.25	제주영상동인 34번째 기획 주제전 「제주 돌담」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영상동인
06.19~06.23	제주도치과의사사진동우회 파노라마 창립전	제주도문예회관	사진동우회 파노라마
06.19~06.30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나다」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생태사진연구회
07.14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환경사진연합회
07.31~10.28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 특별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8.01~09.30	「4·3기억과 현재 사진전」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08.04~08.09	「일본풍경 사진전」	이중섭미술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한일친선협회
08.10~08.14	오름사진연구회 제20회 전시회 「오름이야기」	제주도문예회관	오름사진연구회
08.14~08.19	딥블루 수중사진클럽 전시회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딥블루포토클럽
08.16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 기념 「국제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09.10~09.15	「생명의 신비, 한국의 야생란」 사진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생태사진연구회
09.19~09.22	「제주의 사계 자연풍광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풍경사진가회
09.24~09.28	「제주기독사진가협회 창립전시회」	제주학생문화원	제주기독사진가협회
10.08~12.31	개교60주년 기념 「기록, 만농이 바라본 섬 제주」전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
10.22~12.31	제주마연구소 장덕지 소장사진전 「조랑말을 담다」	조랑말박물관	조랑말박물관
10.27	사진 워크숍 「다큐멘터리, 그 힘 있는 이야기」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커뮤니케이션
11.01~ '13.02.16	「초가는, 바로 제주의 아이콘입니다」	대동호텔 비아아트	비아아트
11.09~11.11	민속사진연구회 회원전	신산갤러리	제주민속사진연구회
11.29~12.02	한라사우회 제38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한라사우회
12.06~12.14	오름사진전 「사진은 말(言)이며 시(詩)다」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12.26~12.31	「구도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전」	북카페 각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Ⅲ. 나오며

사진이 일상 속으로 파고 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매 순간 사진 이미지를 즐긴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만의 사진과 이미지 세계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는 현대미술의 큰 틀에서 사진이 새로운 시각 언어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볼 때 2012년 제주 사진계는 분명 역동적이긴 하지만 뭔가 미진한 구석을 남기고 있다. 여러 가지 활동상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사진은 가장 감각적으로 세상을 표현한다. 사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진가의 시선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 시선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 곧 사진가의 사상이다. 사진이라는 감동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는 개인전이다. 다른 분야만큼은 아니라도 개인 사진전에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방 작가들이 흔히 겪는 소외 현상 극복을 위해서 대형 전시나 유명한 작가 전시 그리고 다양한 사진 행사가 제주도내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지역의 사진 인구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제주도립미술관이나 제주현대미술관 또는 돌문화공원 등에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진전과 행사들을 기획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제주사진계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을 기대해 본다.

2013

제주 문예연감

건축

2012년, 제주건축계의 이슈와 과제

김태일 _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Ⅰ. 들어가며

아름답고 멋진 도시건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사회적 가치관 형성이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건축이나 건축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과 너무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직업으로서의 건축사는 문화예술가이고, 건축물은 그런 문화 활동의 결과물로 받아들인다.

대중 문화적 요소로서 건축물은 아름다워야 하는 동시에 실용성과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문화적 예술과 기술의 복합체(複合體)라는 상당히 복잡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건축은 공공예술의 성격으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존재인 것이다. 창조적 결과물로서 건축물은 건축주의 소유가 아니며, 건축가 자신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역사와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외국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의 생활공간을 담아내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주건축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3단체의 건축문화축제 및 단체별 회원전, 그리고 행정기관에서의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현상공모 등이 좋은 사례들이다.

2012년 제주건축계의 활동을 정리해 보고 더욱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2012년 제주건축계의 활동과 이슈

1. 제주건축문화축제의 내용과 평가

제주건축문화축제는 제주건축계를 대표하는 3단체가 힘을 합쳐 건축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2012년 9회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활동의 영역과 폭이 제한적이지만 제주지역의 건축을 주도하는 체계 구축의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제주건축문화축제는 3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및 집행되며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와 11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요사업을 구상하고 추진되는데 2012년 제주건축문화축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은수(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가 맡았다.

2012년 제주건축문화축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식전행사「아름다운 제주 도시건축 그리기대회」는 2012년 9월 22일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2012년 10월 4일(목) ~ 10월 7일(일)동안 제주한라아트홀, 제주국제공항 청사, 이도초등학교 등 제주 전역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건축세미나, 건축전시회, 제주건축인단합대회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림 1> 2012년 제주건축문화축제 홍보 포스터 및 개막식

개막식에서는 제주의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우수 건축물 혹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주건축문화대상의 준공 부문과 계획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표 1> 2012년 제주건축문화축제 준공부문 및 계획부문 수상작

부문			작품명	수상자 / 사무소명(학교명)
준공부문	본상	주거부문	제주삼나무테스트하우스	강승희/ 주)노바건축사사무소
			제주풀빌라루온토	김승욱/건축사사무소피에이치에
			진성재	양재영/건축사사무소 선재
			연동 K씨 단독주택	양 건/가우건축사사무소
		비주거부문	Y. resort	김대훈/건축사사무소 더건축
	특선	비주거부분	제주공항렌트카하우스	김한진/김한진건축사사무소
			산양마을회관	오용화/건축사사무소 예림
계획부문	대상		memorial scenery	임혜지/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우수상		wall	김현아/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
	특선		용천	김지원/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골목&문화도시재생프로젝트	유승학/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

준공 부문의 경우 입상작에 선정된 대부분의 작품들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비교적 소규모 개발의 프로젝트였고, 본상 다섯 작품은 준공건축물로서 지역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출품된 작품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고민과 차별화된 고민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도 따랐다.

계획 부문의 경우, 다수의 입상작품에서는 제주만의 지역적 특색을 재해석하고

콘텍스트를 분석하여 건축적으로 다이어그램화하는 과정들을 충실히 보여주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제주의 산지천변을 사이트로 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졌던 20세기 초반의 수변공간을 새롭게 재조명한 「MEMORIAL SCENERY」는 산지천변으로부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광장들이 새로운 건축지형을 형성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제주 땅이 가진 독특한 문화풍경과 역사적 내용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노력과 결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계획 부문 역시 출품작품수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여 작품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한편 2012년 제주건축문화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름다운 제주 도시건축 그리기대회」이다. 초등학생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자신이 살고 싶은 도시와 건축을 상상해서 그리는 사생대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다 위에 이층집」(김경환, 대정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지 위에 도시와 건축물을 그리는 일반 학생들의 상상력보다는 도서(島嶼)지역인 제주도의 여건을 고려한 바다 위의 건축이라는 점이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자신만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로 우수상 2명, 특선 4명, 다수의 작품들이 입선을 받았다.

<그림 2> 바다 위에 이층집_김경환(대정초등학교 4학년)

<표 2> 2012년 건축문화축제「아름다운 제주 도시 건축 그리기대회」수상자 명단

시상내용	작 품 명	성 명	학 교 명
대 상	바다 위에 이층집	김경환	대정초등학교 4학년
우수상	제주 웃는 얼굴 아파트	윤연지	신광초등학교 3학년
	버섯집	고다미	화북초등학교 3학년
특 선	아름다운 도시	박유림	제주부설초등학교 3학년
	미래의 나의 집	김동석	김녕초등학교 3학년
	도시와 이어진 친환경 인공섬	좌명현	인화초등학교 3학년
	엉뚱한 마법사의 집	정세헌	삼양초등학교 3학년
입 선	전혀 다른 세계의 내 아지트	양수민	귀덕초등학교 3학년
	바다 위에 내가 살고 싶은 우리집	박수원	삼양초등학교 2학년
	초가집	양가연	귀덕초등학교 5학년
	나무 위에 우리집	이예건	삼양초등학교 1학년
	바다 위에 우리동네	이예지	삼양초등학교 3학년
	행복한 집	김도현	이도초등학교 1학년
	바닷속의 용궁	고창효	인화초등학교 5학년
	무지개 마을	홍지영	한라유치원
	숲속의 집	이승재	삼양초등학교 3학년
	바닷가 도시	고예지	백록초등학교 5학년
	내가 살고 싶은 수영장과 이층집	김은주	삼양초등학교 3학년
	아름다운 초가집	김가은	이도초등학교 3학년
	아이캔어린이집	김은우	아이캔어린이집
	답동마을	문장웅	보물섬학교 2학년
	미래도시	김재윤	교대부설초등학교 1학년
	2012제주건축문화축제	좌혜진	인화초등학교 1학년
	비행기여행집	김호진	삼성초등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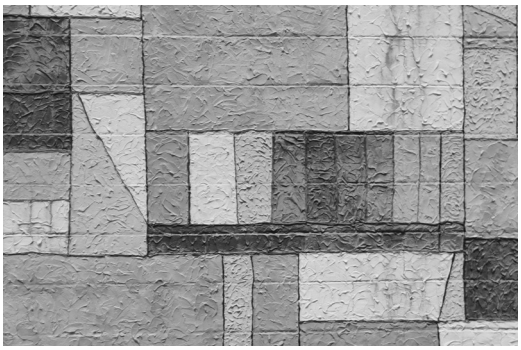
「아름다운 제주 도시건축 그리기대회」가 직접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었다면 제주건축문화대상작, 그리기대회 수상작, 건축사회 회원 작품의 제주국제공항 전시회는 공항이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주건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시방법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 제주건축문화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행사는 건축문화인상 시상이었다. 건축문화인상은 2011년 처음 마련된 시상제도로서 제주건축의 위상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분들에게 수여되는 뜻깊은 시상이다. 2012년 건축문화인상 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장을 지낸 고(故) 박정복 전(前)회장이다. 고인의 건축활동과 공적을 평가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건축 및 건축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현실에서 건축문화인상 뿐만 아니라 건축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건축인들의 다양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사진부문의 경우 일반부문 우수상은 '내 천장 속의 우주'(조진희), '미술관의 야경'(문석채), 학생부문 우수상은 '담'(김현모), '해를 바라다'(윤영주)가 수상하였다.

<그림 3> 사진부문 일반부문 우수상 (좌 : '내 천장 속의 우주', 우 : '미술관의 야경')

<그림 4> 사진부분 학생부문 우수상(좌 : '담', 우 : '해를 바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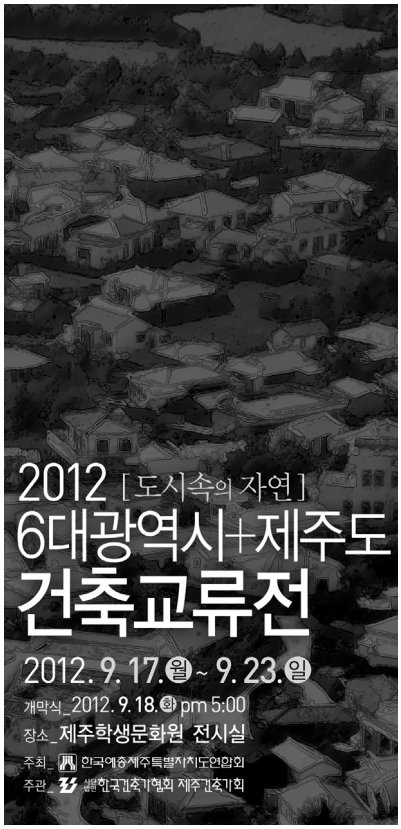


<표 3> 2012년 건축문화축제 사진부문 수상자 명단

시상내용	부 문	작 품 명	성 명
우수상	일반부문	내 천장 속의 우주	조진희
		미술관의 야경	문석채
	학생부문	담	김현모
		해를 바라다	윤영주
특 선	일반부문	IT JEJU	김동진
	학생부문	부요	김재현
입 선	일반부문	갈증	조예섭
		Corrosion Box	김종민
		물 위의 평화	이빛나
		돌담	백선희
	학생부문	할머니	강민주
		눈·빛	고동진
		철야	김민진
		등대	고승훈
		한줄기 빛	유승학

2. 6대광역시+제주도 건축교류전 및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의 회원전

<그림 5> 6대광역시+제주도건축교류전 포스터



<그림 6> 6대광역시+제주도건축교류전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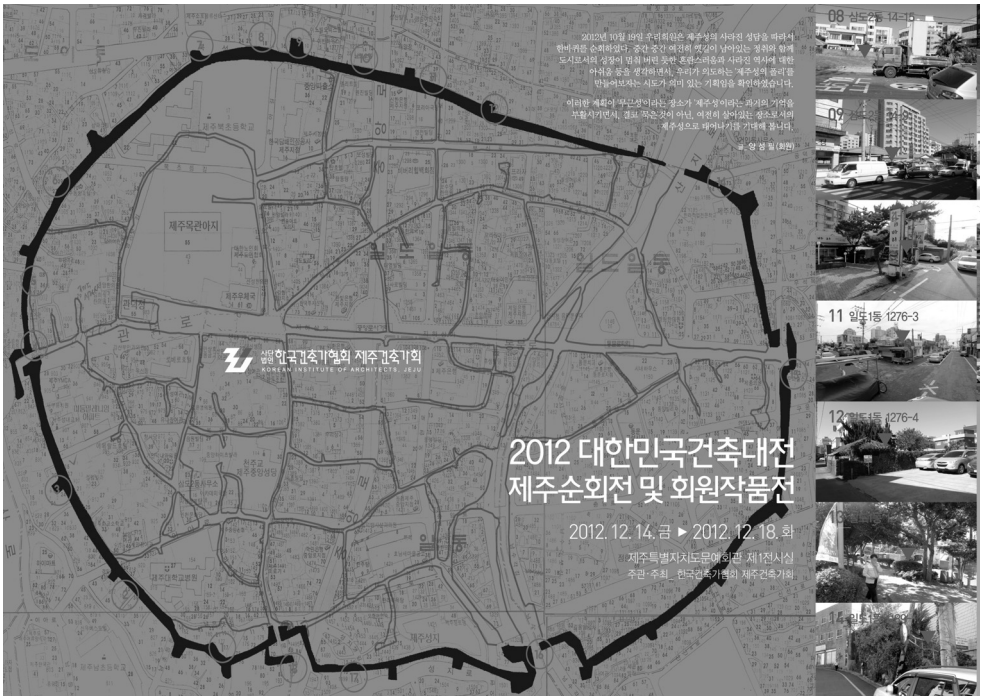
부산,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의 건축교류전은 건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교류 전시회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건축 문화를 비교 상호 보완함으로써 대중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와 6대 광역시를 순회하며 건축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각 지역의 새로운 건축문화환경과 활동 소개, 그리고 건축의 산업적 측면이 아닌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2년 「6대광역시+제주도 건축교류전」은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주최 아래 2012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70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편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2012 대한민국 건축대전 제주 순회전 및 회원 작품전」을 열었다. 회원전의 주제는 '제주 성(城)의 폴리'였다. 일제강점기 때 심하게 훼손되었던 제주읍성의 남아있는 옛길은 도시로서의 성장이 멈춰 버린듯한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사라진 역사에 대한 아쉬움과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의미 있는 옛길과 주변 장소에 폴리를 제안해 보자는 것이 기획의도였다.

<그림 7> '제주 성(城)의 폴리'를 주제로 한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원전



<그림 8>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원전(왼쪽) 및 강연회(오른쪽)

그리고 전시회에서는 윤희진(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의 “서천[봄의 마을] 만들기”의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림 9> 2012 대한민국건축대전 제주 순회전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이 외연적 확장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저하, 경제침체 등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시의 원도심은 제주목이 위치했던 중심지로서 제주읍성의 흔적과 관련유적 등 근현대사의 중요한 시설물이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공간이다.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원도심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이를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원도심을 생각하는 모임’이 구성되었고, 행정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 중심의 정비계획, 본래의 의도

와 달리 변질되어 버린 탐라문화광장 마스터플랜은 주민 참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관(官) 주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물리적 환경정비에 중심을 두었던 과거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 성(城)의 폴리'는 노후화된 역사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써 재생하려는 참신한 기획의도로 평가된다.

3.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건축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픔의 흔적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된 복구 활동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재해발생시 가장 필요한 것은 기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건축가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노력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건축전」이었다.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재해 극복과정에서 건축의 중요성과 대비방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전시회였다.

4. 제주도미술대전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에서 'RECYCLE-버려진 성곽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계획안을 제시한 한승지, 김은실(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이 건축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성곽의 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5. 2012년의 현상공모작품과 수상 준공건축물

1) 현상공모작품

2012년 현상공모는 그다지 많지 않은 가운데 제주지방기상청 신축청사, 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다목적체육관 공모가 실시되었다. 서귀포다목적체육관 현상공모에서는 가우건축사무소(대표 양건)와 토픽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대표 현군출·유선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은 건축사사무소 선건축(대표 선은수), 가작은 삼진건축사무소(대표 백형철)에서 제출한

작품이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현상공모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여 현상공모의 운영방법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심사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현상공모설계는 어떠한 형태와 공간으로 구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아이디어 공모설계이다. 현상공모설계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건축계획과 설계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과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건축문화 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등을 수상한 실무건축가와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건축가들을 추천받고 관계자 협의를 거쳐 심사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과업지시서의 문제이다. 현상설계의 제출도면은 계획도면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의 대부분은 당선작 실시설계권 부여로 명기되어 있다. 당선작에 대해 기본도면에 대한 작성과 검토 작업을 생략한 채 실시설계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기본설계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지역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와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이 제시되는가 하면 조감도와 모형을 동시에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작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과업지시서는 현상공모설계의 지침이며 결과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수상 준공건축물

제주지역의 준공건축물이 제주건축문화축제를 통해 우수작품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는 별도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음 제주본사가 한국건축문화대상 민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여객터미널이 한국리모델링협회 주관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대상(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신화역사공원 내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가 국토해양부 주최 VE경진대회에서 공공 발주청 부문 건축분야 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브랑섬홀아시아(Branksome Hall Asia)국제학교 건축물이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주최 대한건축학회·대한토목학회·매일경제)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Ⅲ. 2012년 제주건축계에 남겨진 과제

2012년 제주건축계의 화두는 카사 델 아구아의 철거논쟁이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세계 현대건축 흐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레고레타가 제주에 남긴 작은 작품이다. 카사 델 아구아(Casa del Agua)는 스페인어로 '물의 집'을 의미한다. 비즈니스맨이나 예술가들이 일상의 집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머물며 다시금 삶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으로 제주의 대지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에 동화된 레고레타 특유의 건축미를 뽐내고 있어 '휴식의 섬' 제주에 디자인적 영감을 불어넣는 건축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눈부신 태양만큼이나 하늘과 땅에 강렬히 내리쬐는 제주의 태양은 시시때때로 건축물을 오묘한 색감으로 변화시킨다. 물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물 위에 반사되는 빛을 부드럽게 그리고 넓게 건축물의 내외부를 향해 확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 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계와 공간은 시시각각으로 더해지는 색과 빛에 의해 그 깊이를 만들어낸다.

레고레타 건축의 극적인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카사 델 아구아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되었지만 정상적인 건축물로 건축되었다. 건축적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레고레타가 남긴 유작으로 한국에서는 유일하고 아시아지역에서도 몇 안 되는 작품으로서 가치도 있다.

<그림 10> 철거 이전의 카사 델 아구아 더 갤러리의 전경과 내부모습

<그림 11> 2012년 3월 6일 오전 철거되는 모습

그러나 건축공사 과정에 재정적인 문제로 주요건축물인 앵커호텔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모델하우스인 카사 델 아구아는 가설건축물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 이르러 철거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건축물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 논리에 앞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얻기 위한 과정이 생략된 채 철거된 것은 아닌지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교훈은 지난 1995년,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중업의 대표작인 제주대학교 구본관의 철거를 통해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간단히 축조하고 간단히 철거되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기후와 풍토, 땅의 조건, 사용자의 다양한 가치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건축적 형태와 공간으로 구축해 나가는 작업의 결과물로서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은 문화 장르의 하나로 인정된다.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논쟁을 통해 한국과 멕시코의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시사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국 건축가의 작품을 지키기 위한 주한 멕시코대사의 활동이나 멕시코 건축가협회의 호소에 비해 법적 논리만으로 철거를 고집한 제주도의 행정적 대응은 사뭇 달랐다. 문화환경으로서 건축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행정의 보다 진지한 대응능력이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Ⅳ. 나가며

전반적으로 볼 때 2012년 제주건축계의 활동은 예년에 비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세 단체에 의한 제주건축문화축제도 그렇고 제주미술대전을 비롯한 각 단체별 회원전 및 각종 강연회 등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한 활동에 비해 참여 계층과 인원, 출품작품수 등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제주건축계의 여전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인들의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유사한 행사의 중복과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상공모 운영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구성문제, 합리적이고 세밀한 과업지시서, 심사내용의 공개와 자료집의 발간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발주방식에 있어서도 젊은 건축가 육성을 위한 제한적 발주 등 우수한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발주방식의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2013

제주문예연감

국악

2012년 제주국악계의 현황과 진단

한진오 _ 풍물굿패 신나락 대표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국악이라고 하면 한국의 전통 '음악'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국악의 범주에는 종합예술의 양식적 면모를 지닌 굿은 물론 다양한 놀이와 무용까지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국악은 단지 음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장르복합형 예술과 더불어 생업민속이 어우러진 일놀이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근래에 이르러 퓨전,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양상을 볼 때 국악의 개념은 이제 단지 전통음악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제주의 국악계 또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오랫동안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과 민속의 보물창고라는 명성에 기대어 전통예술의 기능 전수와 재현 일변도의 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콘텐츠로의 변신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다른 예술 장르와 크로스오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의 국악은 전통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이 두 가지 과제는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전통의 보존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전통사회와는 사뭇 달라진 현대산업사회의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에만 기댈 때 고유의 미학적·양식적 원리를 송두리째 잃고 말 것이다. 결코 어느 한 쪽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국악은 법고창신이라는 오랜 경구를 영원한 숙제로 품고 있다. 이는 제주의 국악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명제다.

이와 더불어 제주의 국악계에 부여된 또 다른 과제는 지역성과 보편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섬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완결된 양식으로 자리 잡은 제주의 전통음악은 남방음악과 북방음악이 혼합된 특유의 양식으로 발전해왔다. 무가와 노동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악, 관현악을 동반한 선율악이

전무한 타악 중심의 무율음악은 제주의 자랑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전통사회에서 근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제주의 문화 환경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고, 다른 지방의 전통음악 또한 상당부분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의 성악은 특유의 선법(旋法)을 위협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타악 중심의 기악 또한 선율악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양상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독자적인 지역성으로 완결되는 활동 중심으로 제주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음악을 수용하며 보편성을 지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서 살펴본 보존과 계승의 문제와도 잇닿는 것으로 어느 한쪽만을 고집할 수 없는 과제로 보인다.

2012년 제주 국악계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언급한 과제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보존과 계승', '지역성과 보편성'의 문제가 최근에야 새삼스레 불거져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제주 국악계의 예술적 저변과 역량이 배가되면서 더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은 확연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 제주 국악계의 장르 및 단체현황과 공연현황을 중심으로 서두의 논제를 다루고자 한다.

Ⅱ. 제주도 국악단체 및 공연 현황

1. 국악단체 현황

현재 제주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단체는 40~5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적인 등록단체 외에도 임의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도 있어서 도내 국악단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글에서는 공식적인 등록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주도내의 국악단체를 갈래별로 볼 때 제주민요를 중심으로 하는 성악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제주도 전통음악의 저변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의 전통음악은 민요와 무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풍부한 문화유산의 역할을 해왔다. 무가의 경우에는 종교음악에 가까운 특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무속인들이 주로 활약하기 때문에 예술적 지향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때

문에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민요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단체별 현황을 정리하는 데에는 국악의 범주 내적 분류가 불가피하다. 국악의 갈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분류방법으로 크게는 체계적 방법(Systematic Method)과 역사적 방법(Historical Method)이 있다.

이 글에서는 연주형태, 장르형식, 작품성격, 미학적 관점 등의 분류 기준으로 갈래를 나누는 체계적 방법에 기초해 크게 성악, 기악, 악가무로 분야를 나누기로 한다. 성악은 민요, 판소리, 시조로 세분하고, 기악의 경우 타악, 관현악으로 세분하고, 악가무의 경우에는 굿과 연희로 나누기로 한다. 이 밖에 국악교육단체와 장르복합형 단체를 하나로 묶어 정리할 것이다.

이 분류기준에 맞춰 제주도내의 국악단체들을 범주화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기준은 단체의 성격이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제주도내 국악단체들 대부분이 어느 한 갈래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갈래를 레퍼토리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표면상 장르복합형으로 보이는 단체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중심장르를 기준으로 범주화하겠다.

<표 1> 2012 도내 국악단체 현황

구분		단체	계
성악	민요	돌하르방예술단, 민요패소리왓, 박경선소리마당, 백록민속예술단, 사라예술단, 서귀포전통민속보존예술단,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서우제예술단, 선돌예술단, 송죽예술단, 어린이민요단소리나라, 어울림예술단, 올레민속예술단, 용머리예술단, 이어도민속예술단, 정의골소리패, 제주농요보존회, 제주소리보존회, 제주탐라예술단, 탐라민속예술원, 탐라전통민요보존회, 한누리예술원, 한라예술단, 한얼메아리예술원, 해오름국악예술원	31
	판소리	가향판소리마당, 제주판소리보존회, 로천예악진흥협회	
	시조	대한시조협회제주시지회, 대한시조협회서귀포시지회, 대한시조협회대정지회,	
기악	관현악	국악연주단제주락, 섬소리회대금동호인회, 예성국악원, 제주국악관현악단, 제주국악단, 제주택견전통문화예술원, 죽향국악원, 해금올레	12
	타악	국악연희단하나아트, 노리안마로, 제주청소년풍물단, 풍물굿패 신나락	
굿		제주큰굿보존회,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2
연희		용화문화예술회, 제주두루나눔	2
교육/복합		제주초등국악교육연구회하날오름, 한국국악협회서귀포지부,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제주지부	3

<표 1>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제주도내 국악단체의 장르 분포현황이 성악 중심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전체 50개 단체 중 30개에 이르는 단체가 성악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민요 단체가 24개로 가장 많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기반이 탄탄한 장르 중심으로 국악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2012 도내 국악단체 장르 분포 현황

구분	민요	판소리	시조	관현악	타악	굿	연희	교육/복합	계
단체수	25	3	3	8	4	2	2	3	50
비율(%)	50	6	6	16	8	4	4	6	100

<표 2>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대분류의 성악, 기악, 악가무의 기준으로 환산하면 성악 62%, 기악 24%, 교육과 복합을 포함한 악가무는 14%로 성악단체가 도내 국악단체의 과반수를 웃돈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장르 편중현상은 어떻게 해석해도 기형적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에 이르러 기악 분야에서 활발한 단체결성과 공연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도 국악계는 전통적인 기반에 의존하는 성악 일변도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악교육 인프라의 태부족에 있다 하겠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예술 중등·대학 교육 등의 공교육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다 국공립국악원 또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통문화의 보물창고라는 명성이 무색한 실정이다. 결국 성악 일변도의 국악 활동은 해당단체와 예술인들의 개별적 기량문제를 떠나서 교육 인프라의 부족이 낳은 부정적인 결과로 보인다.

2. 공연 현황

제주도내 국악단체의 공연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해당 국악단체의 공연이 자체사업, 지원사업, 초청공연 중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계측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악단체나 국악예술인과의 개별적인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질적 분석이 병행되

어야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몇몇 국악단체와 개인 면담 결과를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현장의 국악인들에 따르면 제주 국악계는 여타 장르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공연사업을 준비할 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다고 한다. 국공립단체의 기금에 의존하는 지원사업 유형이 가장 많고,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출연해 선보이는 초청공연 유형이 그 뒤를 잇는다고 한다. 자체적 상설공연을 통해 예술적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음반 발매, 도서 출판 등의 수익사업을 도모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조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실정 때문에 도내 국악단체들의 지원사업 의존도는 매우 높은 실정이며 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초청공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개에 이르는 성악 장르의 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연료를 낮추며 섭외활동에 나서고 있어 공연의 질은 낮아지고 수익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장르 편중 현상과 열악한 재정현실은 제주도 국악 발전의 걸림돌임에 틀림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2012년 제주 국악계의 전체 공연 현황과 월별 공연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측이 가능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12년 제주도내 국악공연의 현황과 장르별 공연현황, 공연내용을 진단하기로 한다.

1) 2012년 국악분야 공연 현황

2012년 제주도내 국악계의 공연과 관련한 행사는 공연사업, 전수사업, 복합사업, 각종 축제, 경연대회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2012 국악분야 공연 현황

구분	공연사업	전수사업	복합사업	축제	경연대회	계
도내단체	57	2	2	2	3	66
도외단체	7	·	·	·	·	7
타장르단체	4	·	·	·	·	4
비율(%)	88.4	2.6	2.6	2.6	3.8	100

<표 3>에서 도내 단체 공연사업은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악단체의 도내·외 공연을 갈래 구분 없이 집계한 수치다. 전수사업은 국악단체의 예술적 기량

을 배가시키는 역량강화사업으로서 풍물굿패 신나락의 「전통문화전수사업-예인명인」과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제주지부의 「유아국악작품 하계연수」가 진행되었다. 복합사업으로는 국악교육, 공연, 체험활동을 망라하는 사업으로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의 「2012 생생문화재사업 섬을 감아 도는 신명의 바람맞이」와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제주지부의 「2012 우리마을 이야기와 함께하는 소리극 여행」이 추진되었다.

도외 단체의 내도 공연은 국악은 물론 국악과 연계한 퓨전 공연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상북도립국악단의 신나는 국악한마당」, 「김덕수와 함께하는 행복한 사물놀이」, 「김덕수의 사물놀이한마당」, 「명창 안숙선 제주공연」, 「여성민요그룹 아리수 공연」, 「퓨전마당극 최진사댁 셋째 딸 신랑찾기」, 「한국전통뮤지컬 미소」 등이다. 축제의 경우에는 국악과 전통예술을 중심 테마로 삼은 것만 추려냈는데 「51회 탐라문화제」와 「2012 탐라국입춘굿놀이」가 이에 해당된다.

국악과 관련한 경연대회로는 한국청소년연맹제주도지회가 주관한 「2012 대통령배 전통문화경연대회 제주도 예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문화원이 함께 마련한 「전도학생 풍물놀이 경연대회」,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가 주관한 「전국민요경창대회」가 있었다. 도내 타 장르 단체의 연계공연에는 극단 가람의 「국악뮤지컬 팥죽할매와 바보 호랑이」, 놀이패한라산의 「제주굿놀이레퍼토리창작공연」, 빌레앙상블의 「퓨전국악콘서트 바람의 섬」, 「제주택견전통문화예술원 정기연주회」가 함께 했다.

<표 3>에서 도내·외 단체를 망라한 공연사업은 총 66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공연장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공연장소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공연장 공연	37	56
장소성 공연	29	44
계	66	100

<표 4>의 집계 중 공연장 공연 비중이 과거와 달리 높아진 이유로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참가하는 국악단체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기악단체의 공연이 늘어나면서 갈래의 특성상 공연장 공연을 선호한 결과를 들 수 있다.

제주도내 국악단체의 2012년 월별 공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월별 공연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타	계
건수	2	2	1	3	5	9	11	4	10	8	3	7	11	76
비율(%)	3	3	1.2	4	6.4	12	14	5	13	10	4	9	15.3	100

<표 5>를 살펴보면 제주도내 국악단체들의 공연활동이 주로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문화와 관련한 행사와 공연예술을 동반한 각종 축제가 그 시기에 밀집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편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건수의 경우는 연중 이어졌던 공연활동으로 대부분이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파악된다.

<표 3>과 견주어볼 때 합계가 다른 이유는 사업 건수에 따른 실제 공연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가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표 3>과 <표 5>를 토대로 갈래별 공연현황을 성악, 기악, 굿, 연희, 교육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갈래별 공연 현황

구분	성악	기악	굿	연희	교육	복합·기타	계
건수	21	31	2	1	2	20	77
비율(%)	27.3	40.2	2.6	1.3	2.6	26	100

<표 6> 중 복합·기타는 두 가지 이상의 갈래가 결합한 공연 형태와 축제 및 경연대회, 도외 단체의 공연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표 6>을 <표 1>의 도내 국악단체 현황에 대입해 살펴보기로 한다. 단, 도외단체, 축제, 경연대회 등은 갈래별 단체와 무관하므로 제외하였다.

<표 7> 갈래별 단체와 공연 대비

구분	성악	기악	굿	연희	교육	복합
단체 수	30	12	2	3	3	3
공연 건수	21	31	2	1	2	3

<표 7>을 토대로 살펴보면 도내 국악계의 공연과 관련한 전반적 동향이 쉽게 파악된다. 물론 2012년에 한정되는 결론이겠지만 이는 제주도 국악계가 처한 최근의 현실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요를 중심으로 하는 성악단체가 60%를 상회하고 있지만 공연 활동으로 보자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악단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굿 분야다.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와 제주큰굿보존회 등 두 개의 단체에 불과한데다 굿이라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장르 제한성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각층에서 무속문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인 탓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에서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 공연과 교육이 결합한 복합사업인 '2012 생생문화재사업 섬을 감아 도는 신명의 바람맞이'를 시도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일 것이다.

이처럼 갈래별 공연의 불균등 현상은 각종 지원사업의 현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공연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내 국악계의 지원사업 의존도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각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12년 제주 국악계의 공연현황을 살펴보자.

(1) 제주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표 8> 제주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내역

단체명	사업명	갈래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소나무숲길 8i 콘서트	기악
민요패 소리왓	가족소리판굿 운명을 아는 아이, 오늘이	성악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다시 보는 제주 민속	성악
신은숙	네 번째 韶然 신은숙 대금 연주회	기악
제주두루나눔	2012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축제 한국탈춤과 풍물의 향연	연희
풍물굿패 신나락	2012전통문화예술전수사업 藝人 名人	기악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제7회 제주전통국악한마당	복합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시지부	제13회 탐라국악제	복합

<표 8>을 살펴보면 기악이 3건, 성악 2건, 연희 1건, 복합 2건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입춘굿탈놀이를 레퍼토리로 삼은 제주두루나눔의 우즈베키스탄 현지공연과 개인 공연으로는 신은숙의 대금 연주회를 들 수 있다.

(2)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은 각종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단체, 지역 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실행하는 현장지향성 사업으로 개별 국악단체들이 기본 레퍼토리로 공연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9>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현황

단체명	사업명	갈래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사물놀이야~ 놀자!	기악
노리안마로	신명을 전하는 사랑방 '유랑광대'	기악
민요패 소리왓	가족소리판굿 '할망, 할망, 설문대할망'	성악
사라예술단	관광객과 함께 하는 제주바당 어멍소리	성악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성악
올레민속예술단	올렛길 돌담갑써!	성악
용머리예술단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성악
제주탐라예술단	2012 제주탐라예술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성악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섬 국악의 향기로 물들다	복합
한누리예술단	국악과 민요한마당 우리 다함께	성악
풍물굿패 신나락	연물굿 신불휘	기악

<표 9>에 정리된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에는 전체 12건 중 성악 분야의 단체의 경우가 7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복합 분야의 두 가지 사업 또한 국악협회에 소속된 성악 단체들이 대거 참가한 행사임을 볼 때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은 성악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단체와 각종 공연시설 간의 협력을 통해 공연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꾀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는 3개의 국악단체가 참가하였다.

<표 1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현황

단체명	사업명	갈래
노리안마로	After 파라다이스-이어도	기악
민요패 소리왓	소리로 일구는 신명	성악
풍물굿패 신나락	제주의 뮤즈를 만나다-연물굿 초공풀이	기악

노리안마로는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4회, 민요패소리왓 제주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6회, 풍물굿패 신나락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4회 공연하였다.

(4) 기타 사업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지원사업 외에 독자적인 공연을 펼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은 공연도 드물게 이어졌다.

<표 11> 기타 사업

단체명	사업명	갈래
노리안마로	신나는 예술여행 육지 유랑길	기악
이광훈	이생강류 이광훈 대금 연주회	기악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2012 생생문화재사업 섬을 감아 도는 신명의 바람맞이	굿

노리안마로의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나눔사업의 복권기금을 받아 진행한 것이고, 이광훈의 대금 연주회는 자체 공연으로 진행한 것이다.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의 경우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실행한 시범사업이었다.

이 밖에 교육 및 발간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음반 발매와 서적 출판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제주지부의 '2012 우리마을 이야기와 함께하는 소리극 여행'이 진행되었다.

3) 공연 경향에 대한 진단

2012년 제주도내 국악계의 공연 활동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 8>에서 <표 11>에 이르는 각종 사업과 <표 1>의 도내 국악단체 현황을 대입할 필요가 있다.

<표 12> 사업 유형에 따른 갈래별 분포 현황

구분	성악	기악	굿	연희	교육	복합
제주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2	3	·	1	·	2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7	3	·	·	·	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2	·	·	·	·
기타	·	2	2	·	1	·

<표 12>를 살펴보면 기악분야와 성악분야의 공연활동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굿, 연희, 교육 분야는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2>의 내용을 토대로 각 갈래의 현실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성악분야의 경우 10건에 이르는 사업유형 중에서 7건이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에 몰려 있다. <표 1>에 집계된 성악단체가 31개인데 사업 건수가 10건에 머무르고 대다수가 한 가지 사업유형에 몰려 있음은 심각한 문제다.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나머지 두 지원사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작은 유형이다. 공연형태 또한 장소형 공연이 대부분으로 개별 국악단체들은 일상적인 텍스트로 삼는 레퍼토리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적으로 제주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작품제작에 있어서 인력, 자금, 연행능력, 기획력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체의 종합적 예술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러야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 현재 제주도내에서 활동하는 성악단체들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군소단체의 난립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악분야는 단체 수가 12개인데 비해 사업 건수는 10건으로 성악단체와 동일한 상황이다. 특히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연을 수행한 점과 도외 순회공연을 이루어낸 점은 괄목할 성과다. 다만 대다수의 공연이 전통적인 텍스트의

재현에 머물고 있어 창작콘텐츠의 개발이 아쉽다.

굿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 속에 전통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한 섹션으로 많은 공연 활동을 해왔는데, 2012년에 들어서는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가 독자적으로 공연과 체험, 교육을 동반한 사업을 실행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국악 일반과 비교할 때 앞으로의 과제가 어떤 갈래보다 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연희 분야는 단체의 수가 적은 만큼 사업 또한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희 분야를 다른 분야에 견주어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악이 지니는 양식적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국악은 악가무 일체라는 종합예술적 성격을 지닌다. 그 때문에 성악을 하건 기악을 하건 그것을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공연할 때 거의 대부분이 연희적 형태를 보인다. 굳이 연희라는 명목을 달지 않아도 자연히 그 같은 면모를 보이므로 연희 분야가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 잡지 않은(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분야 전문단체로는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제주지부가 유일한 단체로서 '2012 우리 마을 이야기와 함께하는 소리극 여행'이라는, 교육과 공연을 결합한 사업을 실행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국악강사연수교육을 실시, 제주도 국악교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문화예술교육이 새롭게 조명되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의 국악계는 이 분야에 제대로 대응하는 인프라가 태부족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다.

복합 분야의 단체로는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와 서귀포시지부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양한 국악단체들을 아우르는 상급단체로 각종 경연대회와 종합 공연물을 기획하며 가입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Ⅳ. 나오며

전반적으로 2012년 제주의 국악계는 기존의 성악 일변도의 활동에서 벗어나 기악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갈래별 국악단체의 수는 아직까지 성악이 압도적이지만 공연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기악 분야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가치선택의 잣대를 무조건 들이댈 수는 없다. 성악과 기악의 우열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 국악계의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할 때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문화기

반을 감안하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주 국악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문화 속의 음악 장르는 주로 노동요를 기반으로 하는 민요와 무가와 무악을 기반으로 삼는 굿이다. 이 때문에 제주 국악계는 민요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성악 중심의 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미디어와 교통의 발달로 도서라는 지리적 제한성이 무색해지고 자유로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지방의 국악예술과의 다양한 만남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전통적으로 선율악기가 부재한 제주에 선율음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로 인해 많은 국악인들이 기존의 지역적인 텍스트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텍스트를 수용하게 되었다.

기악 분야의 성장은 다른 갈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율악기를 동반한 성악 중심에서 유율악기를 도입하는 시도가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양음악과의 크로스오버도 심심찮게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 또 다른 영역으로 변화를 꾀하는 제주 국악계는 일면적으로는 긍정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텍스트에 담긴 양식적 원리와 음악적 문법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년 제주 국악계의 동향을 바로미터 삼아 이전의 공과를 따지거나 섣부르게 장래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는 움직임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변화의 추이를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2012년 제주의 국악은 '장단에서 가락으로' 이행하는 물살을 타고 선율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2013

제주문예연감

양악

2012, 제주 음악계 현황

윤정택 _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장

Ⅰ. 들어가며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거쳐 문화와 예술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문화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소비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문화를 즐기는 것보다 한 곳에서 다양한 문화 즐기기를 선호함에 따라 최근 문화공간의 기능적 역할이 증대되고, 잠재적 소비자를 문화소비자로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도 21세기 국가전략사업에 감성형 문화콘텐츠 기술을 포함시키고 2015년까지 세계 10대 문화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바야흐로 문화가 국가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이제는 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문화공간이 현대인들의 필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인들은 생존이 아니라 여가를 위하여 일을 한다. 이제는 삶의 중심인 일터에서 시선을 옮겨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연장 등과 같은 주요 문화공간을 찾는 문화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공간의 다변화와 함께 문화공간의 콘텐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술관이라 한다면 기존의 '그림만 보는 곳'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관람과 놀이가 더해지는 등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시대가 왔다. 과거의 엄숙함에서 탈피한 교육의 장소이자 관객들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문화공간이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공연장 또한 요즘은 체험 현장이라 하여 눈으로만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으로 느끼고 배우며 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국립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음악회를 기획한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 글은 2012년 한 해 동안 제주 음악계 현황을 찾아보고, 관련단체들이 제주 음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제공한 2012년 제주도내 공연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Ⅱ. 활동 현황

제주음악의 얼굴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 그리고 서귀포관악합주단과 서귀포합창단의 꾸준한 활동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은 수많은 내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2012년은 아마추어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난 시기이다. 사설단체 공연이 53회, 청소년단체의 공연이 11회 펼쳐졌으며, 기관단체 공연이 46회, 학회 및 협회 공연이 8회, 독주 13회, 도내 소규모 문화공간에서 21회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단체별 연주활동 현황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2012년 1월 13일 '2012 신년음악회'가 제주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음악회는 제주교향악단과 서귀포합창단, 제주합창단 그리고 이원국발레단이 함께 하였다. 연주곡으로는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디아」와 모차르트 「대관미사곡」이 연주되었는데 소프라노 한명서, 메조소프라노 김소영, 테너 강창오, 베이스 김훈석이 독창을 맡았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도립예술단은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 등 총 29회의 공연을 펼쳤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2012년 제주교향악단은 이동호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제97회부터 제102회까지의 정기연주회와 신춘음악회,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등 6회의 특별연주회를 개

최하였다. 특별히 제주의 젊은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주대문화광장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미래의 클래식 마니아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교향악단은 단순히 연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호흡도 중요한데, 이는 지원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연기획, 관객 및 회원관리, 홍보활동 전개, 재원조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교향악단의 운영 활성화와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단순히 예술가들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예술가들과 공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기획 아이디어 및 경영 마인드를 갖춘 인력이 반드시 조직 내부에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교향악단은 단계적으로 예술행정 전문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국은 결정권이 없는 채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과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 훌륭한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2)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은 신임 조지웅 지휘자를 중심으로 하여 제77회부터 제79회까지의 정기연주회와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조지웅 지휘자는 하늘다래음악회를 기획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주합창단원 개개인의 연주 기량 향상과 무대 독주 기회 확대와 새로운 무대 변화를 추구하였다. 음악회를 통하여 단원들의 음악적 취향을 새롭게 변신시켰으며, 시리즈 형식으로 기획하여 4회까지 진행되었다. 이 공연은 기존의 공연 형식에서 탈피하여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새로운 진행방식을 도입해 관객들에게 새로움과 함께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갔다.

3)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가족사랑음악회 1회와 제41회, 제42회 정기연주회를 포함해서 한 해 동안 단 3회 자체기획 연주에 그쳤다. 서귀포합창단도 제주대문화광장 초청연주회 1회와 제45회, 제46회 정기연주회까지 총 3회 공연에 그쳤다.

제주시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상임지휘자 체제이며, 예술단에 사무장·운영관리담당·행정·기획 및 홍보담당 사무단원이 있는 반면, 서귀포시는 비상임지휘자

체제에 관악단 단무장과 합창단 단무장이 기획·홍보·운영관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예술단도 제주예술단처럼 균형 있는 조직 운영과 예술경영 전문가를 통한 좀 더 많은 기획과 공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공연 현황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01.13	2012 신년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예술단
02.16	제9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2.23	하늘다래 첫 번째 이야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2.28	2012년 신춘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3.07	제주대문화광장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4.05	하늘다래 음악회 두 번째 이야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4.12	제9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5.09	가족사랑 음악회	김정문화회관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05.17	제45회 정기연주회	김정문화회관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05.24	2012 청소년 협주곡의 밤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5.31	제7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6.13	제주대문화광장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06.14	제9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6.21	2012 해설이 있는 콘서트 '카르멘'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7.05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기원 특별공연 '그린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7.12	하늘다래 세 번째 이야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8.30	제100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9.27	제7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합창단
10.13	2012 웃뜨르 문화축제 기념 음악회	낙천리 아홉굿마을의자공원	제주도립제주예술단
10.24	제101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0.30	하늘다래음악회 네 번째 이야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11.04	제41회 정기연주회	김정문화회관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11.09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1.19	2012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Ⅱ	한림고등학교 체육관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1.29	제46회 정기연주회	김정문화회관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12.04	제7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합창단
12.06	제10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2.14	제42회 정기연주회 '송년의 밤'	김정문화회관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12.20	2012 송년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예술단

2. 청소년단체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후부터 청소년 음악단체의 활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무상 예술교육시스템으로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센터, 음악 워크숍 등 25만 명 이상 청소년들의 다양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엘 시스테마'는 음악의 힘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2012년 제주에서는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제37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총 14회의 도내 청소년 연주단체들의 공연이 있었다.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1989년 청소년에 대한 음악교육과 공연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창단되었다. 2003년 대한민국 최초 청소년오케스트라 법인 인가를 받았고, 2005년 청소년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받았다. 정기연습과 더불어 시창·청음·음악감상 등의 단원 교육프로그램 및 고전음악감상회·색소폰 강습·대중음악교실 등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전통음악교육에도 앞장서 제주청소년풍물단을 창단하였다.

2012년에 주목할 부분은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회이다.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세계적인 음악가 금난새 지휘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를 농어촌희망재단의 모범운영단체로 육성하기로 하고 연습실 및 악기보관실 등 공공시설물 제공을 지원하였다. 이어 2011년 2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식을 개최하였으며, 2012년 2월 15일에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음악회를 이정석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가졌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서귀포시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감성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귀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청소년단체 공연 현황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02.02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2.15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음악회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03.11	제주청소년플루트 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04.27	소리어울림 청소년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리어울림청소년 오케스트라
05.29	2012 특별연주회 '아름다운 동행'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6.08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08.07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9.08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11.03	제주청소년관악단 방문음악회	혼인지 야외무대	제주청소년관악단
11.05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2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1.17	제주청소년관악단 방문음악회	성요셉요양원	제주청소년관악단
11.18	제5회 주니어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니어 화음 플루트 오케스트라
12.13	제주청소년관악단 제18회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청소년관악단
12.26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제22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3. 도내 각급 학교

학교의 음악교육은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역량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 및 애호심 함양과 음악의 가치 인식 마련에 목적을 둔다. 이렇듯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는 기간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음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음악의 생활화란 교육의 장이나 가정, 사회를 막론하여 유익하고 건전한 음악적 생활 습관을 의미한다.

2012년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서 및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평가되는 학교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150개로 대폭 확대 지원하였다. 그 중

제주에는 서귀포지역의 대정초등학교와 사계초등학교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제주시지역 외도초등학교와 재릉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4개의 학교오케스트라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35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11월 16일 삼성여자고등학교가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삼성여자고등학교는 도내 사립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관악단이다. 지도교사 양경식은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비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표 3> 도내 학교 공연 현황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01.07	비데스 주니어 다문화 콘서트 '이음'	서귀포성당	신성여고 VIDES Jr
05.15	제26회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05.25	제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그랜드 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7.11	2012 조은퓨전앙상블과 함께하는 추억의 대중음악	추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추자중학교
08.29	제주대학교오케스트라 제28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9.24	개교기념 오현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현고등학교
10.19	제주대 심포니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심포니오케스트라
10.25	우미마루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위미중학교 대강당	위미중학교
10.30	제18회 정기연주회 '한라음악인의 밤'	한라아트홀	한라대학교 음악과
11.16	교악대 창단 연주회	서귀포삼성여자고등 학교 목련관	서귀포삼성여자 고등학교
11.16	제5회 정기연주회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고등학교
12.07	성산고등학교 제13회 정기연주회	성산국민체육센터	성산고등학교

4. 학회 및 협회

제주도가 도민·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곳곳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거리 가운데 연동 바오젠거리에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바오젠거리’는 2011년 7월 제주도가 중국 회사 바오젠의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를 기념하여 회사명을 따서 명명하고 상징 조형물과 공연 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한 곳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중국의 문화도, 우리의 문화도 없는 거리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바오젠거리가 문화의 거리로서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기획사업으로 「37도 문화세상 페스티벌」을 총 5회 공연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년 제주도내의 학회 및 협회의 공연 현황을 보면 제주피아노학회에서 3회 공연, 제주음악학회에서 평화음악회 1회 개최, 제주도성악협회에서 1회,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주최 15회의 공연이 있었다. 이를 볼 때 제주도내 학회 및 일부 협회의 공연이 활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도내의 학회와 협회의 좀 더 다양하고 지속적인 기획공연이 요구된다.

<표 4> 학회 및 협회 공연 현황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03.27	제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피아노 동문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05.11	한마음 음악회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5.12	2012 제주공항 작은 음악회	제주국제공항 3층 중앙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5.15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해설이 있는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05.19	한마음 음악회	주사랑요양원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6.08	통기타 가수 김영헌 두번째 앨범 쇼케이스	제주영화문화예술 센터	대한가수협회 제주지회
07.21	37도 문화세상 페스티벌	바오젠거리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7.28	제21회 제주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8.08	제26회 제주청소년음악회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8.14	평화음악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음악학회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08.25	2012 제주대구교류음악회	탑동해변공연장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9.08	37도 문화세상 페스티벌	바오젠거리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9.11	제23회 탐라합창제(학생부)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9.12	제23회 탐라합창제(일반부)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9.22	37도 문화세상 페스티벌	바오젠거리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9.22	2012 제주자청비데이 프린지페스티벌향연 '산지천의 가을'	제주시 산지천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10.13	37도 문화세상 페스티벌	바오젠거리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10.20	2012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가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성악협회
10.27	37도 문화세상 페스티벌	바오젠거리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11.08	서영화 박순방 피아노 듀오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12.14	2012 제주음악제 '제25회 신인 음악회 & 송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12.28	제주음악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및 연주회	라마다플라자호텔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5. 민간단체

제주를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기 위해서는 민간예술단체들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제주도내 사설단체들의 크고 작은 공연이 53회 있었다. 그 중 6개 사설단체의 창단연주가 있었으며, 23개 기존단체들의 정기연주회와 기획 연주 및 방문연주회 24회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제주음악계의 움직임은 한층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라윈드앙상블은 한 해 동안 총 6회 공연을 통해 시민밴드로서 명목을 다하고 있다. 한라윈드앙상블은 1993년 지휘자 김승택을 중심으로 관악 동호인들이 모여 음악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해마다 정기연주회와 팝스콘서트, 프롬나드콘서트, 국

내외 단체교류연주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시민밴드이다.

우리나라는 국공립예술단체에 비하여 민간예술단체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민간예술단체들은 대부분 자산이 크게 부족하여 지속적인 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 기획 인력 또한 부족하여 기획방향 설정, 공연제작, 홍보, 관객개발, 공연진행 등 공연 전반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연을 장기적으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문화예술 관련기관에서 장기적인 사회문화예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5> 민간단체 공연 현황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01.13	제주빅밴드 색소폰 사랑나눔회 제2회 정기연주회	더호텔 연회장	제주빅밴드 색소폰사랑나눔회
02.25	태고가릉빈가합창단 제6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02.25	찾아가는 오카리나연주회	삼성혈 숭보당	제주오카리나협회
03.10	제주윈드오케스트라 Jack Stamp 작품세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윈드오케스트라
03.17	한라윈드앙상블 제5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03.31	제주색소폰앙상블 제3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색소폰앙상블
04.21	제3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한마당'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밀레색소폰앙상블
04.22	문화예술봉사단체 '제주풍경' 창단 콘서트	한라아트홀 소극장	제주풍경
04.24	제주아르페지오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아르페지오
04.30	제5회 제주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장로합창단
05.26	신곡 발표 겸한 노래 봉사	효사랑·혜주원	음악사랑 온새미
05.26	진 스트링스 앙상블 창단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진 스트링스 앙상블
06.07	제주앙상블 준 제1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앙상블 준
06.14	입원환자를 위한 음악공연	제주의료원	제주시 은빛나래실버밴드
06.30	제주국악관현악단 2012 정기연주회	한라아트홀 대극장	제주국악관현악단
07.06	쉽게 배우는 실내악 여행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준
07.19	제주시청합창단 창단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청
08.04	제주어 시와 노래 랄랄라	삼양검은모래해변	음악사랑 온새미
09.02	프로젝트 'SOLOISTS'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THE 1ST : Trios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09.10	제주영락교회 임마누엘합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가을 향기 은혜 향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영락교회 임마누엘중창단
09.14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모던아츠
09.15	제17회 추억의 팝스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09.15	뉴마트리오 자선 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뉴마트리오
09.26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합창단
10.06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회관 대극장	제주나눔오케스트라
10.06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10.13	소극장 오페라단 S 창단 연주회 '사랑의 묘약'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소극장 오페라단 S
10.20	노이즈 일렉트로닉 밴드 '10' 7주년 공연	블루힐	노이즈 일렉트로닉 밴드 '10'
10.24	섬마루 색소폰 앙상블 창단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섬마루 색소폰 앙상블
10.25	제5회 라루체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라루체 앙상블
10.25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제주의료원	제주예울림난타동아리
10.26	제주앙상블 준과 함께 떠나는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앙상블 준
10.27	제주플루트 카론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플루트 카론앙상블
11.10	영화 속 음악회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한라윈드앙상블
11.11	제주민요를 품은 창작곡 공연	제주아트센터	제주윈드오케스트라
11.17	제주신포니에타 제11회 정기연주회 '사랑에 빠지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신포니에타
11.17	영화 속 음악회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한라윈드앙상블
11.18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클라리넷앙상블
11.20	뮤지컬 '수상한 이어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모던아츠
11.24	영화 속 음악회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한라윈드앙상블
11.28	제8회 돌체우먼 코러스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돌체우먼 코러스
11.28	서귀포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오케스트라
12.08	제주국악관현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국악관현악단
12.09	제1회 제주 오카리나경연대회 수상자들의 연주회	프시케월드 본관	제주오카리나협회
12.10	오페라 '아말과 밤의 방문객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모던아츠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단체
12.13	사라여성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라여성합창단
12.15	한라윈드앙상블 제53회 정기연주회 '산타클로스는 썰매를 타고'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12.20	제6회 아마빌레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마빌레앙상블
12.21	제주브라스앙상블 정기연주회 '송년의 밤'	제주대 교육대 미래창조관 대강당	제주브라스앙상블
12.22	2012 어려운 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벤처마루광장	음악사랑 온새미
12.22	찾아가는 송년음악회	제주원광요양원	제주시청직장합창단
12.26	제주타악기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제주한라아트홀	제주타악기앙상블
12.27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제20주년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불교여성합창단

6. 기관·단체

2012년 제주도내 기관·단체에서 기획한 공연은 총 46회인데, 그 중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2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5회, 국립제주박물관 5회, 도립미술관 2회의 기획공연이 있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음악회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시 및 공연분야의 전반적인 소비 규모의 증가에 따라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림만 보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다양한 체험과 놀이, 그리고 교육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박물관협회는 21세기 박물관의 새로운 특징을 몇 가지 전망하였다. 첫째는 유물의 보존 중심에서 활용과의 조화로운 전환, 둘째는 소수의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일반 대중인 이용자 중심으로의 변화, 셋째는 조직구조의 현대화로 업무의 분화와 전문화에 의한 인력간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현대의 미술관과 박물관은 교육의 장소이자 관객들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문화공간이다. 이는 음악과 미술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음악애호가들과 미술애호가들 모두에게 음악과 미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술인과 음악인, 그리고 행정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6> 기관·단체 주최 및 주관 현황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주최 및 주관
01.27	2012 KBS제주 시청자 대음악회 I 드라마콘서트 '천변살롱'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2.09	제주CBS 창립 11주년 기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 CBS
02.11	금난새와 함께하는 불턱 음악회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02.14	몽당연필 소풍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몽당연필전국투어콘서트기획단·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03.10	제3회 이정석과 함께하는 드림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3.17	다마키 나미 콘서트	제주한라아트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재)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PROMIC)
03.26	2012 KBS제주 시청자 음악회 첼리스트 김아영의 'Yellow Spring'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4.14	10cm의 작은음악회	국립제주박물관 야외광장	국립제주박물관
04.19	루마니아 바나툴오케스트라 초청 장애인 사랑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예원오페라단·제주베데스다선교회
04.21	2012 유채꽃 향기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제주시 별도봉마을 곤을동	화북동주민센터·화북동주민자치위
04.25	KBS 시청자 음악회 '드미트리 고딘의 피아노 리사이틀 매직'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4.27	여성이 행복한 재즈 라이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4.28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4.28	봄의 소리! 룰루랄라 음악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14	제주영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 '예수'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영락교회
05.26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콘서트 '얌모얌모'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6.02	즐겁고 행복한 흙피리 연주회	제주시중앙지하상가 랑데뷰홀	제주오카리나문화원
06.15	2012 아리랑라디오 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리랑라디오
06.16	용연선상음악회	제주시 용연계곡	제주시
06.24	제10회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늘푸른음악회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주최 및 주관
07.28	델리스파이스 초청 공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8.13	가와노 마리나 제주콘서트	한라아트홀 소극장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08.24	아리랑 라디오 K-POP 콘서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아리랑라디오
08.25	이상은, 영혼을 향한 여행	국립제주박물관 야외정원	국립제주박물관
08.25	제1회 이매진 어워드 뮤직페스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시뮤직위크추진위원회 제주뮤직위크추진위원회
08.27	제1회 우란분재 음악대향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관음사
08.31	2012 제주장애인 뮤직페스티벌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강당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01	구좌읍 어린이 합창단 창단공연	구좌읍주민자치센터	하도·종달·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09.01	해군군악대 현대미술관 5주년 기념 공연	제주현대미술관	해군본부 주관
10.09	제주CBS 창립 11주년 기념 '2012 Jazz in JEJU'	제주아트센터	제주 CBS
10.13	2012 평화음악회	제주도립미술관	평화문화분과위원회
10.27	뉴마트리오 '가을, 함께 숨 쉬다'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1.10	시노래 콘서트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11.14	제주대 문화광장 바리톤 김승철교수 초청 특강 '오페라와의 만남'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11.14	제주대 문화광장 바리톤 김승철교수 초청 '오페라와의 만남'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 문화광장
11.16	2012 안익태 기념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안익태기념재단· 숭실대학교
11.17	'띠앗 합창단' 창단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11.21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학생문화원
11.23	슈퍼스타 이한철 밴드 특별공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6	제3회 시낭송 음악회	송악도서관	송악도서관
11.30	2012 아리랑 라디오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리랑라디오
12.01	눈으로 음악을 마음에 담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 오렌지스쿨
12.12	KBS제주 송년음악회 하모니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12.22	제주도립미술관 겨울음악회 '선물'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제주도립미술관
12.23	이한철 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24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7. 독주회

2012년 제주도내 신진, 중진 예술가들의 독주회가 14회 개최되었다. 특히 벨기에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노악 초청 독주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제주의 음악학도들을 위하여 독주회 전날 '플로리안 노악과의 대화의 시간'을 예술영재교육원(제주학생문화원 3층)에서 갖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 레슨의 기회도 부여하였다.

소프라노 정여은과 테너 박웅의 독창회가 있었는데 정여은은 'Memories of England'를 주제로 영국에서의 추억을 음악으로 담아냈으며,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조교수 박웅은 슈베르트, 브람스, R.슈트라우스, 슈만 등 유명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표 7> 독주회 현황

날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자
04.28	강성주 귀국 첼로 독주회	제주도문예회관	강성주
04.29	고광호 색소폰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고광호
05.17	문승희 바이올린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일반대학원 음악학과
06.03	바리톤 한동훈 제주 독주회	신제주성당	한동훈
06.05	김해인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해인
06.28	플로리안 노악 제주 독주회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10.04	김지영 첼로 독주회	아름다운교회	
10.19	소프라노 정여은 제4회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정여은
10.23	네 번째 소연! 신은숙 대금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죽향국악원
10.23	이의원 피아니스트 독주회	제주아트센터	영남대학교·이의원
10.27	피아니스트 현은숙의 네 번째 독주회 '현은숙의 건반 위 은파'	김정문화회관	현은숙
11.01	테너 박웅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박 웅
11.27	김은혜 플루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필뮤직기획
12.18	오승명 타악기 귀국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코리아나매니지먼트

8. 기타 문화공간

2012년 제주도내 크고 작은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기획공연이 소개되었다. 간드락 소극장과 자작나무숲에서 각각 2회의 공연을 기획하였으며, 카페 세바에서 18회의 기획공연이 이루어졌다.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카페 세바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하우스 콘서트를 선보이고 있다. 자그마한 공간에서 연주자는 관객의 눈빛을, 관객은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어서 관객과 연주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하우스콘서트장이다.

<표 8> 문화공간 공연 현황

날짜	공연명	공연단체	공연장소
01.28	팝페라미니콘서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2.04	유포릭사운드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2.11	홍순달 퀸텟, 재즈보컬리스트 박라온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2.17	'신기루' 콘서트	간드락 소극장	간드락소극장
03.24	'락(樂), 인디가 흐르는 아름다운 만남'	간드락 소극장	간드락소극장
03.31	선우정아 Muchachos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4.21	April in SEBA '박근쌀롱'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4.22	황금경 피아노 독주회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4.29	배장은 솔로 콘서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07	재즈보컬리스트 이부영 meets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08	Han's Qurtet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21	통통클래식 승효상 건축가 '음악, 건축과 통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08.25	써니킴 재즈 트리오 공연 '화가의 눈'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9.09	책 읽어주는 세바음악회 '이종혁재즈밴드 재즈의 초상, 무라카미 하루키'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9.23	책 읽어주는 세바음악회 '클라란슈만, 네 손의 인생'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0.06	자작나무 숲 통통클래식 콘서트 공연 '음악, 과학과 통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10.13	재즈피아니스트 한지연 솔로 피아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0.20	프랑스 재즈 뮤지션 콘서트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2.01	재즈피아니스트 김세운 'song of water'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2.22	송영주의 재즈크리스마스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2.23	송영주의 재즈크리스마스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2.25	이종혁 재즈밴드 크리스마스의 오후	카페 세바	카페 세바

Ⅲ. 나오며

음악활동은 다른 사람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다양한 사람과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타인과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 수 있다. 또한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음악은 정서 전달을 하는 가장 친숙한 도구이며,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의 질서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음악적 노력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2012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문화거리활성화사업으로 기획된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의 '37도 문화세상'은 거리 문화활동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지력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머무르며 즐기는 '축제의 공간',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문화거리 사업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기획은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고객 서비스'의 한 부분이므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과 교육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2013

제주문예연감

연극

2012년 제주연극의 현황과 분석

송윤석 _ 극단 예휘 대표

Ⅰ. 들어가며

2012년 도내 연극계 흐름의 중심은 여전히 극단 가람, 자파리연구소, 극단 세이레 극장, 세이레 어린이극장 등이었다. 특히, 2011년 일본 공연에 나섰던 자파리연구소의 「죽쑤는 할망」은 2012년 재차 일본 공연을 다녀왔고, 이어서 호주까지 초청공연을 다녀왔다. 극단 가람은 광주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자 부문 개인연기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극단 세이레 극장은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로 제9회 고마나루 향토연극제에서 대상과 특별상, 우수여자연기상을 휩쓸었다.

이 글은 2012년 한 해, 제주지역에서 무대에 올려진 연극 공연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다만 아동극 극단 공연을 배제한 것은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가운데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며 그에 비해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신뢰할 수 없는 단체의 공연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분류 및 통계는 지난 해 문예연감의 양식을 따랐다. 다만 장르 구분에 있어서 그동안 일반연극,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으로 분류해 오던 것에서 마당극 부문을 뮤지컬과 아동극으로 흡수시켰다. 마당극이 일반 연극의 추세에 맞춰 다른 장르 특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고려해서이다.

총 공연 횟수 및 월별·장소별 통계를 냈고, 도외, 도내 극단으로 나눠 각각 장르별로 분석하였으며, 상설공연은 제외하였다. 또한 같은 작품을 재공연했을 때에도 각각 다른 작품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이 글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공한 자료와 언론 보도자료를 참조하고 기획사와 극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썼음을 밝힌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공연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제주 연극계에서도 개인별 SNS를 적극 활용하여 공연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전통 있는 극단이거나 공신력 있는 단체가 아닌 경우나 여전히 신문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단체의 공연이 아닌 경우, 공연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Ⅱ. 2012년 공연 현황 분석

1. 2012년 공연 현황

1) 총 공연 현황

제주도내에서 올려진 도내·외 극단의 공연과 도내 극단의 도외, 국외에서의 공연 현황을 보면, 총 297회의 공연 중, 일반연극이 148회(4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아동극이 67회(22.6%), 뮤지컬이 51회(17.2%), 청소년극이 6회(10.4%)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아동극이 268회(48.9%)로 205회(37.4%)였던 일반 연극을 앞질렀던 것과는 상반되는 통계이다. 도외 아동극단의 공연의 경우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일일이 분별해내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아예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총 공연 횟수는 2010년 517회, 2011년 548회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작품 편수도 2010년 101편, 2011년 114편에 비해 2012년에는 63편으로 줄어들었다.

일반 공연의 경우 2010년 162회, 2011년 205회에 비해 2012년엔 148회로 감소했고, 작품 편수도 2010년 38편, 2011년 43편에 비해 2012년엔 31편으로 감소했다.

아동극은 67회 공연되었으며, 작품 수는 17편으로 집계되었다.

도외 극단의 일반연극 작품 수는 유일하게 전년도 수치를 넘어서는 통계를 보였다. 2010년 11편, 2011년 9편에 비해 2012년엔 11편이 올려졌다. 뮤지컬은 2010년 9작품, 2011년 13작품, 2013년엔 5작품이다.

<표 1> 2012년 도내·외 극단 총 연극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계
공연횟수	도내	67	38	31	67	203
	도외	81	13	0	0	94
	계	148	51	31	67	297
작품편수	도내	20	3	7	17	47
	도외	11	5	0	0	16
	계	31	8	7	17	63

2. 장르별 공연현황

1) 도내 극단 현황

(1) 일반연극

‘2012 제주 전국 장애인 연극제’는 장애인들의 연극 활동이 그저 그런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 극단의 수준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연극 분야에선 극단 가람의 활약이 독보적이었다. 2011년 제8회 고마나루 전국 향토연극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던 극단 가람은 2012년에도 제30회 전국연극제에서 은상과 함께 여자연기상을 받았다. 극단 세이레극장은 제9회 고마나루 전국 향토연극제에서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로 대상과 특별상, 우수여자연기상을 휩쓸었다.

매년 열리는 소극장 축제와 전국연극제 제주지역 예선과 같은 행사는 2012년에도 여전히 연극계의 활력요소가 되었다.

아래 <표 2>를 보면 일반극과 아동극의 공연 횟수가 같다. 도내 극단의 아동극 편수는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일반극의 경우도 공연 횟수에 비한다면 작품편수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표 2> 2010~2012년 도내 극단의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마당극	청소년극	아동극	계
2010년	총 공연 횟수	112	5	12	5	132	266
	총 작품 편수	27	2	3	5	9	46
2011년	총 공연 횟수	173	10	19	6	77	285
	총 작품 편수	34	1	6	5	8	54
2012년	총 공연 횟수	67	38		31	67	203
	총 작품 편수	20	3		7	17	47

아래 <표 3>은 2012년 한 해 도내 극단의 공연 현황이다.

5개 극단이 78회 공연에 총 20편의 작품을 올렸다. 극단 가람은 총 9편의 작품을 올렸는데, 그 중 제30회 전국연극제 은상 수상작 「낮술」과 이상용 연출로 새롭게 공연된 「동치미」가 주목 받았다.

극단 세이레극장은 5편의 작품을 올렸는데, 대표 강상훈 창작의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극단 이어도는 소극장 축제에서 선보인 창작극 「동행」이 큰 반향을 얻었다.

극단 웃음꽃이 두 편의 작품을 총 8회 공연하였고, 그 외 제주대학교 연극동아리 출신들이 꾸린 예술공간 오이가 「덤웨이터」라는 작품으로 총 7회의 공연을 올렸다.

<표 3> 2012년 도내 극단 일반연극 공연 현황

구분	극단 가람	극단 세이레극장	극단 이어도	극단 웃음꽃	계
공연횟수	33	22	4	8	67
작품편수	9	5	2	2	18

<표 4>에서 보듯이 제주대학교 극예술연구회 1편, 실버스타연극단 1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연극동아리 1편 총 6회의 공연이 있었다.

<표 4> 2012년 도내 극회 및 동호회, 일반연극 공연 현황

구분	제주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실버스타연극단	설문대연극동아리	계
공연횟수	4	1	1	6
작품편수	2	1	1	4

(2) 아동극

아동극은 도내 총 공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가장 활발한 공연이 이루어진다. 여전히 도외 극단과 기획사 공연이 대세이지만 도내 극단에서도 8작품을 84회 공연하였다. 이 수치는 도내에서 새로운 아동극단이 생기지 않는 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 한 극단이 한 해 동안에 소화해낼 수 있는 작품 편수를 고려해 본다면 이미 적정 수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도내 아동극 공연은 상설극장을 갖추고 있는 세이레어린이극장과, 자파리연구소 두 극단이 주축이 되고 있다. 세이레어린이극장은 전문 아동극단이면서 동시에 일반극이 주 종목인 극단세이레극장과 한 뿌리로 이미 검증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자파리연구소는 젊은 피와 감각으로 무장하여 도내·외는 물론 4월과 5월에는 일본, 호주로 입지를 넓혔으며 곧 유럽 공연도 성사시킬 전망이다.

<표 5> 도내 극단 아동극 공연 현황

구분	세이레어린이극장	자파리연구소	계
공연횟수	40	44	84
작품편수	5	3	8

<표 6>은 도내 아동극 공연을 장르별로 나눈 현황이다. 2011년 총 8편의 작품에서 2012년 총 13편으로 증가했다. 총 66회 공연 중 일반연극이 9편, 24회 공연했고, 인형극이 4편, 42회 공연되었다.

<표 6> 도내 극단 아동극 장르별 공연 현황

구분	인형극	일반연극	계
공연횟수	42	24	66
작품편수	4	9	13

(3) 청소년극

'전국청소년연극제'의 예선대회이기도 한 '제주청소년연극제'는 대정여고와 한림여고 두 팀만 참가하였다.

고등학교 연극반의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세이레아트센터에서는 '청소년 연극학교'를 열었다. 2월부터 6개월간의 교육 후에 이른바 세이레아트센터 '청소년 연극학교' 1기생들의 공연이 2회 올려졌다.

<표 7> 도내 극단 청소년극 공연 현황

구분	대정여고	한림여고	세이레	세이레청소년학교	내여페	계
공연횟수	1	1	20	2	4	28
작품편수	1	1	1	1	1	5

2) 도외 극단의 공연 현황

(1) 일반연극

2012년 도외극단의 일반연극 공연 횟수는 이전보다 월등히 늘어난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KT소극장에서 올려졌던 「두 여자」, 「죽여주는 이야기」가 각각 한 달여 동안 공연되었기 때문이며, 작품수로 치면 크게 변동이 없다. 이는 도내에서도 장기 공연이 가능한 지에 대한 큰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2012 전국장애인연극제'를 개최하였는데 전국의 최고 수준의 장애인극단들의 무대를 선보였다.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일동포 3세대로 구성된 극단 달오름이 「흔들리다」라는 작품으로 제주를 찾아 공연했다.

<표 8> 2012 도외 극단 총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계
2010	공연횟수	50	26	76
	작품편수	11	9	20
2011	공연횟수	32	32	64
	작품편수	9	13	22
2012	공연횟수	81	13	94
	작품편수	11	4	15

(2) 뮤지컬

뮤지컬은 4편, 13회 공연에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는 중앙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뮤지컬계 현상을 반영한다.

제주 출신의 고두심씨가 연기 데뷔 40주년을 맞아 「댄스레슨」으로 제주 팬들에게 파격적인 연기를 선사한 것도 훈훈한 광경이었다.

3. 제주지역 극단 지원 현황

1) 2012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2012년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하고 지원금 교부 등의 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맡아 추진되었다. 총 사업비 2억 5천만원 가운데 연극 분야는 4건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10>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내역

극 단 명	작 품 명
극단 가람	정기순회공연 마당극「뺑파전」
극단 세이레극장	꿈과 사랑을 주는 인형극장「누구의 알일까?」 외 1편
퍼포먼스단 몸짓	지역환경살리기 동화「간 없는 토끼」
놀이패 한라산	제주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당굿 세경놀이 순회공연

2) 2012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2012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연극 부문에는 총 4건이 선정되었고, 지원 금액은 3,200만원이었다.

<표 11>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사업내역

극 단 명	작 품 명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21회 소극장 연극축제
깨비랑	애인인형극동아리 인형극 교실 및 정기공연
세이레 어린이극장	인형극 무지개물고기
놀이패 한라산	4·3 마당극 사월굿

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간의 인적·물적 협력 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연극 단체로는 4개 극단이 지원을 받았다.

<표 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극 단 명	작 품 명	지원사업명
극단 가람	우리가 꿈꾸는 무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극단 세이레극장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자파리연구소	2012 자파리연구소의 창작극 퍼레이드 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놀이패 한라산	제주 굿놀리 레파토리 창작 마당굿 공연「전상놀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4. 월별 공연 현황

2012년 월별 공연 현황을 보면 6월과 9월 공연이 가장 많았다. 일반연극, 아동극 모두 그 두 달에 올려진 공연이 전체 공연 횟수의 절반에 가까웠다. 상반기 공연보다는 하반기 공연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반극과 아동극의 공연이 활발한 시기가 동일하게 집계되는 것은 일반연극의 주 관객층이 젊은 여성들로서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아동극 공연장으로 다니기 때문이라 본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연극의 주요 관객층을 이루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상반기 공연실적은 저조하다. 전국연극제 예선대회를 앞두고 극단들이 제일 바쁜 시기이고 예선대회를 거쳐 제주 대표로 선정된 극단은 6월까지 본선 공연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상반기는 대개 지난 공연을 재공연 하거나 외부극단 초청공연으로 채우고 있다.

아동극은 성수기·비수기 따로 없이 늘 성황을 보이고 있는데, <표 13>은 아동극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도외 극단의 공연을 배제한 통계이다.

뮤지컬은 2011년과 다름없이 주로 도외 극단의 공연으로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극단 가람이 연이어 뮤지컬 공연을 올렸다. 그 외, 세계자연보존총회와 제주해녀축제 초청작으로도 선정된 판타지 뮤지컬「숨비소리」가 한라아트홀에서 한 달여간 공연되었다.

<표 13> 월별 공연 현황

장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일반연극	5	10	·	6	12	36	2	·	30	11	22	13	147
뮤지컬	·	4	·	·	·	2	5	30	5	5	2	6	59
청소년극	·	·	·	·	3	1	·	2	·	·	20	4	30
아동극	·	6	·	20	4	31	7	2	53	·	8	4	135
계	5	20	·	26	19	70	14	34	88	16	52	27	371

5. 지역별 공연 현황

2012년 제주연극은 <표 1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 274회 중 259회가 제주시에서 공연되어 전체의 95%나 차지한다. 공연장이 제주시에 집중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서귀포시와의 지역편차는 일반연극, 아동극 모두 심각한 수준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뮤지컬 1건, 아동극 3건이 공연되었다. 그 외, 극단 세이레극장이 도내 중학교 순회공연으로 중문중, 안덕중을 방문하여 「난 아프지 않아」를 공연하였다.

<표 14> 2012 지역별 공연현황

장르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국외	계
일반연극	146	·	5	·	151
뮤지컬	51	1	1	·	53
청소년극	7	·	·	·	7
아동극	55	3	·	5	63
계	259	4	6	5	274

도내 극단의 도외 공연은 일반연극 부문에서 극단 가람의 전국연극제 은상 수상작 「낮술」과 고마나루 향토연극제에 참가한 극단 세이레극장의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자파리연구소의 「죽쑤는 할망」이 있다. 지난 해 일본 국민문화제

초청으로 아동극 「오돌또기」를 공연했던 자파리연구소는 「죽쑤는 할망」으로 또 다시 일본공연을 다녀오는 동시에 호주 공연을 성사시켰다.

6. 공연장별 공연 현황

<표 15> 2012 공연장별 공연 현황

공연장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계
문예회관대극장	13	3	·	6	22
문예회관소극장	15	·	1	·	16
제주아트센터	5	16	·	24	45
한라아트홀대극장	6	30	·	·	36
한라아트홀소극장	12	·	·	·	12
간드락소극장	·	·	·	38	38
KT소극장	67	·	·	·	67
세이레아트센터	19	·	2	8	29
수눌음소극장	1	·	·	·	1
아라뮤즈홀	1	·	1	·	2
제주학생문화원대극장	·	·	3	·	3
국립제주박물관	·	·	·	3	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	2	·	·	4
서귀포시학생운화원강당	·	·	·	5	5
영화문화예술센터	1	·	5	·	6
예술공간 오이	4	·	·	·	4
기타	1	·	20	5	26
계	147	51	31	89	319

2012년 공연장별 공연 현황을 보면 KT소극장이 67회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기 기획공연을 유치했던 데서 기인한다. 그 뒤를 이어 제주아트센터 45회, 간드락 소극장이 38회, 한라아트홀 대극장이 36회, 세이레 아트센터가 29회, 문예회관 대극장이 22회, 문예회관 소극장이 16회 공연 순이다.

2011년에는 문예회관 대극장 공연이 많이 늘어난 추세를 보였지만 2012년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공연도 매해 59회에서 26회, 16회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일반연극의 장기공연이 올려지던 세이레아트센터의 경우도 대폭 감소하였다. 간드락소극장의 경우 공연장상주단체로 있는 자파리연구소의 공연이 주를 이뤘고 다른 단체의 공연실적은 저조하였다.

제주 문화관광 시장을 겨냥한 넌버벌 퍼포먼스 상설공연 「난타」는 자리를 잡았다. 2011년에는 「점프」가 상설공연을 목표로 한라아트홀 대극장을 장기 대관했었고, 창작 얼라이브 아트컬 「류」도 제주관광대 컨벤션홀에서 야심차게 시작했었으며, 「아리랑 파티」도 어음리에 상설공연장을 만들고 장기공연에 돌입했었지만 모두 기대에 못 미치고 중도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2012년에는 「숨비소리」를 통해 가능성을 점쳐보고자 했지만 그 역시 결과가 안 좋았다. 제주다운 색채와 제주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이 상품성 있는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선결 과제가 너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7. 교육 관련 프로그램

2012년 연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돋보였던 것은 극단 가람의 「우리가 꿈꾸는 무대」와 극단 세이레극장의 '청소년 연극학교' 였다. 극단 가람은 두 달 동안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극단 세이레극장은 6개월 동안의 알찬 연극교실을 운영한 결과물로 '청소년 연극교실' 1기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 외 극단 세이레극장의 아동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동녘 도서관의 '제5회 동녘 환타지아 세계'가 운영되었다.

Ⅲ. 나오며

2012년은 그동안 활발한 공연활동을 보여오던 제주연극계가 잠시 주춤했던 해이다.

일반극이나 아동극 모두 도외 극단의 공연이 주를 이루었다. 심지어 일반극 장기공연까지 진행되면서 도내 극단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경기침체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수도권 연극계는 근래 들어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물론 예술적인 작품보다는 상업성에 의존한 공연이다.

제주 연극 또한 기나긴 역경 속에서도 잘 버티어 왔다. 2012년 한해를 잘 버텨낸 저력은 다시 내년, 내후년을 기대하게 한다. 아직 제주 연극계는 제1세대의 기운이 서려있고 거기에 제2세대의 활력이 어우러지고 있다. 제주 연극이 전국무대에서 연이은 수상을 하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호주로 그 입지를 넓히고 있는 흐름은 일반적인 대세로 볼 수 있다.

제주 연극의 위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도민 역시 제주 연극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제주도민의 연극을 보는 수준도 달라졌다. 과거 질 낮은 도외 극단의 공연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완성도 높은 공연이 아니고서는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012년, 도외 극단의 공연 횟수가 줄어든 것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도내 극단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끝으로 제주연극인들의 자질 향상과 질 높은 작품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과 함께 관련기관의 행정·재정적인 지원, 공연을 위한 환경조성 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

제주문예연감

무용

2012년 제주 무용계 현황과 과제

이창훈 _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I. 들어가며

글로벌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도시 경쟁력'이다. 영국보다는 런던, 프랑스보다는 파리, 미국보다는 뉴욕, 일본보다는 도쿄라는 도시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도시만이 내세우는 독특한 이미지가 그만큼 굳건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도시행정전문가, 시민들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도시들은 모두 지리적 규모도 규모지만, 각각 금융, 정치, 과학 등을 전략적으로 문화산업과 융복합시켜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암스테르담, 텔 아비브, 모스크바 등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 육성에 큰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계적인 관광지 못지않게 관광객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는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는 천혜의 자원과 동아시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취약한 문화환경이 제주를 관광명소 이상의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한 도시의 문화환경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겠지만 그 도시의 매력을 한껏 발산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의 양과 질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생각한다. 제주의 경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화적 콘텐츠를 지닌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문화산업으로, 도시경쟁력의 요소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 제주 무용계 현황을 통해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무용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제주지역 일간지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공한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II. 활동 현황

1. 도립무용단

도립무용단 창단은 2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내부 단원들의 갈등으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2012년 도립무용단은 어느 정도 내부문제가 정상화 되어 왕성한 활동으로 제주도민의 박수를 받는 한 해가 되기도 했지만, 향후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간의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2012년 제주도립무용단은 굵직한 행사를 프로페셔널하게 치러내며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일련의 갈등 속에서도 정기공연과 찾아가는문화활동으로 제주 무용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제주무용인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춤 캠프를 열어 도민과 호흡하고자 노력하여 제주도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등 무용애호가들에게도 진심어린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실정을 자료로 보기로 하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치러진 제42회 정기공연인 「씻김, 주목의 노래」는 'soul of jeju'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제주인의 이상과 현실, 꿈과 미래를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씻김, 주목의 노래」는 제주인의 내면에 있는 응어리와 한과 서러움을 딛고 강인한 정신으로 세계수가 된 주목을 통해 환희에 가득 찬 제주를 그려냄으로써 우리 제주 춤의 세계화를 목표로 제주만의 브랜드 작품을 만들고자 기획된 작품이다. 이런 취지 아래 제주 정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정확한 비전 제시는 제주도립무용단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예술성을 겸비한 단체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2.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 제21회 전국무용제

제21회 전국무용제가 여수에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으며 제주대표로 부혜숙 빛 무용단이 참가했다.

제주에서는 전국무용제에 참여할 전문 무용수가 부족하여 전국무용제 기간이 되면 제주 대표 본선제에 참가할 단체를 구하지 못해 매년 애로를 겪어왔다. 제21회 전국 무용제 안무자(부혜숙)는 제주 예선 단독 대표 자격을 획득하여 한국창작무용 「비자림의 걸음」으로 경연에 참여하였다. 「비자림의 걸음」은 오랜 세월 제주도민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고 있는 비자림이 걸어온 시간에 대한 회고와 성찰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2) 제13회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

청소년 순수무용공연은 제주 지역에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제주문화예술재단 국고민간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가 개최될 수 있어 전국 각지의 기량이 뛰어난 청소년들과 제주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무용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일한 청소년 순수무용공연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문화 육성 정책과 실현 의지의 필요성을 일깨운 좋은 사례이다.

제13회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에는 서울 임혜정무용단, 경기도 김은희무용단, 경남 권미애무용단,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산 새싹발레단, 제주의 숙명발레아카데미와 지젤발레센터, 신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출연하였다. 이들은 한국무용과 창작 현대무용, 발레 등 신선한 순수무용 작품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으며 제주 청소년 무용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한국무용협회제주도지회는 제주시가 주최하는 여름해변축제에 「춤은 파도를 타고」라는 작품으로 참가하였으며,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1회 탐라문화제 춤 대축제에 참가하여 도민과 함께 흥겨운 축제를 만들었다.

3) 한국무용협회제주시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으로 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장 이춘열 감독과 제주시지부 회원인 부혜숙씨가 기획 안무한 「평화의 춤, 제주를 품다」는 제21회 전국무용제에 참여한 작품을 재구성하여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1부는 제주 숲에서 얻어온 한 톨의 씨앗이 군락을 이루고 또 천년의 숲을 이루는 과정을 그려냈고, 2부는 춤의 향기를 주제로 한 노리안 마로의 사물놀이와 회원들의 소고춤, 해어화무, 부채춤으로 재구성되었다.

3. 개인무용단체

1) 동화(同化)-춤, 제주에 스며들다

지역 춤꾼 김희숙씨의 작품인 「제주춤 일구기」가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사단법인 전통문화포럼 주최, 제주춤아카데미, 제주국악단 제주소리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그동안 상업성에 치우쳤던 전통춤에 대한 반성과 고민을 제기한 공연으로 관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가영씨 등이 바람의 꿈, 호적시나위, 섬의 향기, 해녀들의 숨비소리, 살아오며 살아가며, 제주민요, 신들의 고향 및 굿춤을 공연했다.

2) 故 최현 선생 10주기 추모공연

「춤으로 그리는 제사 비상 V」가 7월 6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공연되어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주도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시대 마지막 낭만주의로 칭송받으며 신무용과 창작무용의 가교 역할을 했고, 창작 작품의 개척자로 미학과 공간 해석에 남다른 심미안을 보여준 멋의 예인 최현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하는 공연이었다. 최현 춤보존회 배상복 회장과 강광옥 지회장이 주최·주관한 이 행사는 살풀이춤, 춤의 약동, 춘설, 고풍, 연가, 운순월, 비상, 미얄탈춤, 비의소나타, 군자무 소풍 등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현선생의 수제자인 여미도씨가 추모공연에 합류하여 개인공연발표회가 적은 제주에서 한국무용의 정수인 정중동의 표현미를 제주도민에게 선사했다.

3) 체코 발레단 이지은 안무가

제주출신으로 유럽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용가 이지은씨가 체코쳄버발레단 안무가로 위촉되어 개인적으로나 제주도민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 전문발레단에 동양인 안무가는 극히 드문 예로 한국무용계에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라하 쳄버발레단 관계자인 라디슬라바 안도바씨는 이지은씨의 발탁 배경에 대해 그의 과감한 실험정신과 무한한 상상력으로써 철학적 담론을 제시하는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지은씨는 체코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유럽 무대에서 많은 초청 공연과 수상경력으로 이미 안무가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세계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4) 2012 월드 인 제주 컬러풀 춤 페스티벌

제주헤라스벨리댄스컴퍼니 윤선아 대표는 오리엔탈무용으로 비쥬얼 이미지가 강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발, 연출하여 관객에게는 즐거움과 감동, 무용수들에게는 무한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4. 외부단체 제주공연

1) 서울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갈라콘서트

서울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갈라콘서트가 문예회관 대극장의 무대를 수놓았다. 이날 공연에서 서울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지젤, 카르미나브리 등의 고전발레와 모던발레 캣츠-메모리즈를 선보였다.

2) 국립발레단 「나도 발레리나」

국립발레단이 지방문화 소외계층이자 발레예술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수산초등교와 함덕초등교 선인분교에서 재능기부 일환으로 찾아가는 발레교실을 열었다. 발레를 접하기 힘든 제주에서 국립발레단은 백조가 되기까지는 오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력의 투자는 당연한 것이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꿈과 희망을 학생들에게 안겨주었다

찾아가는 발레 교실은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본부장 안전규)와 국립발레단(단장 최태지)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3) 2012년 무용교류전 「가객-국창 임방울을 노래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과 공연장 상주단체 교류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 교류 사업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였다.

「가객-국창 임방울을 노래하다」는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과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이 가객, 임방울의 사랑과 예술혼을 담아낸 작품이다. 그러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객참여율이 높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공연이었다.

4) 사회무용단체

숨비민속무용단장(김정열)은 회원들과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인 「얼씨구 좋다」로 가파도, 정신지체재활원, 원광요양원을 찾아 소외된 이들과 함께 했다. 제주오름민속무용단(단장 최길복)은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제3회 전국청소년무용콩쿠르를 주최·주관하였다. 또한 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정기공연으로 「전통춤, 물 흐르듯」을 올렸고, 전통무용(진주 교방무) 연수 기회를 대중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춤은 접하기 어려운 장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재미있는 움직임 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반인 위주의 커뮤니티 무용, 사회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련의 공연 및 연수 기회는 무용의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표 1> 2012년도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지원액 (단위 : 천원)

장르		심의결과		
		건수	신청액	지원액
공연	소계	35	264,550	163,000
	연극	4	42,000	24,000
	음악	14	97,850	65,000
	무용	4	26,000	18,000
	다원	1	6,000	3,000
	전통	12	92,700	53,000

<표 3> 2012년도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액 (단위 : 천원)

장르		신청결과				백분율	
		건수	신청액	건수	지원예정액	건수	지원금
총계		70	607,370	41	201,000	58.6%	33.1%
공연	소계	70	607,370	41	201,000	58.6%	33.1%
	연극	10	117,000	4	32,000	40.0%	27.4%
	음악	43	353,370	25	109,000	58.1%	30.8%
	무용	5	35,000	4	20,000	80.0%	57.1%
	전통	12	102,000	8	40,000	66.7%	39.2%

Ⅲ. 나오며

이렇게 2012년 제주 무용계 활동을 결산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점이 도출되는 듯하다.

우선 무용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무용계 내부적인 역량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해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한 육성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원금액이 비현실적이어서 결국 창작인의 사재를 출연하게 하고 이는 곧 창작 의욕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나마 제주에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전공자는 10여 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무용제에서 안무자 자격이 45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에 가로막혀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무대에서 신작을 선보일 수 있는 안무가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제주에서 능력 있는 안무가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창작욕구가 왕성한 젊은 안무자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는 사회무용인 육성을 위해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순수전공자들의 전문적 무용작품 창작을 위한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제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제주도립무용단이 정상적인 활동에 매진하게 된 2012년은 제주 무용인들에게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한 해였다. 하지만 무용 장르와 타 장르의 지원 금액의 간극은 좁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사회가 일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2013

제주 문예연감

영상

2012 제주 영상界

고창균 _ 제주영상위원회 제작교육팀장

Ⅰ. 들어가며

1. 한국영화시장 결산

2012년 한국영화시장은 한마디로 '따뜻한 봄날'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장르 영화들의 국내외적 활약이 두드러졌고, 특히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는 세계3대 영화제의 하나로 꼽히는 베니스영화제(69회)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단연 대한민국 영화사상 최초의 일이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한국영화산업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영화산업은 예년에 비해 크게 도약한 한 해로 평가되었다. 개봉관을 찾은 관객 수를 보면 전년 대비 21.9%가 증가한 1억 9천여만 명으로 집계되어 한국영화 역사상 최다 관객 수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한국영화 사상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2편(「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이나 되는 해이기도 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은 한국영화 점유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50.8%라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이면서 입장권 흥행 수입도 전년도에 비해 17.7%가 상승한 총 1조 4,5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성과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분석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영화의 질적 성장에 따른 효과라고 본다. 이와 같은 상업영화의 눈부신 발전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부문도 영화 「지슬」을 비롯하여 오랜만에 걸쭉한 작품들이 선보여 2012년은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바람을 안겨다 준 한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2012 결산

2012년 제주에서는 영화와 방송드라마를 포함한 로케이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로케이션은 모두 42편으로 이 중에 영화는 19편, 방송드라마는 9편,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그 외 장르 14편이 제주에서 제작되었거나 현재도 진행중이며 이는 전년도 27편에 비해 양적으로 15편이 증가한 것이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제주지역의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창작활동을 해온 '토종' 감독들의 그간의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빛을 발했다는 점이다. 비록 규모는 작고 소박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영화마니아와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위한 영화제 성격의 영화 행사들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학생들의 창작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여 제주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해 준 한 해였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 매년 열리고 있는 '남원꿈빛어린이영화제'도 2012년 5회째를 맞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어린이 영화제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음악으로 듣는 영화, 영화로 보는 음악을 표방하며 시작한 '제주프랑스영화제'는 3회째를 맞으면서 영화의 변방인 제주에 새로운 바람을 선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 및 단체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년 영화를 비롯한 영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영화분야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에 새로운 영상문화를 꽃 피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Ⅱ. 제주 로케이션 현황 및 문제점

영화와 방송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의 제주 로케이션은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다지 내실 있는 편은 못된다. 제주도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위원회를 출범시킨지 만 10년이나 되었지만 영상분야는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상산업의 중요한 요소는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드웨어, 곧 시설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영상시설은 타 지역보다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사)제주영상위원회에 제작지원 신청 및 제작협조 요청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1> 2012년 제주로케이션 현황

구 분	작품명	제작사
영화	P의 여행(비념)	개인(임흥순)
	건축학 개론	명필름
	길 위에서	테라픽스
	지슬	자파리필름
	늑대소년	영화사 비단길
	마지막 상어재비	어썸픽쳐스
	뷰티플 2012(아름다운 그녀)	영화사 담담
	사랑병	큐브로스
	제주돌핀	한국영화아카데미
	삼형제	개인
	앨리스	㈜도도 영화사
	돌꽃	제주영상애니창작연구소
	방파제	개인
	보청기	개인
	썬더맨	필마픽쳐스
	겁나게 평범한 패밀리	타일 C&P
	늑대들의 여행법	㈜웃기시네
	덴트로비움	북경 HI-LINK
	그 얼굴에 햇살을	인디라인
드라마	신들의 만찬	MBC
	프로포즈대작전	㈜호가엔터테인먼트
	러브어게인	드라마하우스
	내일이 오면	러브레터
	인수대비의 여자	TVN
	보고싶다	드라마하우스
	더 킹	김종학프로덕션
	마의	김종학프로덕션
	愛的合同	북경등객문화전매유한회사
기타	남자의 자격	코엔미디어
	탑기어코리아	CJ미디어
	라온 CF	아프리카 앤 알래스카
	이효리의 골든12	CJ미디어
	이너스프리 CF	㈜알파빌

구 분	작품명	제작사
	미래에셋 CF	아프리카
	1박2일	KBS
	SM5 CF	아프리카
	힐링캠프	SBS
	인피니트 뮤직비디오	키노아이
	아이유 뮤직비디오	키노아이
	이너스프리 영상	스위치미디어웍스
	MBC다큐 그날	플렉앤 플레이
계		총 42편

※ 출처 : (사)제주영상위원회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양적인 증가는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크다. 전체 42편 가운데 제주 올 로케이션작품은 고작 2~3작품(독립영화 포함)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 작품은 제주가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영상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상제작에 필요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전무한 데서 오는 경쟁력 약화는 제주영상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확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주지역 로케이션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영상관련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영상문화 향유 증대 및 영상인구 저변을 위한 다양한 활동

1.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2012년은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창작 활동

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 특히 2012년 초부터 시행된 주5일제 수업은 청소년들의 영상미디어교육 참여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중학생들의 연합 동아리 청소년영상캠프는 미래 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됨에 따라 영상제작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여성미디어강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해 15명의 미디어교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2012년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2012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어린이/청소년 교육		일반인 교육		장애인 교육		합계	
횟수	19회		10회		1회		30회	
교육 성격	자체 교육	위탁/ 연계교육	자체 교육	위탁/ 연계교육	자체 교육	위탁/ 연계교육	자체 교육	위탁/ 연계교육
	3회	16회	5회	5회	1회	0회	9회	21회
총인원	460명		141명		16명		617명	

※ 출처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2. 관련 단체 활동

1)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제주씨네아일랜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엔딩크레딧 가까이보기'는 2002년부터 시작한 영화강좌로 어떤 과정을 거쳐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영화 제작자를 통해 알아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12년 첫 강좌는 작가 공지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도가니」제작사 대표가 출연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제주씨네아일랜드에서 매년 야심차게 진행하는 '엔딩크레딧 가까이보기'는 영화제작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한국에서 영화제작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제주씨네아일랜드에서는 영화 정기상영회인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와 '내인생의 최고의 영화'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작품성 있는 영화 감상 기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영화문화 향유 증대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표 3> 2012년 엔딩크레딧 가까이 보기

구분	상영일자	작품명	감독명
내 인생 최고의 영화	1월 10일	부러진 화살	정지영
	1월 17일	연인(THE LOVER)	장자끄
	3월 16일	고양이 춤	윤기형
	3월 20일	잼 다큐 강정	8인독립영화감독
	3월 21일	건축학 개론	이용주
	3월 22일	나의 설계자-아들의 여행	나다니엘 칸
	3월 28일	포레스토 검프	로버트저메키스
	3월 29일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아쉬가르 파르하디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영화!	7월 10일	두 개의 문	김인란, 홍자유
	7월 17일	말하는 건축가	정재은 감
	7월 24일	두 개의 문	서귀포시 상영
	8월 21일	두 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김조광수
	8월 28일	캐빈에 대하여	린 램지
	10월 23일	파닥파닥	이대희
	10월 30일	어머니	태준식
	11월 13일	MB의 추억	김재환
	11월 21일	피에타	김기덕 감
	11월 25일	26년	조근현
	12월 30일	웰컴투 사우스	루카미니에로

※ 출처 : 제주씨네아일랜드 홈페이지 발췌

2) 동부아름다운청소년센터 등

미디어와 영상제작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동부아름다운청소년센터의 경우 2012년 문화예술체험활동 가운데 처음으로 영상제작워크숍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문화예술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워크숍은 디지털 시대에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영상제작을 통한 퍼블릭액세스 활동의 일상화로 사회적 소통과 창작활동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가고자 실시되었으며, 사업 개요는 다음

과 같다.

<표 4> 동부아름다운청소년센터 영상제작 워크숍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동부아름다운청소년센터 영상제작워크숍 1기
교육일자	5월 10일 ~ 9월 6일 (매주 목요일 19차시)
교육시간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대 상	동부아름다운청소년센터 청소년 5인
장 소	동부아름다운청소년센터

3. 무료영화 상영회

1) 영화문화예술센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생겨난 영화문화예술센터는 해를 거듭할수록 센터의 활용도가 다양해짐은 물론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에는 주말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해 기존 토요일 1회 상영을 2회로 늘려 운영한 결과 가족관객을 비롯한 어린이 이용률이 20% 증가했다. 또한 영상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도 실시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지역 및 기관 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한 해 상업영화 및 다양성 영화 상영 월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2012년 영화 상영 월별 현황

월	1관	
	상영횟수	관람인원
1월	43	3,399
2월	37	2,815
3월	38	2,763
4월	43	2,935
5월	47	2,341

월	1관	
	상영횟수	관람인원
6월	51	3,011
7월	50	3,271
8월	50	3,296
9월	53	2,327
10월	43	2,390
11월	53	3,085
12월	51	4,785
계	559회	36,418명

2) 문화기획 PAN

영화를 통한 문화다양성을 체험하기 위한 행사인 '씨네클럽'은 프랑스영화를 테마로 매달 문화기획PAN(대표 고영림)의 주관으로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월부터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저녁시간에 주한프랑스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는데 영화감상과 함께 전문가 초청 씨네토크도 열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영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6> 제주씨네클럽 문화행사 주요내용

일 자	내 용
4월 10일	영화 '더 클래스'(얀 케를록 감독) / 씨네토크(강봉수 교수)
5월 8일	영화 '꼬마니꼴라' / 씨네토크(이자벨 를루, 프랑스 루앙대 교수)
6월 5일	영화 '아멜리아' / 씨네토크(윤용택 교수)
7월 3일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 씨네토크(허대식 교수)
8월 7일	영화 '서머타임' / 씨네토크(강중훈 시인, 유철인 교수)
9월 4일	영화 '13구역-일티메이팀' / 씨네토크(얀 케를록 감독)
10월 4일	영화 '당통' / 씨네토크(서영표 교수)
12월 4일	다큐영화 '마지막수업' / 씨네토크(쟈크 크르땡)

3) 각급 기관 및 단체 운영 현황

각급 기관과 단체의 영화상영회도 꾸준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 가정의 달, 호국보훈의 달 등 기획 상영회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시간에 쫓겨 미처 관람하지 못한 좋은 영화들을 상영해서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어린이 뿐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많이 찾는 도서관에서의 영화 상영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기획 상영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녘도서관과 제남도서관은 매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예술 테마가 있는 영화감상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선보여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컨벤션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에서도 각각의 기획 상영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중·단편 시나리오 공모전

지난해 6회째 (사)제주영상위원회가 시행한 제주로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중·단편 시나리오 공모전은 8월부터 전국 공모에 들어가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접수한 결과 모두 26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됐다. 제주의 다양한 이야깃거리들을 콘텐츠화하기 위해 시작된 공모전에 다양한 장르의 참신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한해였다고 판단된다. 공모전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표 7> 2012년 중·단편 시나리오 공모전 심사 결과

작품명	작가	결과
차귀도의 영웅, 돌봄이(물개)	김진성(경기도)	최우수상
사진	서진원(서울)	우수상
송당 본향당 가는길	김환수(광주)	가작
구리구리한 오후	이은주(경기)	가작
신의 바람 (神風)	강동범, 고유정, 고광범(제주)	가작

※ 출처 : (사)제주영상위원회

5. 영상관련 동아리 활동

1)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JEBS) 영상제

10회째 맞는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영상제는 디지털시대에 학생들의 창의력과 실험정신을 고취시켜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12년은 국립제주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하여 영상제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컸다. 특히 이 영상제의 작품 공모 주제는 '사랑 (愛)'인데 장르에 상관없이 10분 이내의 영상물로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2) '오리지널'- 고등학교 연합 동아리

'오리지널(회장 이민규, 오현고)'은 지난해 제주도내 5개 학교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영화 창작 연합동아리다. 이 동아리의 목적은 창작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과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제주도내 5개 학교 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도내외의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는가 하면 또한 같은 또래 학생들과의 영상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범적인 지역청소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제2회 29초 영화제에 회원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핫이슈」를 출품하여 입상하는가 하면 12월에는 제1회 오리지널 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6. 영화제 개최

1) 장애인인권영화제

제13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국내작품 12편과 해외작품 12편 모두 24편이 상영된 이번 영화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별도의 주제를 두지 않고 또한 형식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의 삶과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작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는 있다'라는 주제의 「不母에서 父母로(연출 반

다, 한국)」가 상영되었다. 그리고 영화제 폐막은 장애를 갖고 있는 4명의 연예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공하는 내용의 「내가 말하는 것을 봐(청각장애예능인, 미국)」가 대미를 장식했다.

2) 여성영화제

제13회 제주여성영화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제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회(위원장 안혜경) 주관으로 열린 여성영화제는 여성의 쾌락, 동성애, 이주여성 등을 소재로 다루었다. 여성영화제는 불편함의 경계로 내몰린 여성들의 이야기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손을 내밀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17개국, 31개 작품으로 구성되어 '익숙한 낯섦', '뜨거운 분출',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등 모두 다섯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관객들과 함께 했다. 특히 올해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토일렛」과 강희진, 한아름 감독의 「할망바다」 등 두 편이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선보였다.

제주여성영화제는 (사)제주여민회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3) 프랑스영화제

영화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지역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프랑스영화제(주최 : 제주프랑스영화제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회를 맞았다.

<표 8> 제3회 제주프랑스영화제 개요

명 칭	제3회 제주프랑스영화제
테 마	이미지의 울림
일 시	2012년 11월 2일~11월 4일
장 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 영화문화예술센터 /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주 최	제주프랑스영화제 집행위원회
내 용	총 16편 상영(파리36의 기적, 피아니스트를 쏴라, 코러스, 왕의 춤,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로슈포르의 연인들, 쇼팽의 푸른 노트, 세상의 모든 아침, 디바, 도깨비 불, 가면 속의 아리아, 시스터 스마일, 라비앙로즈, 프린스앤 프린세스, 꼬마 니꼴라)

4) 남원 꿈빛어린이영화제

어린이들의 발랄함과 재치가 묻어나는 작품은 서귀포시 관내에 위치한 남원초등학교의 꿈빛어린이영화제이다. 어린이들의 영상창작활동의 진원지이기도 한 남원초등학교는 매년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작품들을 모아 연말에 개최하는 영화제도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다.

남원읍 소재 초등학교의 이 소박한 행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제주의 대표적인 어린이 영화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12년 열린 5회 남원 꿈빛어린이영화제는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11월 9일 남원읍 제남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영화제에는 남원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화 22편과 애월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그리고 신광초등학교에서 각 5편 등 모두 27편의 영화를 선보여 평소 학생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영화잔상원리를 체험하는 코너와 영화포스터 소감쓰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동시에 열려 행사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7. 영화도시 가능성 확인 – 영화 창작활동에 불 지핀 「지슬」

과거서부터 제주는 변방이니 소외지역이니 하는 말들로 표현돼 왔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제주는 '낙후 지역'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영화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데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육지부)에서 내려오는 로케이션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소극성이 제주의 현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영화 한 편으로 그러한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니 바로 영화 「지슬」(연출 오멸)이다.

영화 「지슬」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연출을 맡은 오멸 감독이 근 10년 가까이 단편과 장편 그리고 실험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세계를 넘나들며 갈고 닦은 역량이 가장 큰 힘이었다.

故 김경률 감독의 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의 후속작이기도 한 「지슬」은 크랭크-인 당시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영화제작 기반이 취약한 제주에서의 촬영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고 한다. 열악한 장비는 물론 스텝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슬」은 2012년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과 시민평론가상, 한국영화감독조합상-감독상, CGV무비꼴라쥬상 등 4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Ⅲ. 나가며

1. 아쉬운 태왕사신기 세트장 철거 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 내 태왕사신기 세트장이 2012년 10월 철거됐다. 한류의 주역들이 출연한 드라마를 위한 세트장이어서 구축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터라 아쉬움은 매우 컸다. 제주에서 다시 한류의 점화를 기대하게 했던 계획은 세트들이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다. 관광산업의 동력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로서도 아쉬움은 매우 컸을 것이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했던 제주위미영상관광지구개발사업 역시 무산되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위미리 마을공동목장 부지 30만1,000㎡에 1,176억 원을 투입해 영상박물관, 종합촬영센터 등을 추진하기로 했던 계획이었다. 이 역시 2011년 11월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영상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 계획이 줄줄이 무산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사업 추진 결과로 볼 수도 있다.

2. 국제영상도시 제주도

청정한 환경과 이국적인 이미지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 등 제주가 가진 이 모든 조건은 제주를 국내 최고의 국제 관광지로 발전시켰고, 또한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매년 수십 편의 로케이션이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제주 로케이션에 따른 재정적 부담 또한 적지 않아 최근에는 이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적합한 자연환경 이외에 로케이션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프라 확보는 제주가 로케이션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영상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타 지역은 One Stop Service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영상산업이 관광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때 제주의 미래산업을 위한 관심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21세기 제주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겠다.

2013

JEJU CULTURE & ARTS YEARBOOK

편람

본 편람 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요청에 응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활동실적,
사진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및 제주도내
문화시설의 대관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작성하였으므로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 단행본

장르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동시	송상홍	다들 어디로 갔나요	아동문예
아동문학	강순복	끼꾀꼴 깡끈꿈	열림문화
아동문학	김영기	친구야, 올레로 올래?	아동문학세상
아동문학	김정희	오줌폭탄	제주사람들
소설	김태우	바다를 찾아 떠나는 돌	신진출판사
소설	김현자	슬이의 노래	청어
소설	현길언	꿈은 누가 꾸는가?!	물레
소설	홍창국	신을 빌린 남자	제주문화
수필	고연숙	노루의 눈물	심지
수필	김가영	타인이라는 거울	오름BOOK
수필	김길웅	검정에서 더는 없다	대한
수필	김여종	덤 인생	대한BOOKS
수필	양경렬	마음속의 삶	디딤돌
수필	이용언	내안에 한그루 나무가 자란다	대한BOOKS
수필	이정숙	내 안의 어처구니	수필과비평사
수필	정문길	사라진 페르시아 제국의 꿈	한솔미디어
수필	허경자	그 섬이고 싶었네	한국문화사
시	강원호	서귀포에는 불알이 없다	세림
시	고광자	천륜의 바다	등대지기
시	고광자	시가 있는 해송의 집	등대지기
시	고훈식	때로는 질퍽녀의 불끈 남처럼	국보
시	김경훈	강정은 4·3이다	각
시	김길웅	허공을 만지며 고등어를 굽다	대한
시	김문택	ᄒᆞ루라도 걸어봤으면	도우미출판사
시	김석교	카르마의 비	심지
시	김성수	눈으로 먹는 밥	모아드림
시	문희주	열리는 새날에	이담 북스
시	박동일	늦게 나온 달빛	㈜우리글
시	배진성	꿈 섬	리토피아
시	부상호	터무니 사랑	새미
시	이성준	설문대 할마님, 어떵 옵데가?	각
시	진창진	하이얀 슬픔을 방목하다	한국아카이브
시	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4월 꽃비	심지
시	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무너지지 않는 길이 되겠네	고두미
시	홍길원	꽃도 눕는구나	그림과책
시조	김정숙	나도바람꽃	동학사
시조	오영호	올레길 연가	고요아침
시조	장영춘	어떤 직유	동방기획

장르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기타	김순이 · 표성준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장르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기타	문희주	웃음의 미학과 놀이	이담 북스
기타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기타	오한일	옛 제주인의 샘	서울문화사
기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의 고문서	제주교육박물관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신화집	제주문화원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신화집 일본어판	제주문화원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전설집 2	제주문화원
평론	홍기돈	문학권력 논쟁, 이후	예옥
희곡	강용준	외할머니	연극과 인간

문학 문예지·동인지

장르	단체명	도서명
수필	글을사랑하는모임	징검다리 제5집
수필	녹담수필문학회	녹담수필 제11집
수필	백록수필문학회	백록수필 제11호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 제19집
수필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 제11집
시	고팡문학동인회	신촌가는 옛길 제2호
시	다층	다층 제53호~제56호
시	돌과바람동인	가을 연못에 빠진 낮달 제2집
시	작은詩앗 채송화	울음의 본적 제9호
시조	젊은시조문학회	시조갤러리 제19호~제30호
시조	정드리문학회	붉은발말똥게 제3호
아동문학	제주아동문학협회	세 친구의 무한도전 제31집
종합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제44호~제47호
종합	구좌문학회	동녘에 이는 바람 제7호
종합	귤림문학회	귤림문학 제21호
종합	동녘도서관	글따는 손 제5호
종합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서귀포문학 제23집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	제주문학 제56집~제57집
종합	㈔한국예총서귀포지회	서귀포예술지 제9호
종합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예총 제25집
종합	㈔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제주작가 제36호~제39호
종합	섬돌문학동인회	빈 가지에 흔들리다 제3호
종합	애월문학회	애월문학 제3회

장르	단체명	도서명
종합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1호
종합	제주도청문학동호회	섬마루문학 제2집
종합	제주문화포럼	문화와 현실 제15호
종합	제주펜클럽	문학의 섬 제주 무크지
종합	한림읍책읽는주부들의모임	트멍 제3호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문화 제18호

문학 등단

장르	성명	내용
수필	강관보	<월간 신문예> 9월호 신인상 당선작「뒈싸진 바당」
수필	강순희	<수필과 비평> 127호 신인상 당선작「뱀이 사는 집」
수필	김순희	<에세이 문학> 겨울호 당선작「동침」
수필	김양택	<수필과 비평> 126호 신인상 당선작「삶의 동반자」
수필	박수선	<국보문학> 8월호 신인상 당선작「막내 손자」
수필	부명숙	<에세이스트> 46호 신인상 당선작「선운사 범종소리」
수필	신상범	<수필시대> 1,2월호 신인상 당선작「글이 칼보다 무섭다」
수필	오은숙	<STORY 문학> 여름호 신인상 당선작「새벽길에서」
수필	현임종	<수필과 비평> 10월호 신인상 당선작「죽음에서의 탈출」
수필	홍은자	<수필과 비평> 8월호 신인상 당선작「원담의 추억」
시	김광춘	<대한문학> 봄호 신인문학상 당선작「춘정」등 5편
시	김대오	<문학광장> 신인문학상 당선작「빗방울 합창」외 3편
시	김신숙	<제주작가> 신인상「시간당 얼마의 과거」
시	김익수	<대한문학> 봄호 신인상 당선작「지금은 중창불사 중」등 5편
시	김종배	<문학세계> 9월호 신인문학상 당선작「섣달 초나흗날」등 5편
시	김종석	<한국불교문학> 가을 제27호 신인상 당선작「소똥구리와 자본시장」등 5편
시	김형주	<대한문학> 겨울호 신인문학상 당선작「제주예찬」등 3편
시	손창렬	<문학광장> 봄호 신인문학 운문부문 당선작「애벌레」등 3편
시	오유경	<월간 한국시> 7월호 당선작「벚꽃 안녕」등 3편
시	오중수	<대한문학> 가을호 신인문학상 당선작「지우며 길을 걷다」등 3편
시	이동빈	<모던포엠> 신인작품상 당선작「제주, 그 사랑의 빛이여」등 3편
시	한성국	<한올문학> 5월호 신인상 당선작「아내의 기도」등 3편
시조	강봉수	11월 중앙시조백일장 차하 당선작「숨비소리」
시조	서성금	<제주문학> 신인문학상 당선작「음용불가」
시조	현경희	<제주작가> 신인상「한라산 진달래꽃」
동화	부복정	<제주작가> 신인상 '제사상 차리는 아이', 2013년 불교신문 신춘문예「행복바이러스」
희곡	김종석	<한국불교문학> 여름 제26호 신인상 당선작「당신의 욕망은 안녕하십니까?」

문학 수상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강만구	제10회 한국문학신문 문학상 수필부문 대상	계황 굴욕사	한구문학신문
강미숙	제31회 스승의날 기념 공모전 글부문 일반부 대상	선생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김대오	문학광장 신인문학상	빗방울합창 · 모란꽃 · 수목원은클래식이야	문학광장
김용길	2012 한국시학상	윤회 등 5편	경기시인협회
김종석	한국불교문학 2012년 여름 제26호 신인상	당신의 욕망은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문학
김형주	대한문학 2012 겨울호 신인문학상	제주예찬 · 이별주 · 님의화상	대한문학작가회
문순자	제2회 서귀포문학상	조약돌의 노래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문지향	제51회 탐라문화제 제주어시낭송축제	제주어시낭송 초등부 최우수상	제주문인협회
문혁준	제20회 대산청소년문학상 동상	감귤꽃	대산청소년문학상
박여주	제32회 백록문학상 소설부문	그곳에 있었다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안재현	제32회 백록문학상 시부문	쌀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오승휴	대한문학상 수상	내 마음을 알거야	수필과비평사· 수필과 비평작가회의· 서귀포시
윤혜량	제31회 스승의날 기념 공모전 글부문 학생부 대상	선생님의 눈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정우· 김구환	제51회 탐라문화제 전도문학백일장	전도문학백일장 초등부·중고등부 최우수상	제주문인협회
한지이	제51회 탐라문화제 제주어문학백일장	제주어문학백일장 초등부 최우수상	제주문인협회
현경희	제주작가 신인상	한라산 진달래 꽃	㈔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현임종	수필과 비평 2012 10월호 신인상	죽음에서의 탈출	수필과비평사
홍은자	수필과 비평 2012 8월호 신인상	원담의 추억	수필과비평사

문학 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26	시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제주지회· 제주詩사랑회
02.25	제13회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작가의 산책길과 함께하는 '문학과 시민의 만남'	칠십리공원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3.24	이승헌 총장의 '세도나 스토리' 북콘서트 및 저자 사인회	제주상공회의소 5층	제주국학원
04.14~04.22	찾아가는 시 낭송 행사	제주희망원제주오일장	제주시사랑회
04.14	제9회 한수풀 동화축제	한수풀도서관	한수풀도서관 · 한수풀도서관책사랑모임
04.26	제주시시랑회 81~83번째 정기시낭송회	산지천 해상호	제주시사랑회
06.07~06.29	제주어와 함께하는 추억 이야기 원화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제주그램책연구회
07.05~07.11	동심으로 그린 그림책원화 이야기 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8.10	현경희 회원 시집 '고등어' 출판기념회	송악도서관	송악어머니독서회
08.11	김용택 시인 초청 강연 '다양성의 미학-삶을 되돌아보는 인문학의 시간들'	기당미술관	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08.25~08.26	수필과 비평 하계 수필대학 세미나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수필과비평사 · 수필과비평 작가회의 · 서귀포시
08.31~09.30	제51회 탐라문화제 문학제	이호테우해변 · 서귀포학생문화원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
09.01~09.06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시사전	이중섭창작스튜디오	현대문예제주작가회
09.15	도서관 책 잔치	한라도서관 야외광장	한라도서관
09.22	책 읽는 성산 2012 문학의 밤	성산일출도서관	성산일출도서관
09.24~11.20	2012 장애인을 위한 문학강좌	제주 가를로의집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
10.09~10.31	'우리말이 아파요' 사진 전시회	제주웰컴센터· 제주대 인문대학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10.19~10.28	2012 서귀포 바람전	새연교	섬돌문학동인
10.20~10.21	제6회 제주 책축제	신산공원	제주도교육청 · 제주중등 국어교육연구회 · 제주초등 국어교과교육연구회
10.29~12.09	제12회 제주문학상 및 제주신인문학상 시상	제주문학의집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
11.03	젊은시조문학회 '시조 낭송의 밤'	한라수목원 입구 비원식당	젊은시조문학회
11.16	2012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 센터 북카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6	2012 하반기 영주어문 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주어문학회
12.27~12.29	제주어詩 시화전 및 시낭송회	제주영상미디어 센터 갤러리	제주시사랑회

미술 도내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2~01.09	연갤러리 새해맞이 감동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1.04~01.09	섬에서 부는 바람 11번째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섬에서부는바람
01.04~01.09	한국화가 이숙희 세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이숙희
01.08~04.24	이중섭미술관 소장작품전 '자연과 생활, 아름다운 발견'	이중섭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01.10~01.16	김규승 · 권오준 2인전	연갤러리	김규승·권오준
01.13~01.20	현인갤러리 이율배 기획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1.14~01.21	젊은작가 모임 이음 세 번째 전시회	제주도문예회관	이음
01.27~02.05	현인갤러리 류삼렬 기획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1.29~02.03	김청길옹 제주 옹기 외길 50년 기념전	제주도문예회관	김청길
02.01~02.06	고윤정 첫 개인전 '관계의 방식-다중의 정체성'	제주도문예회관	고윤정
02.01~02.08	2012 새해맞이 감동소장전 2번째 장	연갤러리	연갤러리
02.01~02.26	박수영 작가 여섯번째 개인전 '오름-섬에 살다'	4·3평화기념관	박수영
02.04~03.05	노리 갤러리 기획초대전 한용진의 '벽돌 갈아 거울 만들기'	노리 갤러리	노리 갤러리
02.06~02.13	규방공예 김숙정 세번째 개인전 '오랜여행'	현인갤러리	김숙정
02.06~03.20	제주현대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작가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2.09~02.22	서양화가 이순자 초대 6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2.14~04.01	국립제주박물관 기획특별전 '꿈과 상상의 세계로'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2.15~02.21	고보형 작가 5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고보형
02.15~02.25	현인갤러리 김양순 기획초대전 '추상과 구상의...'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2.18~02.23	강은정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강은정
02.19~02.24	7인7색 바람이 불다 전	이중섭 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02.23~02.29	강문실 두번째 규방공예전 '동행'	연갤러리	강문실
02.23~03.18	찾아가는 미술관 작품전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02.25~03.03	판화가 홍진숙 열공갤러리 초대 작품전 '바람의 인연'	열공갤러리	열공갤러리
03.01~03.06	고용석 세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고용석
03.01~03.07	문애란 작가 개인전 '너는 동백꽃처럼...'	연갤러리	문애란
03.02~05.07	제주교육박물관 '한국의 탈' 특별전	제주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	제주교육박물관
03.07~05.06	해외미술 특별기획 '인도의 신화와 민화이야기' 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3.09~03.14	제주판화가협회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판화가협회
03.09~03.21	팡갤러리 김상숙 대표 소장전	연갤러리	김상숙
03.13~04.09	갤러리 노리 제주작가 김연숙 초대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3.18~03.23	제주현인갤러리 한종수 초대전 '마음의 여행'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3.20~03.25	서양화가 김인택 첫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김인택
03.21~06.10	제주도립미술관 봄 기획전 '상상의 나래를 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3.22~04.04	연갤러리 김성란 초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3.22~06.24	이승수 작가 제1회 초계청년미술상 수상 기념전	초계미술관	초계미술관
03.23~03.31	이수경 '검은 그림' 전	파랑갤러리	이수경
03.23~05.27	'가족의 탄생' 전시회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03.24~05.22	제주현대미술관 세계순회전 '생명의 기적'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3.26~03.31	크레파스화가 한중옥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한중옥
03.26~04.30	조영자 개인전 '추억속의 동백꽃'	갤러리카페 올리브	조영자
03.30~05.30	제주특별자치도립 소암기념관 특별기획 '문봉선, 서귀포 칠십리의 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4.01~04.30	변명선 첫 조형전 '해녀, 그 삶의 울타리' 전	곳간 쉼	변명선
04.02~04.10	2012 제주섬유예술가회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섬유예술가회
04.05~04.30	여성작가9인 기획초대전 '예술인의손(手)'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4.10~04.15	서양화가 김숙희 두번째 개인전 '소나무 이야기'	제주도문예회관	김숙희
04.12~04.20	아트그룹 N.A 연갤러리 기획초대전 '돌, 바람 그리고' 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아트그룹N.A
04.13~05.31	제주돌문화공원 특별기획전 '꿈꾸는 신화의 섬'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04.21~04.25	한국화가 김현숙 11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김현숙
04.21~04.30	연갤러리 소장작품전 '춤추는 봄의 왈츠'	연갤러리	연갤러리
04.24~05.11	도예가 강혜정 작가 여섯번째 개인전 '들꽃'	민속자연사박물관	강혜정
04.26~04.30	제16회 제주디자인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디자인협회
04.27~05.28	갤러리 노리 '말' 전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05.01~05.05	제주미협 71회 회원전 '작은 것이 아름답다-용기백배'	제주도문예회관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05.01~05.28	제주올레 간세인형 순회 전시회 '제주 바람 타고, 간세야 놀자' 전	레이지박스 카페	㈔제주올레
05.09~05.21	김광한 기획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5.11~05.15	제40회 제대 미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예술 디자인대학미술학부
05.11~05.15	동심결 첫번째 전시회 '설레임'	제주도문예회관	규방공예연구회 동심결
05.12~06.10	이왈종 판화전 '포옹'	이중섭미술관	이왈종
05.13~05.20	도예가 윤주철 기획초대전	세심재갤러리	세심재갤러리
05.16~05.22	재주대학교 개교 60주년 '한·중·일 국제미술교류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대학교
05.16~05.25	도예가 이종능 아홉번째 개인전 '제주에 나들이'	제주도문예회관	이종능
05.20~05.30	바.란. 그림전	문화곳간 시선	바람그림회
05.21~05.30	강영호 초대전 '탐라이야기'	연갤러리	연갤러리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23~05.27	'가족의 탄생'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26~06.01	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 14번째 회원전	이중섭스튜디오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05.26~07.03	제주현대미술관 '5월, 가정의 달 특별전'	제주현대미술관	안윤모·오승악이존립
05.26~09.16	개관 3주년 기념 특별 기획 초대전 '제주작가 3인3색의 제주 이야기'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30~06.10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문화대전 입상작 순회 전시회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 제주서부경찰서
06.01~06.06	강동언 제주대학교 교수 정년퇴임 기념 특별한 '어울림'	제주도문예회관	강동언
06.01~06.10	섬·여백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섬·여백회
06.01~08.26	와글와글 동물친구들 전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06.02~06.24	그래피티 인 제주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06.07~06.14	도예가 장근영 작가 세번째 개인전 '多馬'	연갤러리	장근영
06.08~06.30	기획전 'LINE : 이유정' 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6.12~06.18	제주우수청년작가초청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13~07.25	6월 기획전 '제주의 돌'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06.15~06.30	두번째 제주올레 간세순회전시회	문화카페 닐모리동동	㈔제주올레닐모리동동
06.22~06.28	김군호 첫 개인전 '연꽃'	연갤러리	김군호
06.22~09.30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3주년 기획전 '한라산과 일출봉'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6.22~10.03	한라산과 일출봉 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6.23~10.08	'제주풍경, 자연+사람' 전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6.24~06.28	제9회 제주수채화협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수채화협회
06.29~07.03	에뜨왈 서른 잔치 '이립, 길 위에 서다' 전	제주도문예회관	에뜨왈
07.01~07.04	백광익 28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백광익
07.01~07.25	김지혜 개인전	성안미술관	김지혜
07.03~07.09	강민석 조각가 열두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강민석
07.04~07.08	제11회 제주도예가회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예가회
07.04~07.31	갤러리라온 한국화가 금릉 김현철 초대전	갤러리 라온	라온프라이빗타운
07.07~08.28	한여름 특별기획 조성묵 조각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7.09~07.13	유종욱·강의길 2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유종욱·강의길
07.11~07.31	김보희 개인전 'TOWARDS'	갤러리카페 올리브	김보희
07.12~07.21	201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채화동아리 작품전시회 '물빛 수채화 제주이야기' 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7.14~07.19	송은실 첫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송은실
07.16~07.24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도지회 창립전	연갤러리	㈔한국전업미술가 협회제주도지회
07.19~07.24	제19회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청년작가전
07.21~07.31	현인갤러리 기획초대전 서경희 작가 '바다이야기'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23~07.31	아크릴동아리 작품전시회 '열정을 아크릴화에 담다' 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아크릴동아리
07.25~07.31	제21회 제주한국화협회 '제주의 삶 속에서' 전	연갤러리	제주한국화협회
07.26~08.05	제11회 연(緣)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연(緣)
07.29~08.12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미술전시회	성안미술관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07.31~10.28	국립제주박물관 인도네시아 특별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8.01~08.10	제5회 조영희 소장작품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8.01~09.02	조영남 그림전	갤러리 라온	라온프라이빗타운
08.04~08.08	규방공예 美 회원전 두번째 이야기	제주도문예회관	규방공예 美
08.04~08.10	제18회 이산 문재성 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8.04~08.31	2012 아트창고 레지던스작가 초대 '섬-그리움 임성호' 전	문화곳간갤러리 숨	임성호
08.05~08.31	김만수 화백 개인전 '지성이 꿈꾸는 아름다움'	갤러리카페 올리브	김만수
08.09~08.13	제6회 창작공동체 '우리' 전	제주도문예회관	창작공동체 우리
08.11~08.17	제2회 김애란 개인전	연갤러리	김애란
08.11~08.21	김계환·장경희 기획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8.12~08.17	제26회 산남전	이중섭스튜디오	산남회
08.18~08.24	신진 청년작가 기획전 '오문섭-열정적 흐름'	연갤러리	연갤러리
08.19~08.27	제1성지 천년고찰 법화사 연꽃축제 초대전 '강명순' 전	대한불교조계종 법화사	대한불교조계종 법화사
08.23~09.06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WCC) 기념전 '젊은 여성작가 5인' 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윤정·손현복·홍정민 ·양수희·김소라
08.25~08.31	현혜정 3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현혜정
08.27~09.04	와산도예 한홍곤 · 강희욱 도예전	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한홍곤·강희욱
08.30~10.31	박성진 교수 개인전	휘닉스아일랜드 파랑갤러리	박성진
08.31~09.06	김경훈 현인갤러리 기획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9.01~09.07	연갤러리 초대전 '현민자 개인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9.01~10.30	제주현대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9.02~11.30	제주도립미술관 '토닥토닥 전'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09.06~09.15	천연염색 탐라의 고운 빛깔 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전통천연염색 색채예술연구회
09.06~09.15	로천 김대규 화백 기획전 '한반도 금수강산' 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김대규
09.06~09.15	조영자 개인전 '세계가 제주를 LOVE하다'	오백장군갤러리	조영자
09.07~10.31	이중섭미술관 기획전 '생각의 지도, 마음의 저편' 전	이중섭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09.08~09.14	몽생이 양순자전 '제주 자연이 준 선물'	연갤러리	양순자
09.08~09.15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작은 그림전'	이중섭스튜디오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09~09.13	제22회 한우리전	제주도문예회관	한우리회
09.12~09.13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친환경 패션 전시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09.13~09.16	제56회 서귀포소묵회 정기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소묵회· 성산포문학회
09.15~09.21	들꽃수채화회 제3회 정기전	연갤러리	들꽃수채화회
09.18~10.18	KBS제주 청년작가기획전 '섬의 무게, 풍토의 시간'	제주돌문화공원 기획전시실	KBS 제주방송총국
09.22~09.28	제3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기획 '이은경' 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9.26~11.25	손으로 빚다 : 도예 전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09.28~10.02	미술동인 '제주의 표정전' 제14회 전시회	제주도문예회관	미술동인 제주의 표정전
09.28~10.03	제11회 제주대 한풀아름동문회전	신산갤러리	그림사랑 한풀아름동문회
10.04~10.25	시상작가회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 센터·시상작가회
10.04~10.28	삼달리 마을 레지던스 참여작가 2인전	문화곳간갤러리 쉼	노준진·이자연
10.05~10.11	고민철 개인전	연갤러리	고민철
10.05~10.11	김현순 첫 개인전 '보(ㅂ+아래아·)름구덕 속 이야기'	학생문화원	김현순
10.12~10.18	제10회 강술생 개인전 '역지사지'	성안미술관	강술생
10.13~10.18	제40회 한국여류화가협회 100호 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여류화가협회
10.14~10.19	제4회 예뜨루 회원 정기전	이중섭스튜디오	예뜨루
10.17~'13.01.27	link between 전	연갤러리	박미연 등 11명
10.17~'13.02.09	빛, 그림자 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9~10.25	이승진 개인전	연갤러리	이승진
10.19~10.25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가을기획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10.19~'13.03.31	이두원 전	고래가 될 카페	이두원
10.20~10.26	2012 제주만화작가회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만화작가회
10.21~10.26	제8회 양창부 수채화개인전	이중섭스튜디오	양창부
10.23~10.31	문창배 작품전	갤러리카페 올리브	문창배
10.26~10.31	제37회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졸업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예술 디자인대학 미술학부
10.26~11.01	제16회 오라쥬전 'Virtual Memory Ⅱ'	연갤러리	오라쥬(ORAGE)회
10.27~11.02	도예가 김치준 개인전	세심재갤러리	김치준
10.27~11.03	김연숙 작품전 '2012 거문오름으로부터'	열공갤러리	김연숙
10.29~11.02	제주시각디자인협회 제8회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시각디자인협회
10.29~11.17	제3회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지부 회원전 '팔방美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현대여성미협 제주지부
10.31~12.02	박성배 '무위자연' 전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01~12.31	변금윤 개인전 '낯선 순간의 목도'	파랑갤러리	변금윤
11.02~11.08	제10회 원미전	연갤러리	김소라김동원고윤정 ·고인자강태환
11.03~11.10	이옥문 다섯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이옥문
11.03~11.18	제3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1.03~12.01	이명복 첫 개인전	갤러리 노리	이명복
11.04~11.09	제2회 마주보기 동화그림회 원화전 '동화속으로 떠나는 그림여행'	이중섭스튜디오	마주보기동화그림회
11.07~11.11	전통문화 원형을 응용한 패션상품 개발 전시회	성안미술관	장애란·장현주
11.07~11.22	'청색회' 제주초청전	제주도문예회관	청색회
11.09~11.15	제15회 형전 '마음을 담다'	연갤러리	형전회
11.10~11.25	삼달3색 전	삼달리 마을레지던스공간	김동원·고용호 ·고윤전
11.12~11.16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졸업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11.16~11.22	제23회 2012 제주조각회 협회전	연갤러리	제주조각가협회
11.17~11.25	문화공간 제주아트 발전기금 마련 기획전 '아름다운 마음'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문화포럼
11.22~11.30	박조유의 우드워킹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박조유
11.23~11.28	일구구오회 '하루' 전	제주도문예회관	일구구오회
11.23~11.29	고권 개인전 '나는 섬이에요'	연갤러리	고권
11.23~'13.01.27	제주국립박물관 기획특별전 '올레길과 아름다운 도자기'	제주국립박물관	제주국립박물관·㈔제주올레
11.28~12.02	제15회 제주옹기문화연구회전 '사랑으로 숨쉬는 옹기'	제주도문예회관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28~'13.01.31	제주거주 청년작가 5인전 '길위의 희망'	이중섭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12.01~12.06	고석희 제1회 개인전 '시간이 지나는 자리, 현실과 허상 사이'	연갤러리	고석희
12.01~12.09	제21회 제주미술제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12.02~12.07	양미경 작가 두번째 그림전 '태고의 노래'	이중섭스튜디오	양미경
12.02~12.26	타계 15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2.06~12.26	양영심 작가 초대전 '길은 소통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07~12.13	이상열 작가 초대전 '마음의 창' 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2.08~'13.02.24	어린이미술학교 '다빈치 노트의 비밀을 풀다' 작품전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12.09~12.13	송재경 제4회 조각전	제주도문예회관	송재경
12.11~12.15	제주교도소 수형자들과 가정폭력피해여성, 무료요양시설 노인들의 미술작품전	신산갤러리	카라예술 심리상담센터
12.12~12.19	일본현대도자기전	제주도립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일본영사관
12.13~12.20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문화포럼
12.14~12.18	동화그림 작품전시회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14~12.20	이혜원 포슬린아트전	연갤러리	이혜원
12.17~'13.02.28	김영철 작가 '제주 사이' 전	오백장군갤러리	김영철
12.20~'13.01.13	제주그림책연구회 제9회 원화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제주그림책연구회
12.21~12.28	강부언 작가 '삼무일기-바람의 흔적' 전	연갤러리	강부언
12.22~'13.01.29	제주현대미술관 송년특별기획 '여성작가' 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2.22~'13.06.16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 순환전 '해녀, 차돌이 어멍' 전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기념관	제주도립미술관
12.24~12.27	예인회 창립전 '제주 환경미술에 바람을 타고'	제주도문예회관	예인회
12.25~'13.03.17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전 '펼쳐 보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12.29~'13.01.03	현덕식 작가 '유시도' 전	제주도문예회관	현덕식
12.29~'13.01.05	김연실 작가 '아~제주!' 전	연갤러리	김연실

미술 도외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01~02.07	섬·여백 특별전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	섬·여백회
02.22~02.28	강영호 화백 18번째 개인전 '탐라이야기'	하나아트갤러리	하나아트갤러리
02.27~03.02	정용성 작가 '손님' 주제 여섯번째 개인전	서울 관훈동 나무화랑	정용성
03.27~04.02	김순겸 화백 12번째 개인전 '기억너머-물상'	시흥시 대야복지관 전시실	김순겸
03.27~04.03	제40회 한국여류화가협회 100호 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한국여류화가협회
03.28~04.03	제6회 2012 코리아 아트 스페셜 페스티벌 초대전 하석홍 작가 참가	서울 인사아트센터	월간미술세계 · 제6회 KOAS 운영위원회
04.04~04.10	김순겸 화백 12번째 개인전 '기억너머-물상'	단성갤러리	김순겸
04.19~04.23	도예가 오창윤 10번째 개인전 '제주 흙, 돌, 불, 그리고 숨...' 전	서울 갤러리 담	오창윤
05.03~05.17	장은철 작가 '봄날의 왈츠' 초대전	광주 자미갤러리	자미갤러리
05.09~05.22	판화가 강승희 기획초대전	노암갤러리 · 미술공간 현	노암갤러리 · 미술공간 현(現)
05.20~05.28	장은철 작가 '실상사의 봄바람' 초대전	남원시 실상사	남원시 실상사
05.23~06.29	루이스 부르주아 개인전 'PERSONAGES'	서울 국제갤러리	루이스 부르주아
06.20~06.26	제24회 한국화동질성 '천년의 빛' 전	강릉미술관	한국동질성화한국동질성운영위원회
07.02~07.18	제주-전북 조각회 두번째 교류전	휘목미술관	제주조각가협회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04~07.09	박정민 화가 개인전 '그림이 시가 되다'	서울 인사아트센터	박정민
07.20~07.26	김지혜 개인전 '마음 속 어딘가'	서울 갤러리이즈	김지혜
08.13~08.19	2012 부산판화가협회-제주판화가협회 교류전	부산시청 전시실	부산판화가협회 ·제주판화가협회
10.04~10.08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교수작품전 '2012 백록담전'	부산 미광화랑	제주대학교 예술 디자인대학 미술학부
12.12~'13.02.17	문봉선 작가 '독야청청-천세를 보다' 전	서울미술관	문봉선

미술 해외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소	국가	주최 및 주관
03.09~03.11	하석홍 작가 국제현대미술제 파운틴 버지 아트페어 참가	뉴욕	미국	파운틴 버지 아트페어
03.16~03.18	장은철 작가 이탈리아 볼자노비엔날레 참가	볼자노	이탈리아	볼자노비엔날레
08.07~08.12	제주특별자치도 · 오키나와 미술가연맹 합동교류전	오키나와현립 미술관 현민갤러리	일본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오키나와현미술가연맹
09.20~09.23	양경식 작가 비엔나국제아트페어(Vienna International Art Fair) 참가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아트페어
10.20~10.28	이미선 제6회 개인전	북경쑹장예술구(songzhuang art zone shidong gallery)	중국	이미선
11.15~11.18	장은철 작가 싱가포르 어포더블 아트페어 2012 참가	싱가포르 F1 Fit Building	싱가포르	어포더블 아트페어

미술 수상

일자	장르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08.29	회화	정혜윤	아시아청년미술제 회화 부문 대상	동심	아시아프(ASYAAF)프라이즈
07.20	한국화	현덕식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	유시도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07.20	서양화	변세희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대상	Persona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09.20	공예	한오경	제42회 대한민국공예품공모대전 개인상 부문 대통령상	혼수함	중소기업청·한국공예 협동조합연합회
09.20	공예	현병묵·신재현	제42회 대한민국공예품공모대전 개인상 부문 국무총리상	제주살레·붉은 라인찻잔세트	중소기업청·한국공예 협동조합연합회

미술 행사

일자	장르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05	종합	2012 어린이날 행사 '상상놀이터'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8.11	종합	조영남 그림전 작가와의 만남	라온프라이빗타운	라온프라이빗타운
09.12	염색	천연염색 포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09.21	포스터	'아이러브 제주' 초등학생 포스터 공모전	제주은행 본점	제주은행
10.27	종합	제3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4.13~07.25	종합	체험 프로그램 '현대미술과 풀어낸 돌문화'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07.07~08.25	종합	'와글와글 동물친구들'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7.16~07.18	만화	제2회 '2012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위클리공감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09.11~09.13	종합	2012 탐라국제아트캠프	이호해변 캠핑장	탐라대전추진위원회
09.19~12.28	미술이론	미술의 이해와 감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1.05~11.09	종합	2012 거리예술제	연동 바오젠거리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11.07~11.30	종합	제주도립미술관 강좌 '미술의 이해와 감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서예 도내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15~01.19	제6회 탐라서예문화회전	제주도문예회관	탐라서예문화회
01.16~01.21	제주서예문인화 작가 100인 초대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예문인화 총연합회
01.21~01.27	제주도미술대전 서귀포서예초대작가전	이중섭창작 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서예초대작가회
01.25~01.28	한·중 국제교류전시작품 제주전시회	제주도문예회관	㈔삼다연서학회
02.11~02.14	2012 제주·광주서예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삼다연서학회 ·광주취묵회
02.15~02.19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제주작가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작가협회
02.20	한연회 12번째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한연회
02.24~02.29	봄꽃 머물다 전	제주도문예회관	김미숙·김순자 ·좌경신·홍희숙
03.15~07.17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18번째 회원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고'	제주도문예회관· 먹글이있는집	㈔제주도한글 서예사랑모임
03.19~03.24	법산스님 서각행전	제주도문예회관	법산스님
04.01~04.05	제2회 우현서각전	제주도문예회관	우현서각회
04.04~04.10	제4회 동심묵연전	제주도문예회관	동심묵연회
04.12~04.30	소암기념관 지역작가 초대전 '적중풍동(寂中風動)'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4.24~04.30	제29회 상묵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상묵회
05.04~05.10	이웃과 함께하는 서예전	제주교도소	한연회
05.06~05.10	제주소묵회 41번째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소묵회
05.14~05.31	전통과 현대 서각의 만남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탐라서각연구회
05.17~05.20	영주연묵회 55번째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영주연묵회
05.26~05.31	제주·전북서예협회 회원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7~06.11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06.24~06.28	해정 박태준 선생 11번째 추모전	제주도문예회관	정연회
07.05~07.09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서예학회
07.10~07.13	서석각자회 제4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서석각자회
07.15~07.30	제5회 경서대회 수상작품 전시회	소암기념관	소암현중화기념사업회㈔
07.20~07.24	제평서각회 제5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평서각회
07.21~08.31	제주·청주한마음한글서예전	먹 글이 있는 집	청주해동연서회· 제주한묵회
07.25~07.29	제8회 탐라서각연구회 '전통과 서각의 만남전'	제주도문예회관	탐라서각연구회
07.30~08.03	제19회 제주도서예대전입상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서예협회제주도지회
08.15~08.19	한국서각협회제주도지회 8번째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서각협회제주도지회
09.07~09.10	2012 한·중장애인서화교류전	제주학생문화원	㈔삼다연서학회
09.07~09.30	연,마쓰모토호스이·소암현중화-일본서해사 제주방문교류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10	서화예술작품 길거리 깃발전	용담동 레포츠공원	㈔대한서화예술협회 제주지회
09.13~09.16	제56회 서귀포소묵회전	서귀포시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소묵회
09.18~09.22	제7회 한묵회서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묵회
09.21~09.24	서귀포 서예전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서예가협회
09.23~09.27	박민자 제1회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박민자
09.28~10.02	제23회 제주도서예가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서예가협회
10.03~10.07	제10회 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문인화협회제주지회
10.07	제12회 전국추사서예대전	보성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서예협회
10.08~10.12	한글사랑서예대전 입상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10.19~10.21	제5회 신장장애인 '가슴으로 새긴 서각작품전시회'	서귀포학생문화원	신장협회서귀포지부
10.19~10.23	제주문인화연구회 제7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문인화연구회
10.22~10.28	제10회 삼무서회전	소암기념관	삼무서회
11.04~11.07	한국서도협회제주도지회 창립전	제주학생문화원	㈔한국서도협회제주도지회
11.10	2012 세종한글서예 한마음잔치	규당미술관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11.10~12.18	제주현대미술관개관5주년기념특별기획 현대서예전-한태상·양상철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1.11~11.16	현민식 선생 팔순전 '법고창신 60년'	제주도문예회관	현민식
12.02~12.26	제15주기 소암 현중화선생 추모전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12.03~12.08	소정 김선영 서예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김선영
12.06~12.07	2012 서예교실 작품전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
12.08~12.13	제주·전남필묵도흔상생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전각학연구회 · 전남여우회
12.10~12.13	제12회 서예작품 전시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2.24~12.28	소전 오창림 서예전	제주도문예회관	오창림
12.29~'13.01.02	백록예문회 제4회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백록예문회

서예 도외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6.01~06.07	제3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한국미술협회
08.29~09.04	결곶 김명희전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한국한글서예 정예작가초대전
10.08~10.12	한천 양상철 서예초대전 '선사의 향기'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12.03~12.23	임진메아리전	제주도문예회관, 여수시문화예술회관	김구해

서예 해외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소	국가	주최 및 주관
04.24~04.27	2012한·중서화국제교류전	서안시 군중예술관	중국	㈔삼다연서학회
08.23~08.27	대만·제주국제서화교류전	기륭시 문화센터	대만	제주도서예학회·대만중화민국서학회

서예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명	주최 및 주관
04.08	고은수	제18회 대한민국전서예대전 삼체상 한문부문	㈔대한민국서예가연합회
04.08	이상자 외 8명	제18회 대한민국전서예대전 특선	㈔대한민국서예가연합회
06.01	김인순	제3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글부문	한국미술협회
06.01	김성훈·김예춘·고영대	제3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문부문	한국미술협회
06.09	김혜정	제7회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전 작가상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06.09	문기선	제7회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전 원로작가상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07.20	강경화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03	성정자	제22회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서예분야 대상	㈜한국장애인개발원
08.20	고영대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09	양문중	제11회 한글사랑서예대전 대상 '한글 으뜸상'	㈔한글서예사랑모임
10.09	오정숙	제11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최우수상 '세종상'	㈔한글서예사랑모임

서예 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03~02.04	입춘첩 써 주기 행사	제주민속촌 낙화혁필 공예방	제주민속촌
06.09	제3회 제주서예문인화의 날	하니관광호텔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07.25	제6회 소암 현중화 기념 전국대학생경서대회	소암기념관	소암현주화기념사업회㈔
12.19~12.23	제11회 한라서예전람회 공모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서가협회제주지회

사진 종합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4~01.09	섬에서 부는 바람 11번째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섬에서 부는 바람
01.25~01.31	제주대학교 사진동아리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사진동아리회
02.01~06.30	'하늘 아래 제주' 전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서경리
02.04~02.10	김상부 8번째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김상부
02.12~02.17	제주사진교실 3번째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사진교실
03.02~03.07	일본풍경 사진전 '일상의 숨결을 느끼며'	제주도문예회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한일친선협회
03.08~03.18	'동일본대지진 복구사진전'	제주학생문화원	주제주일본국 총영사관
03.25~03.30	제주수중사진연구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수중사진연구회
03.30~04.30	사진기획전 '4·3 그 아픔과 기억'	탐라사진가협의회	탐라사진가협의회
04.04~04.20	'기억속의 제주 포구' 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04.16~04.20	제21회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04.24~05.22	매그넘 세계순회사진전 '생명의 기적'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5.04~06.05	김병국 6번째 개인전	문화곳간 시선, 곳간 쉼	김병국
05.06~05.10	포스나인 제5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포스나인
05.07~05.13	가족과 함께 하는 기상사진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지방기상청
05.21~05.25	제주영상동인 34번째 기획 주제전 '제주 돌담'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영상동인
06.15~06.21	이병철 두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제주불교신문
06.19~06.23	제주도치과의사사진동우회 파노라마 창립전	제주도문예회관	사진동우회 파노라마
06.19~06.30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나다' 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생태사진연구회
07.14	국제환경사진문화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환경사진 연합회
07.31~10.28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 특별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8.01~09.30	'4·3 기억과 현재' 사진전	4·3평화기념관	4·3평화재단
08.04~08.09	일본풍경 사진전	이중섭미술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한일친선협회
08.10~08.14	오름사진연구회 제20회 전시회 '오름이야기'	제주도문예회관	오름사진연구회
08.13~12.31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개관 10주년전 '바람'	두모악미술관	김영갑갤러리
08.14~08.19	딥블루 수중사진클럽 전시회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딥블루포토클럽
08.16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 기념 '국제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08.20~10.21	'좀녀, 사라져가는 해녀 10년의 기록'	해녀박물관	김흥구
09.10~09.15	'생명의 신비, 한국의 야생란' 사진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생태사진연구회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19~09.22	제주의 사계 자연풍광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풍경사진가회
09.24~09.28	제주기독사진가협회 창립전시회	제주학생문화원	제주기독사진가협회
09.25~10.05	김완수 작가 '북극점 사진전'	제주도청 1층 로비	제주특별자치도
10.08~12.31	개교60주년 기념 '기록, 만농이 바라본 섬 제주' 전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
10.09~10.30	이다슬 개인전 'Nothing in the intervals between rain'	갤러리 노리	이다슬
10.16~10.25	박훈일 6번째 개인전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박훈일
10.22~12.31	제주마연구소 장덕지 소장 사진전 '조랑말을 담다'	조랑말박물관	조랑말박물관
10.27	사진 워크숍 '다큐멘터리, 그 힘 있는 이야기'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커뮤니케이션
10.28~11.02	강길순 개인전 '길 위에 쓰다'	이중섭스튜디오	강길순
11.01~ 2013.02.16	'초가는, 바로 제주의 아이콘입니다'	대동호텔 비아아트	비아아트
11.06~11.10	제3회 권기갑 개인전 '생명과 신화의 섬, 삼다도'	제주도문예회관	권기갑
11.09~11.11	민속사진연구회 회원전	신산갤러리	제주민속사진연구회
11.29~12.02	한라사우회 제38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한라사우회
12.06~12.14	오름사진전 '사진은 말(言)이며 시(詩)다'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12.14~12.18	제주카메라클럽 제71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카메라클럽
12.26~12.31	구도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전	북카페 각	㈔탐라사진가협의회

사진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07.20	김재준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기도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진 발간

일자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02.05	김상부	사진으로 보는 제주 야생화	도서출판 늘

건축 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6.01~06.24	3·11동일본대지진 이후의 건축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일본국제교류기금
08.20~08.24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 건축부문 입상작 전시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09.17~09.23	2012 6대광역시 및 제주도 건축교류전	제주학생문화원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한국건축가협회제주건축가회
12.14~12.18	2012 대한민국건축대전 제주순회전 및 회원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건축가협회제주건축가회

건축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작	수상명
06.14	가우건축사무소·토펙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귀포다목적체육관	서귀포다목적체육관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당선
08.10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국내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 선정
08.20	한승지·김은실	RECYCLE-버려진 성곽의 재발견	제38회 제주도미술대전 건축부문 대상
10.05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프로젝트	2012년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대상
10.23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본사 사옥 '다음 스페이스닷원'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민간부분 대상
10.25	문석준	제주도 민간보육시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11.26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화역사공원 내 항공우주박물관	2012년도 VE경진대회 공공발주청 부문 건축분야

건축 행사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12~07.16	2012 KDAI BIM CAMP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08.11	제1차 건축문화답사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대한건축학회제주지회
09.09	제주 세계환경수도 모델도시 조성 및 평가인증시스템 구축방안 워크숍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세계자연보전총회
10.07	2012 제주건축문화축제	한라아트홀	대한건축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한국건축가협회제주 지회·대한건축학회제주지회
10.20	제1회 카사 델 아구아 살리기 시민문화제 '바람의 언덕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문화연대·주한멕시코모임
10.31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 및 정책발굴을 위한 유관단체 합동 워크숍	제주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11.1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토론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11.24	제2회 카사 델 아구아 살리기 시민문화제 '제주 물의 집에 희망을 담다'	서울 홍익대 앞 걷고싶은거리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문화연대·주한멕시코모임
11.28	강예린·이치훈 건축가 초청강연	달리도서관	달리도서관
12.16	신창범 초청 강연 '제주 시골 담벼락 꽃'	대동호텔 비아아트	대동호텔 비아아트
12.28	제3회 카사 델 아구아 살리기 시민문화제	더갤러리카사델아 구아제주벤처마루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문화연대·주한멕시코모임
11.28~12.02	GST 2012 추계국제학술대회	제주그랜드호텔	한국산학기술학회·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국악 전통공연

일자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4	2012 신년맞이 허튼굿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01.28	김덕수와 함께 여는 행복한 사물놀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2.04	2012 임진년 탐라국입춘굿놀이 본굿	제주목 관아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02.17~02.19	국악뮤지컬 '팥죽 할매와 바보 호랑이'	제주도문예회관	극단 가람
03.07	섬 소도리 두번째 마당 '제주의 봄, 여인, 삶'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04.04	섬 소도리 세번째 마당, 4월 허튼굿 '서로 합치어 통하다, 화창한 봄'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04.14	2012 봄을 여는 등대 음악회	우도 등대입구 잔디광장	여성민요그룹 아리수
04.21~04.22	놀이패한라산 마흔번째 4·3마당판 '사월굿산호수놀이'	강정마을	놀이패 한라산
05.02~05.23	2012 신명을 전하는 사랑방 유랑광대	성이시돌요양원 등	㈜노리안마로
05.04~05.05	섬을 노래하는 금빛 나팔소리	이도초등학교가파도	한국관악협회제주도지부
06.01	제5회 한라예술단 정기공연 '나려 나려 고웁게 나려'	제주도문예회관	한라예술단
06.01~06.22	가족소리판굿 '할망 할망 설문대할망'	표선·대흘초등학교	민요패소리왓
06.06	섬 소도리 네번째 마당 '단오'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06.06~08.26	일요상설 국악콘서트	한라수목원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06.13	한국전통뮤지컬 '미소'	김정문화회관	정동극장팀
06.23	토요박물관 산책 '김덕수의 사물놀이 한마당'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7.01	노리안 마로의 '허튼굿'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07.01~08.19	연물굿 초공풀이 '제주의 뮤즈를 만나다'	국립제주박물관	풍물굿패신나락 ·국립제주박물관
07.04	섬 소도리 여섯번째 마당 '세계를 향해 쏴라, 너에게 간다. 나에게 오라'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07.12~07.13	삼승할망 꽃놀래	제주도문예회관	민요패소리왓
07.14	빌레앙상블 퓨전국악콘서트 '바람의 섬'	제주아트센터	빌레앙상블
07.20	퓨전 마당극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	함덕중학교 체육관	㈔한국문화공동체BOK
07.21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8.10~08.12	제6회 4·3 평화인권마당극제	제주도문예회관	놀이패한라산4·3평화재단
08.10~08.13	노리안 마로의 '얼씨구 학당'	김정문화회관	㈜노리안마로
08.25, 10.11	'After 파라다이스-이어도'	김정문화회관	㈜노리안마로
08.25~08.26	소리로 일구는 큰 신명	제주도문예회관	민요패소리왓
08.26	제주 굿놀이 레퍼토리 창작 마당굿 공연	제주영상문화 예술센터	놀이패 한라산
09.05	섬 소도리 여덟번째 마당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가배'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09.22	제주신화의 예술 '푸다시'	김정문화회관	㈜노리안마로
09.26~10.20	신나는 예술여행 '육지 유랑길'	전남·충북·경기· 경남·전북·서울	㈜노리안마로

일자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03	허튼굿 섬 소도리 아홉번째 마당 '푸다시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10.06	경상북도립국악단의 신나는 국악한마당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10.12~10.13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 기념 국악 대공연	김정문화회관	㈔로천예악진흥협회
10.21	제29회 전국 민요 경창대회	제주도문예회관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10.23	네번째 소연 신은숙 대금 연주회	제주도문예회관	신은숙
10.27	전통국악 실내악단 탐라악회 첫 연주회	아라뮤즈홀	탐라악회
10.28	이생강류 이광훈 대금 연주회	제주도문예회관	이광훈
11.06	경북도립국악단과 신나는 국악한마당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11.10~11.18	풍물굿패 신나락 '연물굿 신불휘'	다올노인복지센터 등 4곳	풍물굿패 신나락
11.17	제주택견전통문화예술원 정기연주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택견전통문화예술원
11.24~11.25	가족소리판굿 '운명을 아는 아이, 오늘이'	제주도문예회관	민요패 소리왓
12.01	라온프라이빗타운 개관 1주년 기념 명창 안숙선 제주공연	라온 호텔&리조트	라온레저개발㈜
12.05	섬 소도리 열한번째 마당 '따뜻한 연말 풍경'	제주도문예회관	㈜노리안마로
12.08	2012 우리마을 이야기와 함께하는 소리극 여행 - 명월리 '구슬 먹은 명의 진좌수'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아동국악협회 제주지부
12.08	제3회 제주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제주도문예회관	제주국악관현악단
12.13	제주 큰굿 재현행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2.24	국악의 꽃, 판소리 한마당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	㈔한국판소리보존회제주지부
12.26	불도맞이 굿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국악 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31~08.11	'함께 즐기며 배우는 박물관 학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09.15	제19회 정의골 민속 한마당축제	성읍민속마을	표선면성읍1리마을회·㈔성읍민속마을보존회
11.07	제주대문화광장 '전통성악의 멋' 강연	아라뮤즈홀	제주대문화광장

국악 발간

일자	장르	제목	지은이	출판사
03.15	민요	제주도민요전집	진성기	디딤돌

양악 종합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7	비데스 주니어 다문화 콘서트 '이음'	서귀포성당	신성여고 국제자원봉사동아리 VIDES Jr
01.13	제주빅밴드 색소폰 사랑나눔회 제2회 정기연주회	더호텔 연회장	제주빅밴드 색소폰 사랑나눔회
01.13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예술단 2012 신년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예술단
01.27	2012 KBS제주 시청자대음악회 I -드라마콘서트 '천변살롱'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1.28	팝페라 미니콘서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2.02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2.04	유포릭사운드	카페세바	카페 세바
02.09	제주CBS 창립 11주년 기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 CBS
02.11	금난새와 함께하는 불턱 음악회	해녀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02.11	홍순달 퀸렛, 재즈보컬리스트 박라온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2.14	몽당연필 소풍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몽당연필전국투어콘서트기획단·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02.15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음악회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02.16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9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2.17	'신기루' 콘서트	간드락 소극장	간드락 소극장
02.20~02.22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합창단 초청 '2012 희망의 메아리 연주회'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김정문화회관·제주성안교회	월드비전 제주지부
02.23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하늘다래 첫번째 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2.25	태고가릉빈가합창단 제6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불교태고종제주교구
02.25	찾아가는 오카리나연주회	삼성혈 숭보당	제주오카리나협회
02.28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2012년 신춘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2.29	김인규 교수 정년퇴임 음악회	제주그랜드호텔 컨벤션홀	김인규
03.03	청춘시대(靑春時代)	제주아트센터	한국재난구호·㈜쇼비즈엔터코리아
03.07	제주대문화광장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3.10	제주윈드오케스트라 Jack Stamp 작품세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윈드오케스트라
03.10	제3회 이정석과 함께하는 드림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3.11	제주청소년플루트 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03.17	한라윈드앙상블 제5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3.17	다마키 나미 콘서트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재)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PROMIC)
03.23	'Sounds from Beneath' 재상영	아트스페이스 씨	아트스페이스 씨
03.24	'락(樂), 인디가 흐르는 아름다운 만남'	간드락 소극장	간드락 소극장
03.26	2012 KBS제주 시청자 음악회 첼리스트 김아영의 'Yellow Spring'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3.27	제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피아노 동문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03.31	선우정아 Muchachos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3.31	제주색소폰앙상블 제3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색소폰앙상블
04.05	제주특별자치도립합창단의 하늘다래 음악회 두번째 이야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4.12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제9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4.14	10cm의 작은음악회	국립제주박물관 야외광장	국립제주박물관
04.19	루마니아 바나튤오케스트라 초청 장애인 사랑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예원오페라단·제주베데스다선교회
04.21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한마당'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밀레색소폰앙상블·드림뮤직
04.21	April in SEBA '박근쌀롱'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4.21	2012 유채꽃 향기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제주시 별도봉 마을 곤을동	화북동주민센터·화북동주민자치위
04.22	문화예술봉사단체 '제주풍경' 창단 콘서트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소극장	제주풍경
04.24	제주아르페지오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아르페지오
04.25	KBS제주방송총국 시청자 음악회 '드미트리 고딘의 피아노 리사이틀 매직'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4.26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전국순회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수원시·수원시립교향악단·수원시립예술단
04.27	여성이 행복한 재즈 라이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4.27	소리어울림 청소년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리어울림 청소년오케스트라
04.28	봄의 소리! 룰루랄라 음악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4.30	제5회 제주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장로합창단
05.07~05.08	2012 탐모라 불빛 축제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05.08~05.19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제주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05.09	가족사랑 음악회	김정문화회관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05.12	2012 제주공항 작은 음악회	제주국제공항 3층 중앙홀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화제주세관
05.14	제주영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 '예수'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영락교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15	제26회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05.17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제45회 정기연주회	김정문화회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05.18~05.20	GET!(Great Escape Tour)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바람
05.24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2012 청소년 협주곡의 밤'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5.25	제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그랜드 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5.26	음악사랑 온새미 신곡발표 겸한 노래 봉사	효사랑·혜주원	음악사랑 온새미
05.26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콘서트 '얌모얌모'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5.26	진 스트링스 앙상블 창단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진 스트링스 앙상블
05.29	2012 특별연주회 '아름다운 동행'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5.31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제7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6.02	즐겁고 행복한 흙피리 연주회	제주시중앙지하 상가 랑데뷰홀	제주오카리나문화원
06.07	제주앙상블 준 제1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앙상블 준
06.08	제주 YMCA 유스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06.08	통기타 가수 김영헌 두번째 앨범 쇼케이스	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대한가수협회제주지회
06.09~06.30	4 Colors in Seba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6.11~06.14	제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해비치호텔 &리조트 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06.13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서귀포합창단 공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문화광장
06.14	입원환자를 위한 음악공연	제주의료원	제주시 은빛나래 실버밴드
06.14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제9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6.15	2012 아리랑라디오 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리랑라디오
06.16	용연선상음악회	제주시 용연계곡	제주시
06.21	2012 해설이 있는 콘서트 '카르멘'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6.24	제10회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늘푸른음악회후원회
06.28~09.10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찾아가는 연주회	물메초등학교 외	제주예술단
06.30	제주국악관현악단 2012 정기연주회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	제주국악관현악단
07.05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 총회 성공기원 특별공연 '그린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7.06	쉽게 배우는 실내악 여행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준
07.07	재즈 보컬리스트 이부영 meets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카페 세바	카페 세바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08	Han's Qurtet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11	2012 조은퓨전앙상블과 함께하는 추억의 대중음악	추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추자중학교
07.12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하늘다래 세번째이야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07.13~08.03	숲 속의 작은 음악회	절물자연휴양림 야외무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7.14~07.15	이미혜 첫 앨범 발간콘서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15	임태경 콘서트	제주그랜드호텔 컨벤션홀	제주그랜드호텔
07.19	제주시청합창단 창단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
07.20~07.22	GET in JEJU(Great Escape Tour in JEJU) 'GET 라이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바람
07.21	통통클래식 승효상 건축가 '음악, 건축과 통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07.21~07.22	TripletS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28	델리스파이스 초청 공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8.01~08.03	2012 코리아 풀문 페스티벌	협재·금능해변	한림읍·㈜씨포스트 제주·㈜상상공장
08.02~08.04	예술영재교육원 하계영재캠프 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예술영재교육원
08.03~08.04	버벌진트 & 브로콜리너마저 Summer Concert in Jeju	제주아트센터	화니컴퍼니·티켓포유
08.04	제주어시와 노래 랄랄라	삼양검은모래해변	음악사랑 온새미
08.07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8.10~08.18	제17회 국제관악제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08.13	가와노 마리나 제주콘서트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소극장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재)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PROMIC)
08.24	아리랑 라디오 K-POP 콘서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아리랑라디오
08.25	이상은, 영혼을 향한 여행	국립제주박물관 야외정원	국립제주박물관
08.25	제1회 이매진 어워드 뮤직페스트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서귀포시·제주뮤직위크추진위원회·제주뮤직위크추진위원회
08.25	써니킴 재즈 트리오 공연 '화가의 눈'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8.27	제1회 우란분재 음악대향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관음사
08.29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제주대학교 오케스트라 초청 행사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 문화광장
08.30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08.31	2012 제주장애인 뮤직페스티벌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 강당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09.01	구좌읍 어린이 합창단 창단공연	구좌읍주민자치센터	하도·종달·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01	해군군악대 현대미술관 5주년 기념 공연	제주현대미술관 야외공연장	해군본부
09.02	프로젝트 'SOLOISTS'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THE 1ST : Trios
09.07~09.09	2012 힐링뮤직페스티벌	제주돌문화공원 특설무대	실버트레인·㈜피엔피
09.08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09.09	책 읽어주는 세바음악회 '이종혁재즈밴드 재즈의 초상, 무라카미 하루키'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9.10	제주영락교회 임마누엘합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가을 향기 은혜 향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영락교회 임마누엘중창단
09.13	세종국악관현악단 '소리로 통한다'	제주시 노형동 으뜸마을	세종국악관현악단
09.14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모던아츠
09.15	뉴마트리오 자선 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뉴마트리오
09.15	제17회 추억의 팝스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09.22	2012제주자청비데이 프린지페스티벌 향연-산지천의 가을(시극 및 콘서트)	제주시 산지천	㈔제주민속예술인총연합2012제주자청비데이 프린지페스티벌위원회
09.22	비류직하천지연	서귀포 천지연 야외무대	아프로코리안
09.23	책 읽어주는 세바음악회 '클라란슈만, 네 손의 인생'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9.24	개교기념 오현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현고등학교
09.26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합창단
09.27	제주특별자치도립합창단 제7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합창단
10.06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회관 대극장	제주나눔오케스트라
10.06	자작나무 숲 통통 클래식 콘서트 공연 '음악, 과학과 통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 숲
10.06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10.09	제주CBS 창립 11주년 기념 '2012 Jazz in JEJU'	제주아트센터	제주 CBS
10.13	2012 평화음악회	제주도립미술관 야외무대	평화문화분과위원회
10.13	강허달림 '소리, 그녀가 되는 무대' 제주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Run Music
10.13	소극장 오페라단 S 창단 연주회 '사랑의 묘약'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소극장 오페라단 S
10.13	2012 웃뜨르 문화축제 기념 음악회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마을의자공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10.18	2012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발표회 '서홍동 가을음악회'	서홍동 소공원	서홍동 주민자치센터
10.19	제주대 심포니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심포니오케스트라
10.20	2012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가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성악협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20	노이즈 일렉트로닉 밴드 '10' 7주년 공연	블루힐	노이즈 일렉트로닉 밴드 '10'
10.20	프랑스 재즈 뮤지션 콘서트 '레미 파뇨시앙 트리오'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0.20	최상돈의 제주 4.3음악순례 '올레'	제주도 순례길 산산공원 4.3해원방사탑 등	최상돈
10.24	섬마루 색소폰 앙상블 창단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섬마루 색소폰 앙상블
10.24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1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0.25	제5회 라루체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라루체 앙상블
10.25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제주의료원	제주예울림난타동아리
10.26	제주앙상블 준과 함께 떠나는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앙상블 준
10.27	제주플루트 카론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플루트 카론앙상블
10.27	뉴마트리오 '가을, 함께 숨 쉬다'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30	하늘다래음악회 네번째 이야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11.05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2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1.08	서영화 박순방 피아노 듀오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11.09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1.10	시노래 콘서트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11.10, 17, 24	영화 속 음악회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한라윈드앙상블
11.11	제주민요를 품은 창작곡 공연	제주아트센터	제주윈드오케스트라
11.14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바리톤 김승철 교수 초청 '오페라와의 만남'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문화광장
11.16	교악대 창단 연주회	서귀포삼성여자 고등학교 목련관	서귀포삼성여자 고등학교
11.16	2012 안익태 기념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안익태기념재단· 숭실대학교
11.17	제주신포니에타 제11회 정기연주회 '사랑에 빠지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신포니에타
11.17	'띠앗 합창단' 창단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11.18	제5회 주니어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니어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11.18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클라리넷앙상블
11.19	2012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II	한림고등학교 체육관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1.21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학생문화원
11.23	슈퍼스타 이한철밴드 특별공연	설문대여성문화 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6	제3회 시낭송 음악회	송악도서관	송악도서관
11.28	제8회 돌체우먼 코러스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돌체우먼 코러스
11.28	서귀포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오케스트라
11.29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제46회 정기연주회	김정문화회관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11.30	2012 아리랑 라디오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리랑라디오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01	눈으로 음악을 마음에 담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 오렌지스쿨
12.04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합창단
12.06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2.08	제주국악관현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국악관현악단
12.09	제1회 제주오카리나경연대회 수상자 연주회	프시케월드 본관	제주오카리나협회
12.10	오페라 '아말과 밤의 방문객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모던아츠
12.12	KBS제주 송년음악회 하모니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12.13	사라여성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라여성합창단
12.14	2012 제주음악제 '제25회 신인음악회 & 송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14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송년의 밤'	김정문화회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12.15	한라윈드앙상블 제53회 정기연주회 '산타클로스는 썰매를 타고'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12.20	제6회 아마빌레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마빌레앙상블
12.20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2012 송년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12.21	제주브라스앙상블 정기연주회 송년의 밤	제주대 교육대 미래창조관 대강당	제주브라스앙상블
12.22	제주도립미술관 겨울음악회 '선물'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제주도립미술관
12.22	2012 어려운 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벤처마루 광장	음악사랑 온새미
12.22	찾아가는 송년음악회	제주원광요양원	제주시청직장합창단
12.22~12.23	송영주의 재즈 크리스마스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2.23	이한철 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24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12.25	이종혁 재즈밴드 크리스마스의 오후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2.26	제주타악기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제주타악기앙상블
12.26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제22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12.27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제20주년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불교여성합창단
12.30	임태경 앵콜 콘서트	제주그랜드호텔 1층 컨벤션홀	제주그랜드호텔

양악 대회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13	제1회 오카리나경연대회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오카리나협회

양악 독주 독창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22	황금경 피아노 독주회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4.28	강성주 귀국 첼로 독주회	제주도문예회관	강성주
04.29	고광호 색소폰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고광호
05.17	문승희 바이올린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대학원음악학과
06.03	바리톤 한동훈 제주 독주회	신제주성당	한동훈
06.05	김해인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해인
06.28	플로리안 노악 제주 독주회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10.04	김지영 첼로 독주회	아름다운교회	김지영
10.13	재즈피아니스트 한지연 솔로 피아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0.19	소프라노 정여은 제4회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정여은
10.23	네번째 소연! 신은숙 대금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죽향국악원
10.23	이의원 피아니스트 독주회	제주아트센터	영남대학교·이의원
10.27	피아니스트 현은숙 네번째 독주회 '현은숙의 건반 위 은파'	김정문화회관	현은숙
11.01	테너 박 웅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박 웅
11.27	김은혜 플루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필뮤직기획
12.01	재즈피아니스트 김세운 'song of water'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2.18	오승명 타악기 귀국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양악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08	제주대학교 양영설 학생	2012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및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피아노 콩쿠르 금상 수상	서울 이원아트홀	한국피아노학회
05.08	제주대학교 오지학 학생	2012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및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피아노 콩쿠르 은상 수상	서울 이원아트홀	한국피아노학회
05.08	제주대학교 오예진 학생	2012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및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피아노 콩쿠르 동상 수상	서울 이원아트홀	한국피아노학회

양악 도외공연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25~07.29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17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피날레	싱가포르	아시아 · 태평양관악제
10.04~10.06	제14회 전국음악대학 윈드오케스트라 가을축제 참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전국음악대학윈드오케스트라 협회·Music&sound
10.16	국제 형제도시간 우정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동행	양주시 음악청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10.06	심희정 교수 '북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	스메타나 홀 (Smetana Hall)	북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마당극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1.14~01.15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제주도문예회관	극단 국민	극단 국민
02.03	'美·安·海-아름답고 편안한 바다'	동녘도서관	실버스타연극단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02.10~02.26	연극 '잘자요, 엄마'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2.24~02.26	뮤지컬 '넌센세이션'	제주아트센터	·	㈜KnP 엔터테인먼트
04.07~05.27	헤롤드 핀터의 2인극 '관리인'	예술공간 오이	오상운·오현수·전혁준	예술공간 오이
04.14~04.15	연극 '라이어'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대 극예술연구회	제주대 극예술연구회
04.14~04.15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제주아트센터	KBC플러스	KBC플러스
04.20~04.22	뮤지컬 '캣츠'	제주아트센터	(주)공연마루	(주)공연마루
04.28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제주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
05.03	CTS 제주방송 개국1주년 기념 뮤지컬 '사슴의 발'	제주도문예회관	CTS 제주방송	CTS 제주방송
05.09	연극 '모범생들'	아라뮤즈홀	제주대문화광장	제주대문화광장
05.11~05.12	기획초청공연 '아내들의 외출'	제주도문예회관	손숙 외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5.31	연극 'B언소'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6.01~06.29	창작 가족극 '죽쑤는 할망'	간드락소극장	자파리연구소	자파리연구소
06.09	창작 가족극 '죽쑤는 할망'	국립제주박물관	자파리연구소	국립제주박물관
06.13	2012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미니전막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제주도문예회관	서울예술단	국립예술단
06.15~06.16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개의 소묘'	제주아트센터	도모컴퍼니	제주문화예술진흥원
06.16~07.15	공포 연극 '두여자'	KT제주본부 소극장	극단 노는이	렛츠고 엔터테인먼트
06.22~06.24	뮤지컬 '오픈 유어 아이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SM엔터테인먼트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06.22~11.10	연극 '동치미'	한라아트홀 소극장	극단 가람	극단 가람
06.30~07.01	뮤지컬 '광화문연가'	제주아트센터	청강뮤지컬컴퍼니	㈜공간엔터테인먼트·티켓포유
06.30~07.01	창작 가족극 '죽쑤는 할망'	간드락소극장	자파리연구소	자파리연구소
07.06~07.07	연극 '너와 함께라면'	제주도문예회관	㈜연극열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7.08	연극 '낮술'	한라아트홀	극단 가람	극단 가람
07.20~10.07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KT제주본부 소극장	극단 틈	렛츠고 엔터테인먼트
07.21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제주아트센터	극단 가람	제주문화예술진흥원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8.03~09.23	뮤지컬 '숨비소리'	한라아트홀	에스앤물프로덕션	숨비소리컴퍼니
08.12	연극 '첫사랑'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청소년 극회	극단 세이레극장
08.19~08.21, 10.24	스카펭의 연극놀음	아라뮤즈홀	극단 종이로 만든 배	제주대문화광장
08.30~08.31	연극 '병실에 불을 켜라'	제주도문예회관	극단 버섯	장애인과 소외이웃 위한 공연예술가모임
09.05~12.12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달리 어린이 그림자극장	달리도서관	극단 영	달리도서관
09.06~09.09	연극 '빨간 동화'	제주도문예회관	극단 웃음꽃	극단 웃음꽃
09.09~12.16	연극 '난 아프지 않아'	중문중학교 등 20여 곳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09.13	연극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표선도서관	극단 유리가면	표선도서관·흰모래어머니독서회
09.14	작전명, 탐나를 구하라	탐라대전 무대	극단 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9.19~09.23	뮤지컬 '들꽃여인 의녀반수 김만덕'	제주아트센터	극단 가람	제주문화예술진흥원
09.22~09.23	오돌또기	간드락소극장	자파리연구소	자파리연구소
09.25~11.24	연극 '덤웨이터'	예술공간 오이	오상운·오현수·전혁준	예술공간 오이
10.09~11.11	연극 '바쁘다 바빠'	KT제주본부 소극장	극단 해오름	렛츠고 엔터테인먼트
10.12~10.13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세이레극장	극단 세이레극장
10.12~10.13	우수작품 기획초청공연 뮤지컬 '김종욱 찾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뮤지컬헤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13~10.14	고두심 40주년 기념 연극 '댄스레슨'	제주아트센터	고두심·지현준	㈜공간 엔터테인먼트
10.20	연극 '흔들리다'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 달오름	일본극단 달오름
11.02~12.30	뮤지컬 '액션 드로잉 히어로'	한라아트홀 대극장	㈜펜타토닉제주	㈜펜타토닉제주
11.20	창작 뮤지컬 '수상한 이어도'	제주도 문예회관	모던아츠	모던아츠
11.24	연극 '노래하듯이 햄릿'	제주아트센터	극단 뛰다	제주아트센터
11.27~11.29	창작뮤지컬 '천상재회를 그리며'	제주아트센터	극단 가람	제주문화예술진흥원
11.27~11.30	연극 '내가 사랑한다니까'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웃음꽃	극단 웃음꽃
12.01	연극 '못잊어'	제주도 문예회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2.01	연극 '아름다운 사인(死因)'	수눌음소극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연극동아리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12.08~12.29	제21회 소극장 연극축제	미예랑소극장	극단아도예술공간 오이·극단세이레 극장·극단가람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12.11~12.16	연극 '찍힌놈들'	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극단 내여페	제주 멍키프로덕션
12.21~12.22	욕망과 소유에 관한 보고 '의자는 잘못없다'	한라아트홀 소극장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제주문화예술 재단·광주 문화재단
12.22~12.25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제주도문예회관	㈜삼다이엔티	㈜삼다이엔티
12.27~'13.01.05	제18회 탐리미술인협회 기획전 '이실직고'	갤러리노리	탐라미술인협회	탐라미술인협회
12.29	2012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연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생 성경읽기선교회	제주대학생 성경읽기선교회
12.30~12.31	연극 '으랏, 천둥아'	간드락소극장	자파리연구소	자파리연구소
12.30~12.31	연극 '동치미'	한라아트홀 소극장	극단 가람	극단 가람
연중 상시	뮤지컬 '제주난타'	제주영상 미디어센터	㈜제주피엠씨	㈜제주피엠씨

연극 청소년·아동극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4.07	2012 새로운 피노키오의 판타지쇼 Dream	제주아트센터	위니아트	제주아트센터
04.18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 왕자'	제주도문예회관	두부기획	두부기획
04.28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박물관	㈜꿈꾸는용	국립박물관
05.12	넌버벌 교육 연극 '늑대가 그랬대요'	국립제주박물관	극단 성씨어터라인	국립제주박물관
06.08	동물뮤지컬 '정글로 간 백설공주'	제주아트센터	수눌음 공연예술기획	극단 진영아트 컴퍼니
06.19	샌드애니메이션	서귀포학생문화원	공연예술집단 노는이	서귀포학생문화원
03.10~03.11	뮤지컬 '스타킹 버블맨의 뽕뽕이 버블쇼'	제주아트센터	미류엔터테인먼트	티켓포유
03.24~03.25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제주아트센터	극단술이	극단술이
04.25~06.28	인형극 '사랑에 빠진 개구리'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4.28~04.29	플라잉 주크박스 뮤지컬 '구름빵'	제주아트센터	극단 길	㈜포유컬처
05.05~05.06	어린이 율동뮤지컬 '호비쇼'	제주아트센터	예스컴퍼니	티켓포유
05.11~05.12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제주아트센터	나루기획·꾸러기유아플러스	티켓포유
05.11~05.12	어린이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제주아트센터	꾸러기유아플러스	나루기획·티켓포유
06.02~06.03	가족뮤지컬 '어린이 캣츠'	제주도문예회관	극단 유리가면	극단 유리가면
06.23~06.24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제주아트센터	J엔터컴	극단예인J엔터컴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6.29	어린이 뮤지컬 '미운 오리새끼'	제주도문예회관	두부기획	두부기획
07.05~07.07	극단 웃음꽃 쿵쿵따 전래동화 시리즈	서귀포학생문화원	극단 웃음꽃	극단 웃음꽃
07.12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아동극 '뭉치와 병균 끈적이'	제주아트센터	·	제주보건소·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07.14	깨비깨비 도깨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민속국악원	국립제주박물관
07.20	인형극 '누구의 알일까'	애월도서관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09.01~09.02	어린이 뮤지컬 '인어공주'	제주도문예회관	놀이기획	놀이기획
09.07	어린이뮤지컬 '미녀와 야수'	제주도문예회관	두부기획	두부기획
09.15~09.16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도깨비 소동'	제주아트센터	오콘·이엠미디어	ES생활문화
09.22~09.23	가족뮤지컬 '피터팬 버블 매직쇼'	제주도문예회관	극단 챔프	마술램프
10.16~10.17	뮤지컬 '곤충나라 두두의 모험'	제주도문예회관	극단 해오름	극단 해오름
10.17~11.15	어린이 인형극 '무지개물고기'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극장	극단 세이레극장
10.20~10.21	뮤지컬 '디보와 슈퍼밴드'	제주아트센터	오콘·이엠미디어	ES생활문화
11.02~11.03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제주아트센터	극단 국민	극단 국민
11.14	뮤지컬 인형극 '알라딘과 요술램프'	제주도문예회관	삐에로극단	삐에로극단
11.22	인형극 '강아지똥'	제주도문예회관	깨비랑	깨비랑
12.01~12.02	스테디셀러 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제주도문예회관	극단 유리가면	극단 유리가면
12.15~12.15	구름빵 동요콘서트	제주아트센터	극단 길	㈜포유컬처
12.29~12.30	뮤지컬 '뽀로로의 대모험'	제주아트센터	㈜피아트	㈜피아트

연극 도외공연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3.16~03.18	'蛇의 島', '古俗에 울부짖는 개들'	일본 도쿄 시모키타사와 놀이소극장	유닛 극단 항로	유닛 극단 항로
05.11~05.13	초청공연 '오돌또기'	시드니 톰맨시어터	자파리연구소	자파리연구소
07.28~08.05	기지마누 페스타 초청 공연 '오돌또기'	일본 오키나와	자파리연구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연극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04.23~04.25	극단 가람	제21회 제주연극제 최우수상	연극 '낮술'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
06.18	극단 가람	제30회 전국연극제 은상	연극 '낮술'	광주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연극협회
09.24	극단 세이레극장	제9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대상, 희곡상, 여자연기자상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한국연극협회·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집행위원회

연극 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21	제2회 문화나눔 행사	제주영상 미디어센터	㈜제주피엠씨
04.23~04.25	제21회 제주연극제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18	제5회 동녘 환타지아 세계	동녘도서관	동녘도서관
07.28~08.05	국제 아동청소년 연극축제 '기지무나 페스타'	일본 오키나와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09.13~09.22	제7회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충남 공주	㈔한국연극협회·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집행위원회
09.24~09.27	2012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개발공사JDC

무용 종합

일자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21	서울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갈라콘서트 제주	제주도문예회관	서울발레단
04.14	2012 월드인제주 컬러풀 춤 페스티벌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헤라스벨리컴퍼니
05.30	동화(同化)-춤, 제주에 스며들다	제주도문예회관	㈔전통문화포럼·㈔제주춤아카데미·제주국악단·제주소리문화연구소
07.06	춤으로 그리는 제사 '비상 V'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최현춤보존회제주지회·배상복, 여미도
07.16	찾아가는 발레교실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국립발레단
08.01~08.03	2012 여름 춤 캠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립무용단
08.19	제13회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	한국무용협회제주도지회
08.21	제2회 지젤발레축제	제주도문예회관	지젤발레단
08.26	제주오름민속무용단 2012 정기공연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	제주오름민속무용단
08.30	숨비민속무용단 제4회 정기공연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	숨비민속무용단
11.02	평화의 춤, 제주를 품다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소아암재단
11.08	가객 국창 임방울을 노래하다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문화예술재단 · 광주문화재단
11.25	2012 전국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용교류전	광주문화예술회관	㈔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
12.01	명창 안숙선 초청 특별공연	라온프라이빗타운	라온레저개발㈜
12.06~12.07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42회 정기공연 'Soul of Jeju Ⅲ - 씻김, 주목의 노래'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영상 종합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10	'부러진 화살' 초청시사회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씨네아일랜드
01.29	마리이야기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2.11~02.12	좋은 영화 무료 상영회 '틴틴-유니콘호의 비밀' 등 2편 상영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2.19	파리넬리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3.03~03.31	토이스토리 1 등 5편 상영	동녘도서관	동녘도서관
03.03~03.31	클래식 등 5편 상영	제남도서관	제남도서관
03.16	내 인생 최고의 영화 '고양이춤' 특별초청 상영회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씨네아일랜드
03.20	건축학개론 상영	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제주영상위원회
03.21	내 인생 최고의 영화 '건축학개론' 특별초청 상영회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씨네아일랜드
04.06~04.15	소중한 날의 꿈 상영	간드락소극장	간드락소극장
04.10~05.29	제주씨네클럽 '더 클래스' 상영	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4.22	예술 테마가 있는 영화감상회 '샤인'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4.26	임찬익 감독 데뷔작 '체포왕'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수상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일간스포츠, 중앙일보문화사업
04.27	두레소리 언론사 기자 및 VIP 초청 시사회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씨네아일랜드
05.08	제주씨네클럽 '꼬마 니콜라' 상영	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5.19~05.20	토르-마법망치의 전설 등 2편 상영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5.23	매달 만나는 제주여성영화제	아트스페이스C	㈜제주여민회
06.05	제주씨네클럽 '아멜리에' 상영	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6.14	도가니 엄용훈 제작자 특별강좌 개최	다음스페이스 닷원 멀티홀	㈜제주씨네아일랜드
06.16	2012 제주영상미디어센터 DAY 시즌2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및 신산공원 일대	㈜제주영상위원회
07.03	제주씨네클럽 '세상의 모든 아침' 상영	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7.10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영화 '두개의 문' 상영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씨네아일랜드
07.17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영화 '말하는 건축가' 상영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씨네아일랜드
07.21~07.22	도서관 속 시네마원정대 안거리반 필름페스티벌	한라도서관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07.22	모모 등 2편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7.25~08.11	4.3영화 '숭시' 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개막작 선정	서교예술실험센터 등 홍대 일원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07.27~07.30	꿈나무 필름 아트캠프	남원초등학교	신영균예술문화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8.03~08.10	니모를 찾아서 등 8편 상영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08.03~08.31	꿈은 이루어진다 등 14편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영상위원회
08.04	제주출신 재일교표 양영희 감독 '가족의 나라' 개봉	일본 도쿄 등지	양영희
08.04~08.25	갓파쿠와 여름방학을 등 4편 상영	동녘도서관	동녘도서관
08.04~08.25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4편 상영	제남도서관	제남도서관
08.06~08.17	엑스맨 등 10편 상영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08.07	제주씨네클럽 '여름의 조각들' 등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08.26	비밀의 화원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8.28	케빈에 대하여 상영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씨네아일랜드
08.30	잘 보여! 잘 들려! 마음으로 보고 듣는 가족영화관	애월농협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08.31~09.09	시네마테크협 3인 작가전(오멸, 임흥순, 장건재 감독)	서울아트시네마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09.01~09.22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등 4편 상영	제남도서관	제남도서관
09.01~09.29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등 4편 상영	동녘도서관	동녘도서관
09.04	13구역 : 얼티메이텀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09.06	제주여민회 기자간담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회
09.08~09.22	챔프 등 2편 상영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09.13	달콤 쌉싸름한 여성영화 맛보기 상영	제주대학교 교양동 강의실 4227호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회
09.14~16	제13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장애인연맹 2012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
09.23	로빙화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01~31	카핑 베토벤 등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영상위원회
10.06	꼬마 니콜라 상영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06~10.26	샬롯의 거미줄 등 4편 상영	동녘도서관	동녘도서관
10.16	2012 제주씨네아일랜드 영화특별강좌 '엔딩크레딧 가까이보기' 투자사편	다음스페이스닷원 멀티홀	㈔제주씨네아일랜드
10.20	오멸 감독 기자간담회	간드락소극장	자파리필름
10.27	다시 보고싶은 영화 상영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02~11.04	제3회 프랑스영화제	아라뮤즈홀,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프랑스영화제 집행위원회
11.03~11.24	오싹한 연애 등 4편 상영	제남도서관	제남도서관
11.03~11.24	마녀배달부 키키 등 4편 상영	동녘도서관	동녘도서관
11.08	제5회 남원 꿈빛 어린이 영화제	제남도서관	남원초등학교
11.21	황금사자상 '피에타' 제주 특별상영회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씨네아일랜드
11.25	물랑루즈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01, 04	'지슬' 2012 서울독립영화제 초청상영	CGV 압구정	서울독립영화제
12.15	원씬원컷 페스티벌	한라도서관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2.21~12.22	이수일과 심순애 상영	서귀포시민회관,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영상위원회, 서귀포시

2013

제주 문예연감

문화 예술 단체

문화예술 단체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문학(26)	구좌문학회	695-978	제주시 구좌읍 상하도길 27	783-1843	고여생	16	2002
	귤림문학회	690-817	제주시 연화중길 20 1535-6번지 3층	746-7686	오승휴	150	1991
	글밭제주동인회	690-121	제주시 아라1동 2407-7	784-8882	이승익	20	2004
	녹담수필문학회	690-021	제주시 이도1동 1650-4 월드컵아파트 101동 404호	722-0542	문익순	17	2000
	다층문학동인	690-825	제주시 이도2동 1048-2 101호	757-2265	변종태	50	1990
	동인 맥(脈)	690-828	제주시 이도1동 1784-11	722-0177	이용익	11	2007
	백록수필문학회	690-022	제주시 이도2동 1778-17	758-7497	고성의	107	1998
	㈔어린이도서연구회제주지부	690-833	제주시 일도2동 362-18		류건영	120	1997
	㈔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690-800	제주시 건입동 1038-5 3층	070-4115-1038	김창집	80	1998
	새별문학회	690-843	제주시 용담1동 2826-13 현우빌라 102호	722-4049	김상우	57	2002
	성산포문학회	699-907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73	784-9479	오은숙	16	2008
	시올레동인	690-818	제주시 연동 1953-5 동남APT 101동 406호	744-4158	김원욱	5	2009
	아동문학동인 동화섬	690-802	제주시 노형동 929-1 동화섬 사무국	747-6664	강수미	70	2002
	애월문학회	695-913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47-16	744-5735	강선종	70	2009
	제주동서문학회	690-828	제주시 이도1동 1250-22	753-9494	김병돈	20	1996
	제주수필문학회	690-826	제주시 신성로 10길 19(이도2동 1014) 전원파크맨션 505호	738-6769	부희식	86	1994
	제주詩사랑회	690-805	제주시 오남로 7-13 108동 103호	752-0688	김영희	30	2001
	제주시조문학회	690-814	제주시 연동 288-10	702-7702	김윤숙	35	1984
	제주아동문학협회	690-802	제주시 1100로 3213-15 A동 502호	712-1056	장승련	33	1980
	제주여류수필문학회	690-814	제주시 연동 2301-4 대영빌라 301호	745-2101	양부임	16	2001
	조엽문학회	690-840	제주시 노형동 2534-2 2층	757-7578	고훈식	25	1997
	(사)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697-370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54-6	739-2332	윤봉택	96	1993
	(사)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050	제주시 건입동 1038-5 제주문학의 집 3층	748-3125	김순이	242	1962
	한라산문학동인회	690-840	제주시 노형동 2526-10 1층	712-1409	신제균	30	1987
	한수풀문학동인회	695-923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371	796-1941	양민숙	16	2005
	현대문예 제주작가회	697-835	서귀포시 동홍로 36번길 7-1	762-6301	조옥순	39	2007
양악(76)	CBS제주 아가페합창단	690-802	제주시 노형동 731-2 한화아파트 101동 501호	743-5838	김정우	45	1984
	CBS제주소년 소녀합창단	690-813	제주시 연동 271-1	748-7400	민경중	40	2001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양악(76)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690-814	제주시 연동 302-3	740-7326	KBS 총국장	50	1961
	제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695-795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761	713-8100	배서영	40	1994
	늘푸른음악회	690-814	제주시 사장2길 21 (연동 294-98) 202호	758-2757	진군흠	40	2001
	당신의사람들	690-806	제주시 도남동 922-41	757-1260	우종훈	15	2008
	돌체우먼코러스	690-162	제주시 오라2동 1191	728-4802	이진영	35	2002
	동굴소리연구회	690-232	제주시 이호2동 1562-1	743-9793	현행복	10	1992
	리더스클라리넷 앙상블	690-821	제주시 용담2동 639-36	711-7750	양상식	8	2008
	모던아츠	690-818	제주시 도령로 15(연동 2318-16) 13층	711-7719	홍정호	25	2005
	밀라노와 친구들	690-833	제주시 일도2동 360	752-9808	김지은	10	2004
	베가피아노 트리오	690-809	제주시 삼도2동 803-32 수현빌딩 4층	759-9077	장선경	3	2004
	자작나무숲	690-162	제주시 오라2동 3293-1	747-7596	우상임	24	2002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690-832	제주시 일도2동 837-20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722-8704	김왕승	35	1995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690-161	제주시 아라1동 2405-4	721-2588	장흥용	140	1989
	㈔제주특별 자치도성악협회	690-817	제주시 연동 1503 국기 중길 14 4층	712-9035	김광정	56	1998
	㈔제주특별 자치도음악학회	690-170	제주시 연동 310-53 캐이앤하우스 101호	070-4383-7861	이춘기	60	2003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24	제주시 신산로 34-1 지하	751-8844	김재용	170	1974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11	제주시 삼도1동 804-1 3층	755-7333	윤정택	200	1962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697-826	서귀포시 강정동 176	739-3287	김승철	73	1987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도지회	690-022	제주시 이도2동 1956 이도 한일베라체 102동 1201호	711-4840	김봉균	60	1986
	서귀포 YWCA 소년소녀합창단	690-242	서귀포시 서귀동 558-1	762-1400	김신숙	30	1999
	서귀포 청소년오케스트라	697-701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문화예술과	760-2481	김영진	50	2011
	소리샘중창단	697-864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 서귀포학생문화원	730-4535	이승자	17	1999
	소리어울림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인문대학 1호관 3층 소리어울림	754-2477	김정희	60	2009
	솔렘남성중창단	690-833	제주시 일도2동 330-4 301호		고창학	13	1991
	시밀레색소폰앙상블	690-817	제주시 연동 1512-7 드림뮤직	713-9958	이정석	25	2009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양악 (76)	시밀레 주니어앙상블	690-817	제주시 연동 1512-7 드림뮤직	713-9958	이정석	15	2012
	아마빌레 플루트앙상블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754-2796	허대식	20	2007
	에코재즈밴드	690-043	제주시 용담3동 516-2 세진상가 404호		현충헌	20	1999
	오름브라스 콰이어	697-828	서귀포시 강정동 1480 88체육관 지하 관악단	739-7394	현은주	11	2004
	원	690-162	제주시 일도2동 394		강택환	13	2003
	제남두드림 앙상블	697-845	서귀포시 서호동 584 제남아동복지센터	739-1020	이상준	25	2010
	제네스체임버 오케스트라	690-809	제주시 삼도2동 199-5		임대흥	20	2002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690-809	제주시 삼도2동 905 제주YMCA	722-4405	김태성	68	1997
	제주YWCA 여성합창단	690-241	제주시 도두동 2282	711-8322	이경호	36	1972
	제주남성합창단	690-032	제주시 삼도2동 전농로9길 26-5	750-4375	고준철	25	2003
	제주드림앙상블	690-817	제주시 연동 1512-7 드림뮤직	713-9958	이정석	10	2006
	제주목관5중주	695-963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05		홍상기	7	2008
	제주부부합창단 '느영나영'	690-824	제주시 이도2동 380-9		김천석	34	2000
	제주불교 마하야나합창단	690-806	제주시 아라1동 387	724-6832	김춘숙	50	2002
	제주불교여성합창단	690-811	제주시 삼도1동 300-65		채정희	40	1992
	제주불교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690-162	제주시 오라2동 1192-1	746-1884	재용 스님	40	1998
	제주브라스앙상블	690-829	제주시 일도2동 1030-10 (신산로 34-1)	744-4784	허성훈	20	1995
	제주빅밴드	690-818	제주시 연동 2413-4 지하	748-7004	김용형	70	2008
	제주소년소녀합창단	690-824	제주시 이도2동 1030-10 지하1층		이진영	45	2000
	제주솔로이스츠	690-841	제주시 삼도2동 803-32 수현빌딩 4층	759-9077	장선경	5	2007
	제주신포니에타	690-825	제주시 남광로2길 43-20 행복한집 8차 101호	725-6603	김형삼	28	2001
	제주앙상블준(JUNE)	690-812	제주시 삼도1동 522-7	752-3775	강효정	6	1995
	제주오페라단	690-195	제주시 오등동 1352 진평연립 가동 205호	702-3409	권영희	156	1988
	제주윈드 오케스트라	690-832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722-8704	이유근	65	1999
	제주청소년관악단	690-811	제주시 삼도1동 804-1 하나새마을금고 3층	755-7333	윤정택	40	2003
	제주청소년 플루트앙상블	697-831	제주시 일도2동 59-5 지하		박소진	21	2003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양악(76)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690-779	제주시 일도2동 113-7 대유대림APT 310동 202호	753-2882	김인규	40	1984
	제주쳄버코랄	697-841	서귀포시 호근동 1561 서귀포여자고등학교	070-4483-7861	오승직	25	2005
	제주칸투스합창단	690-833	제주시 일도2동 162-31 신산미화아파트 라동 109호	756-0901	강병효	40	2002
	제주콘서트콰이어	690-830	제주시 일도2동 46번지 신천지아파트 2차상가 208동 301호 김현주음악학원	753-3232	차충성	20	1999
	제주클라리넷앙상블	690-804	제주시 노형동 1296-6 정각빌딩 지하 1층	711-9991	정욱성	24	1993
	제주타악기앙상블	690-811	제주시 삼도1동 서사로50 새마을금고 3층	755-7333	장문희	11	2003
	제주특별자치도플루트협회	690-831	제주시 일도2동 59-5 지하		박미향	500	1999
	제주팝스오케스트라	690-806	제주시 삼도2동 903-32 수현빌딩 4F	759-9077	김태관	45	2000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690-832	제주시 일도2동 837-20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김은영	30	2005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690-831	제주시 일도2동 59-5 지하	722-7970	이영래	20	2001
	제주피아노학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음악학과		박순방	34	1999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690-029	제주시 도남동 800 대림1차 e편한세상 102동 102호	748-3313	김형삼	75	2002
	주니어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690-029	제주시 도남동 800 대림1차 e편한세상 102동 102호	748-3313	김순길	50	2005
	청년노래단 '청춘'	690-809	제주시 삼도2동 168 진도빌딩 2층		양성미	8	2000
	칼리오페OB중창단	697-843	서귀포시 서귀동 285-9		부정익	50	1999
	펠릭스합창단	690-816	제주시 노형동 725-2 연동클리닉BD 5F 연세피부과의원	711-3679	송동훈	35	2002
	표선유스콰이어	699-911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114		김도웅	41	2005
	프라임타악기앙상블	690-807	제주시 도남동 67-27 상가내 지하		이병준	6	2004
	한국음악교육협회제주도지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대학 음악학과	747-7776	이춘기	300	2003
	한라소년합창단	690-815	제주시 동광로51 (이도1동 1244-4) 지하1층		안성복	40	1991
	한라윈드앙상블	690-012	제주시 일도2동 339-11	751-1155	정연재	48	1993
	한라챔버오케스트라	690-150	제주시 오등동 629		이영만	15	2001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690-825	제주시 남광로2길 43-20 행복한집 8차 101호	727-9809	김순길	27	2007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미술(35)	그루터기회	690-831	제주시 일도2동 76-4	724-4251	양근석	15	2001
	그룹 연	690-161	제주시 서광로 2길 5-14 (오라1동 2442-12)		이용석	11	2000
	미술동인집	690-769	제주시 화북1동 주공A 203동 506호		고보형	50	2001
	바란그림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미술학과 사무실	754-2811	강민석	21	1997
	백록담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미술학과 사무실	754-2811	강민석	21	1977
	㈔문화조형연구센터	690-811	제주시 삼도1동 783-4	726-5400	하석홍	10	2006
	㈔제주국제예술센터	690-060	제주시 화북동 4675 오현중학교	755-9255	백광익	15	2010
	㈔제주디자인협회	690-714	제주시 516로 2870 스포츠예술학부 디자인학과 3호관 3207호	754-0317	최재용	60	1995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697-842	서귀포시 서귀동 273-33	733-5287	현충언	32	1999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34	제주시 신산로 82(일도2동) 지하	757-1919	김성환	274	1955
	㈔한국제주전업미술가협회 제주도지회	690-833	제주시 일도2동 354-17 2층	754-4477	한용국	17	2012
	산남회	697-010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북로 12 2층	739-1042	박순민	11	1993
	섬 여백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미술학과 사무실	754-2810	유창훈	24	2003
	섬아트연구소	695-918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702	711-1262	김해곤	7	2003
	수크래프트	690-100	제주시 회천동 1273	721-2777	양은주	15	2002
	시상작가회	690-814	제주시 연동 280-15 삼무파크빌 804호	702-1627	이창현	15	1978
	에뜨왈	690-829	제주시 이도1동 1501-3 성지로 12	759-3261	고경희	12	1982
	우석조형연구소 제주도지부	690-060	제주시 화북동 4675 오현고등학교	755-9255	백광익	4	1995
	이삭	690-815	제주시 연동 311-12		강보미	12	2001
	일구구오	690-800	제주시 도남동 811 도남연립 11동 304호		박소연	5	1995
	제주도예가회	699-022	제주시 이도2동 1080-8	723-4847	한홍곤	25	2002
	제주馬미술연구소	695-909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58-1	070-4120-9590	유종욱	3	2003
	제주수채화협회	690-834	제주시 일도2동 76-4(태성중 2길 8) 양선생미술교실	724-4251	양근석	15	2004
	제주섬유예술가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 디자인전공 312호		박현영	29	2008
	제주시각디자인협회	690-170	제주시 연동 308-4	070-8281-2422	손영수	30	2004
	제주옹기문화연구회	690-100	제주시 회천동 1273	721-2777	오옥자	35	1998
	제주의표정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미술학과	754-2811	강민석	20	1998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미술(35)	제주조각가협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미술학과 조소전공	754-2811	김상현	30	1988
	제주판화가협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미술학과	754-2810	박성진	20	2000
	제주한국화협회	690-824	제주시 이도2동 360-6	753-1023	장은철	30	1992
	창작공동체 우리	690-163	제주시 오라3동 2299-1 홍판화공방	772-1600	이명복	6	2005
	탐라미술인협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4층		송맹석	30	1993
	한라미술인협회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37번지	02)723-2222	전재현	78	1996
	한우리회	699-905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 일출랜드 아트센터		박여순	12	1984
	형전회	690-122	제주시 아라2동 1173-14	758-0318	진주아	22	1998
서예(31)	반숙서숙연우회	690-180	제주시 노형동 727-3 2층	746-5402	현원지	23	1983
	사봉서각회	690-809	제주시 삼도2동 256-4	710-3217	이군성	98	2003
	㈔삼다연서학회	690-831	제주시 일도2동 102	752-8251	김선영	60	2007
	㈔서귀포 서예가협회	697-844	서귀포시 서귀동 309-38 천지로23	763-9019	김형탁	32	1975
	㈔영주연묵회	695-814	제주시 연동 294-105 에뜨왈빌 501호	772-5885	현병찬	35	1965
	㈔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690-831	제주시 일도2동 68-15 1층	725-5011	임정택	52	1990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690-161	제주시 오라1동 995-15 2층	744-4959	황옥선	112	1994
	㈔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690-800	제주시 사라봉3길 28(건입동 670-13)	753-6724	현병찬	235	2002
	㈔한국문인화협회 제주도지회	690-130	제주시 월평동 629	722-3995	고정인	40	2003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25	제주시 이도2동 1033-2	751-2281	양상철	40	1999
	㈔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	695-962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35-42	784-9955	강영자	70	2003
	㈔한국서각협회 제주시지부	695-904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321-13	02)781-2584	한찬섭	65	2000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7-814	제주시 연동 301-10 조선일보빌딩 307호	744-9851	김영진	60	1989
	㈔한라서예학회	699-943	서귀포시 서귀동 278-10	763-1888	김성만	26	2001
	삼무서회	697-320	서귀포시 대포동 1224	733-0124	권무성	20	2001
	상묵회	690-814	제주시 연동 301-10 조선일보빌딩 307호	742-1707	김혜정	50	1984
	서귀포소묵회	697-120	제주시 연동 301-5 덕일빌딩 502호	070-8875-2163	오창림	17	1977
	송악서각회	697-930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2리 3729-1		윤형근	13	2004
	정연회	690-809	제주시 삼도2동 76	721-6529	부현일	25	1981
	제주문인화 그림벗회	690-815	제주시 노형동 754-3 부영아파트 303동 703호		박한종	10	1992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서예(31)	제주문인화연고회	690-838	제주시 화북1동 2035-1		양남자	25	1990
	제주문인화연구회	690-824	제주시 이도2동 386-3(청귤로 28)	070-8831-1013	최형양	34	2004
	제주서각회	690-967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188-1		김병연	22	2000
	제주소묵회	690-808	제주시 삼도2동 1036-2 3층	757-3168	김순택	45	1973
	제주전각학연구회	690-960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65-7		김형식	11	1998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695-947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58	772-5885	현병찬	182	2006
	제평서각회	690-834	제주시 신산로 1길 4(일도2동) 양지상가 103호	070-825-1171	최인덕	22	2006
	탐라서각연구회	690-150	제주시 오라2동 194-2	767-0857	오평범	23	2004
	탐라서예문화원	690-826	제주시 이도2동 1028-18	721-6538	윤덕현	30	2003
	통묵회	690-826	제주시 이도2동 371-1	728-2235	오형범	15	1991
	한연회	690-833	제주시 삼성로 16길 1 지하	757-8617	이항영	32	1997
사진(33)	가온누리사진연구회	695-934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598-1	070-8885-0114	김태수	12	2010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690-825	제주시 이도2동 1050-3 진아트빌 101호	752-6514	김홍남	10	1981
	대정사우회	699-934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67	794-2145	이성택	9	1982
	딥블루포토클럽	690-820	제주시 서문로 4(용담1동 243-5) 3층	723-3500	이남용	12	1996
	모슬포카메라클럽	699-935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006		임진출	10	1985
	백록사우회	690-809	제주시 삼도2동 1234-1 늘푸른가정의학과의원	752-9696	임영범	8	1999
	백마포토라인	690-814	제주시 연동 294-24 송이주택 가동 103호		권기갑	11	1999
	본뜬세상	699-911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32	070-4400-3831	김호일	7	1996
	㈔탐라사진가협의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4층	758-0331	김호천	8	2005
	㈔한국사진작가협회서귀포지부	697-834	서귀포시 동홍동 114-17	762-4775	오승환	30	2002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협의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5F	702-2113	홍순병	135	2003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690-809	제주시 삼도2동 206-5	726-6326	장윤석	96	1977
	삼다사진동우회	690-802	제주시 노형동 930-1 1602호		김영규	15	1997
	상록예술사진연구회	690-820	제주시 용담1동 255-23		전영국	26	2011
	새이웃사우회	690-820	제주시 용담1동 253-11	722-5539	양재훈	9	1993
	섬에서 부는 바람	690-764	제주시 용담로 11길 13		고성자	25	2000
	제주교원사진예술동우회	690-833	제주시 일도2동 337-1		이수남	10	2001
	제주기독사진선교회	690-832	제주시 일도2동 154-15 성환맨션 701	756-3759	허찬보	10	1999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사진(33)	녹색사진연구회	690-062	제주시 화북2동 2622-1	757-5847	박철진	22	1990
	제주도장애인사진애호가협회	690-821	제주시 용담2동 475-11 용흥주택 501	743-2522	김성남	15	2004
	제주민속사진연구회	690-821	제주시 용담2동 619 현대아파트 303동 602호	743-6533	고남석	12	2001
	제주수중사진연구회	699-931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보성구억로 226		강동완	10	2009
	제주영상동인	690-061	제주시 동화로1길 49-17(화북1동)	726-2627	김환철	23	1984
	제주오름사진연구회	690-830	제주시 일도2동 408 서해아파트 1차 313호		홍성주	20	1991
	제주특별자치도사진학회	695-918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39-5 윤정빌라 가동 102호	713-5246	안수영	14	2009
	제주카메라클럽	690-841	제주시 노형동 2585-1 중흥S클래스 101동 801호	070-7757-9181	지남준	16	1965
	제주포토라인	697-860	서귀포시 토평동 3281-3	732-4973	황영훈	10	2011
	제주풍경사진가회	690-822	제주시 용담2동 2682-8	743-4832	임성춘	11	1994
	제주환경사진연합회	690-812	제주시 삼도1동 523-21	725-8088	홍순병	26	1992
	칠십리사우회	697-851	서귀포시 서홍동 442-1	762-6247	허영홍	12	1995
	한국방송대학교 제우포커스	690-150	제주시 오등동 1472-3		이승일	10	1990
	한라사우회	690-812	제주시 삼도1동 534-11	758-0741	고두웅	12	1980
	현실사진동우회	690-788	제주시 이도2동 1956 한일베라체 107동 1103호	757-7741	이창용	13	1996
무용(18)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	697-826	서귀포시 강정동 176	739-3287	김민정	20	1996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690-817	제주시 연동 1516-3	753-8786	이창훈	40	1991
	㈔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697-826	제주시 일도1동 1276-5	070-753-5622	이춘열	32	2005
	댄스인제주무용단	690-191	제주시 외도1동 497-28 2층	712-5999	손영신	25	2005
	사라예술단	690-832	제주시 일도2동 146-18	757-7970	강경자	20	2006
	숨비민속무용단	690-180	제주시 연동 251-78	784-3569	김정열	18	2003
	예술단사람들	690-839	제주시 화북1동 4215		강광옥	12	2006
	예지무용단	690-831	제주시 일도2동 109-3	753-8614	김정희	20	1994
	이지연발레단	690-817	제주시 연동 1516-3	713-8786	이지연	50	2006
	제주민속무용단	690-819	서귀포시 동홍동 149-1 덕산캐슬아파트 102동 403호	762-9797	김하월	17	1998
	제주민속예술단	690-809	제주시 삼도2동 1241-18		김명희	25	1996
	제주오름민속무용단	690-796	제주시 화북1동 85 삼화휴먼시아A 115동 1202호	784-3569	최길복	35	2000
	제주전통어멍무용단	690-818	제주시 연동 2317-1 남조아파트 나동 204호		김진희	7	1996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무용(18)	제주춤아카데미	690-191	제주시 외도1동 440-4	742-6659	김희숙	20	1997
	제주춤예술원	690-830	제주시 천수동로 21	755-5434	김미숙	15	2011
	제주헤라스벨리	690-804	제주시 노형동 1283-5	713-4043	윤선아	50	2004
	해송민속무용단	690-022	제주시 이도2동 398-4	752-2152	윤경월	35	2006
	혼비무용단	690-812	제주시 삼도1동 566-15	756-4891	강혜인	18	2004
연극(13)	극단 가람	690-820	제주시 용담1동 2647-35	722-0794	이상용	45	1975
	극단 수눌음 공연예술	690-241	제주시 도두1동 2464-1 쌍둥이펜션 지하		김영율	10	2008
	극단 세이레극장	690-814	제주시 연동 304-1 세이레아트센터	711-8911	강상훈	27	1992
	극단 오름	697-837	서귀포시 동홍동 641-1		오창순	10	1989
	극단 오이	690-809	제주시 관덕로 6길 14 지하	010-5755-9220	오상운	60	2011
	극단 이어도	690-829	제주시 이도1동 1404-2	722-5254	김광흡	23	1978
	극단 정낭극장	690-819	제주시 용담1동 144-14	722-1871	강한근	16	1980
	놀이패 한라산	690-163	제주시 오라3동 2773-2	753-9539	우승혁	21	1987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5F	725-3287	부재호	50	1962
	세이레어린이극장	690-814	제주시 연동 304-1 세이레아트센터	744-8911	정민자	15	1992
	어.마.빠.랑 신나는 인형극회	697-837	서귀포시 동홍동 641-2	762-4811	양희숙	5	1995
	연희패 다솜	690-022	제주시 이도2동 1776-3 CGV 4층		변종수	23	1992
	자파리연구소	690-122	제주시 아라2동 1371-5 간드락소극장	070-4131-3031	성민철	8	2004
국악(36)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690-826	제주시 승천로 8(이도2동 1069) 지하	756-0105	고석철	20	2002
	노리안마로	699-914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8	722-0129	양호성	15	2000
	돌하르방예술단	690-834	제주시 일도2동 993-2	726-5515	이정열	100	2001
	민요패 소리왓	690-811	제주시 삼도1동 751-3 3층	721-4967	안민희	27	1992
	박경선 소리마당	697-834	서귀포시 동홍동 64-4	732-1411	박경선	13	2009
	백록민속예술단	690-846	제주시 삼도1동 535	702-7368	한춘자	25	1995
	사라예술단	690-832	제주시 일도2동 133-2 지하	757-6188	강경자	50	2005
	㈔용화문화예술회	690-162	제주시 오라2동 1374	746-3777	백용화	230	2009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697-817	서귀포시 토평동 781-1	763-1139	김창수	91	1989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690-836	제주시 일도1동 1146-19 2F	759-3888	고성옥	150	2004
	㈔한국아동국악 교육협회제주지부	690-032	제주시 삼도2동 897 3층	756-1129	송정희	170	2005
	㈔한국판소리 보존회제주지부	690-802	제주시 노형동 945-6	744-1254	권미숙	50	2005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국악(36)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697-030	서귀포시 하효동 563-6	767-0281	김정자	32	2004
	서우제예술단	690-828	제주시 이도1동 1686-6	722-1478	김복순	8	2010
	선돌예술단	690-832	제주시 일도2동 132-19	725-7374	한성순	16	2004
	송죽예술단	690-834	제주시 일도2동 993-10 지하1층	724-7924	김길예	30	1999
	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	690-811	제주시 삼도1동 751-3 3층	721-4967	안민희	15	1996
	어울림예술단	690-021	제주시 이도1동 405 연산홍주택 107동 407호	757-0411	고순금	6	2006
	올레민속예술단	690-012	서귀포시 서귀동 306-14	762-4554	서순애	15	2008
	이어도민속예술단	690-042	제주시 용담2동 629-28	711-0081	홍송월	22	1996
	정의골 소리패	697-912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14-1	787-0943	송심자	30	2003
	제주국악관현악단	690-824	제주시 가령로 5-1(이도2동) 2층	070-4414-3412	조창규	35	2011
	제주국악단	690-826	제주시 이도2동 888 이도주공APT 113동 206호		한재준	25	2006
	㈔제주소리보존회	690-232	제주시 이호2동 160-6	743-3242	고성옥	27	1994
	제주청소년풍물단	690-828	제주시 이도1동 1736-14 제주교총회관 지하		한재준	18	1992
	제주탐라예술단	690-850	제주시 화북1동 1972-7	722-0513	박순재	50	1986
	제주판소리보존회	690-802	제주시 노형동 945-6	744-1254	권미숙	50	2005
	죽향국악원	690-804	제주시 노형동 1293-4 세븐빌딩 2층	723-0779	신은숙	50	1998
	죽향대금산조원형보존회제주지부	690-827	제주시 이도2동 1772-17 3층	723-7484	이광훈	70	2008
	징검다리국악동호인회	690-804	제주시 노형동 1293-4 세븐빌딩 2층	723-0779	신은숙	15	1995
	탐라민속예술원	690-121	제주시 아라1동 371	702-8485	김주산	50	1981
	풍물굿패 신나락	690-807	제주시 도남동 79-7 남천빌딩 지하	702-6661	강상우	29	1993
	한누리예술원	690-090	제주시 봉개동 551	723-7267	안보순	70	2003
	한라예술단	690-834	제주시 일도2동 993-14 제주농요전수교육관	753-3980	김향옥	50	1986
	한얼메아리예술원	690-827	제주시 이도2동 1180-11	753-5005	현영순	20	2009
	해오름국악예술원	690-809	제주시 삼도2동 241-18	742-9422	현성이	15	2007
영상(5)	㈔제주씨네아일랜드	690-836	제주시 일도1동 1279-2 엘리트빌 2층	702-1191	현충열	160	1996
	㈔제주영상애니메이션창작연구소	690-817	제주시 연동 1399-1 연동대림 205동 406호		문숙희	25	2012
	㈔한국영화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30	제주시 일도2동 413-2	744-7799	이경근	350	1992
	컴트루통합문화예술교육기획	690-836	제주시 일도1동 1279-2 엘리트빌 2층	752-4257	오주연	150	2007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영상(5)	탐라영상인협의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4층	758-0331	고혁진	10	1997
연예(1)	㈔한국연예예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34	제주시 일도2동 993-10 지하1층		박종택	132	1971
총괄(3)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4층	758-0331	박경훈	170	1994
	㈔한국예총서귀포시지회	697-826	서귀포시 강정동 176 김정문화회관 내	739-3287	이연심	500	1980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5층	725-3287	강창화	2000	1962
건축(3)	㈔한국건축가협회제주건축가회	690-170	제주시 건입동 709-16 2층 건축사무소 담	756-9334	김상언	40	1985
	㈔대한건축학회제주지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대4호관 110호	754-3702	김태일	50	1985
	대한건축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690-828	제주시 이도1동 1736-15	752-3248	고봉규	120	1965
문화(9)	㈔서귀포문화원	697-803	서귀포시 동홍동 453-1	733-3789	오기찬	150	1996
	㈔제주문화원	690-808	제주시 삼도2동 1262 제주해변공연장 2층	722-0203	신상범	377	1994
	㈔제주문화포럼	690-032	제주시 삼도2동 300-78 1층	722-6914	한승훈	320	1997
	㈔제주전통문화연구소	690-809	제주시 삼도2동 108-16 2층	755-7372	문무병	100	1998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699-933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887-5	792-7953	허은숙	500	2008
	㈔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제주지부	690-916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7	753-2606	강순심	26	1994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08	제주시 삼도2동 1262 제주해변공연장 2층	722-0203	정수현	17	2000
	제주문화놀이터	690-082	제주시 용담2동 2797-1	724-0429	이광진	6	20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690-800	제주시 건입동 387-4	753-7812	김윤수	35	1980
도립(5)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690-834	제주시 일도2동 852 (동광로 69)	754-5200	제주시 부시장	24	1990
	제주특별자치도립교향악단	690-918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길 41(하귀1리 678-1)	728-3965	제주시 부시장	70	1985
	제주특별자치도립합창단	690-918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길 41(하귀1리 678-1)	728-3965	제주시 부시장	46	1985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697-800	서귀포시 강정동 1480	739-7394	서귀포시 부시장	38	1998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697-800	서귀포시 강정동 1480	739-5272	서귀포시 부시장	37	1987

2013

제주 문예연감

문화시설

문화시설 박물관·미술관

명칭	설립자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점)	등록일	전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건입동 261	부지 55,579㎡ 건평 9,287㎡	2,915	'01.6.15	720-8001
만덕관	김만덕 기념사업회	제주시 건입동 387-4	전시실 165㎡	일대기, 초상화, 비녀 및 혼례복 등 30점	'77. 01월경	722-0614
중문민속박물관	중문관광어촌 김충길	서귀포시 중문동 2563-1	부지 4,320㎡ 연면적 1,015㎡	민구류 등 3,084	'92.10.17	휴관
제주민속박물관	진성기	제주시 삼양3동 2505	부지 2,959㎡ 연면적 491㎡	민구류 등	'92.11.23	755-1976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 일도2동 996-1	부지 31,515㎡ 연면적 6,473㎡	제주고유민속, 자연사자료 37,581	'84.12.13	710-7708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감	제주시 이도2동 539-14	부지 5,809㎡ 연면적 3,741㎡	교육자료 23,748	'95.09.13	752-9101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서홍동 621	부지 5,092㎡ 연면적 738㎡	한국화, 서양화 604점	'97.06.04	733-1586
신영제주영화 박물관	신영균 ㈜한국홍산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1	부지 81,790㎡ 연면적 3,195㎡	장비, 스틸원본 등 1,580	'98.04.06	764-7777
제주민속촌박물관	한국항공㈜ (강대홍)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	부지 156,503㎡ 연면적 6,838㎡	고서적, 민속자료 등 8,187	'01.04.13	785-4501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시 아라1동 산1	부지 1,444.74㎡ 연면적 477㎡	민속자료 5,521	'01.07.28	702-0645
테디베어뮤지엄 (곰완구전시관)	㈜제이에스 (김묘숙)	서귀포시 색달동 2889	부지 13,555㎡ 연면적 4,030㎡	곰인형 1,356	'01.07.28	738-7600
설록차뮤지엄오설록 (설록차 전시관)	서경배 (지현상)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1235-13	부지 8,100㎡ 연면적 1,564㎡	토기류, 자기류 등 150	'01.12.28	794-5312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서귀동 532-1	부지 3,478㎡ 연면적 586㎡	미술품 134점	'03.07.29	733-3555
평화박물관	이영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47	부지 9,038㎡ 연면적 929㎡	사진, 군부대용품 311	'04.05.12	772-2500
서귀포감귤박물관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신효동 산1	부지 27,243㎡ 연면적 4,786㎡	민구류, 감귤류 등 254	'05.02.25	710-6610

명칭	설립자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
아프리카박물관	한종훈	서귀포시 대포동 1833	부지 8,246㎡ 연면적 3,741㎡	공예품 및 사진자료 450	'05.02.25	738-6565
금오당미술관	권용수	제주시 연동 252-20	부지 1,040㎡ 연면적 298㎡	전적, 회화 등 103	'05.04.20	휴관중 747-8931
소리섬박물관	㈜밀리언키 (황영준)	서귀포시 색달동 2864-36	부지 13,223㎡ 연면적 3,341㎡	악기류 등 443	'05.11.11	739-7782
방림원	방한숙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20-91	부지 9,917㎡ 연면적 1,040㎡	식물류 등 345	'05.11.11	773-0090
김영갑갤러리	박훈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37-5	부지 8,651㎡ 연면적 904㎡	사진, 필름, 조각품 등 264	'06.02.27	784-9907
여미지식물원	남상규 (손일호외1)	서귀포시 색달동 2484-1	부지 112,397㎡ 연면적 15,514㎡	식물류 등 443	'06.03.24	735-1100
생각하는정원	㈜청원 성지연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534	부지 34,114㎡ 연면적 248㎡	식물류 등 479	'06.03.24	07.8.30 변경등록 772-3701
세계미니어쳐 전시관	㈜미니랜드 박경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56-1	부지 47,663㎡ 연면적 4,786㎡	조형물 등 63	'06.03.24	782-7720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	부지 969,731㎡ 연면적 18,956㎡	화산암 등 26,498	'06.05.08	710-7731
건강과성문화 교육박물관	㈜에스메카 (류기호)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736	부지 25,564㎡ 연면적 1,076㎡	도자기류 등 120	'06.05.08	792-5700
일출랜드 식물원	강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	부지 97,496㎡ 연면적 304.5㎡	식물류 등 367	'07.01.15	784-2080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920	부지 13,815㎡ 연면적 1,600㎡	사진자료 등	'07.01.15	787-3110
소인국테마파크 전시관	진동열	서귀포시 가시리 725	부지 49,644㎡ 연면적 1,127㎡	조형물 등 72	'07.04.02	794-5401
러브랜드미술관	최은주	제주시 연동 680-26	부지 29,950㎡ 연면적 1,356㎡	조각품 등	'07.04.02	712-6989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외 3필지	부지 8,663㎡ 연면적 2,086.95㎡	미술품 277	'07.07.13	772-4003
제주공룡원 전시장	박명욱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677-1	부지 90,571㎡ 연면적 1,103.73㎡	화석 등 210	'07.07.13	746-3060
닥종이인형전시관	오유신	서귀포시 법환동 914	부지 1,305.73㎡ 연면적 864.32㎡	공예품 등 167	'07.07.13	739-3905
조랑말박물관	가시리 마을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149-33	부지 550㎡ 연면적 534.52㎡	목축, 마문화관련 60여종 유물	'12.09.08	070-4145 -3456

명칭	설립자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
돌하르방공원	김남흥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76	부지 14,876㎡ 야외전시 8,264㎡	돌하르방 156	'07.08.30	782-0570
도깨비공원	이기후 (강혜경)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89-1	부지 27,037㎡ 야외전시 17,392㎡	조형물 927	'07.08.30	083-3013
제주조각공원	이은범 (이경률)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수 27	부지 412,286㎡ 야외전시 214,800㎡	조각품 등 300	'07.08.30	794-9680
석부작테마공원	민명원	서귀포시 호근동 569-2	부지 18,469㎡ 야외전시 12,775㎡	석부작 등 500	'07.08.30	739-3331
나비공원 프시케월드	임승호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01	부지 27,466㎡ 전시실4실 1,363㎡	나비 등 118종 1,530	'07.10.10	799-7272
한림공원	송봉규 (송상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84외 20필지	부지 274.499㎡ 실내6실 3,645㎡	168과1,367점 (실내433종, 야외934종)	'07.12.20	796-0001
화석박물관	박병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57-1	부지 8,026㎡ 실내 880㎡ 야외 1,200㎡	국내외 화석 1882	'08.02.29	787-7793
해녀박물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04-1	부지 86,556㎡ 전시면적5실 1,299㎡	해녀관련 129종170점	'08.02.29	710-6641
세계자동차제주 박물관	김영락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 63	부지 29,845㎡ 전시실 5실 2,149㎡	세계자동차 관련 65	'08.05.09	792-3000
성안미술관	권용수	제주시 아라1동 2349-1	부지 9,900㎡ 전시실 3실 252㎡	근현대미술품 120	'08.07.03	729-9175
한라수목원	한라생태 연구부장	제주시 수목원길 40	부지 203,249㎡ 전시실 3실 1,347㎡	76과 320종	'08.08.11	710-7590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김상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97	부지 29,134㎡ 전시실 15실 3,365㎡	민속유물 208	'08.10.24	784-9001
우산미술관	제주아트랜드 (임준성)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764-1	부지 150,000㎡ 전시실 4실 1,265㎡	동서양화 및 서예 100	'08.10.30	784-8900
제주 유리의 성	강신보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9-3	부지 35,978㎡ 전시실 991㎡ 실외전시 14,535㎡	유리조형 작품 118	'08.12.09	772-7777
소암현중화 기념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서귀포시 물동산길 22	부지 1,903㎡ 전시실 3실 352㎡	서예 484	'08.12.09	760-3511
조안베어 뮤지엄	오경애 (조안스튜디오)	서귀포시 대포동 1959	부지 1,716㎡ 전시실 3실 221㎡	수작업곰인형 119	'08.12.30	739-1024

문화시설 전시실

명칭	주소	전화
갤러리 나비	제주시 이도1동 1258-9	758-3730
갤러리 다빈치	서귀포시 토평동 3045	733-7226
갤러리 모앙	제주시 이도2동 1773-5	753-4646
갤러리 미래	제주시 용담1동 248-5	721-0330
갤러리 찰나	서귀포시 색달동 2934-1	738-1062
갤러리 하루	서귀포시 서귀동 280-13 2층	762-3322
갤러리 R	제주시 노형동 1278-9	746-6898
갤러리 세월그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534 (제주분재예술원 내)	772-3701
갤러리카페 미루나무	서귀포시 정방동 513-1	763-6248
갤러리하우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63-1	799-1009
그리미 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121	799-8102
대안공간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277-11	726-2679
라마다 아트갤러리	제주시 삼도2동 1255 라마다호텔 내	729-8100
먹글이있는집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58 저지문화예술인촌 내	772-5885
목가 갤러리	제주시 연동 1481-1 대림1차아파트 목가빌딩 3층	742-4058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시 삼도1동 300-78	722-6914
박여숙화랑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801 비오토피아 13호	792-7393
신산 갤러리	제주시 일도2동 837-20	750-7347
산경도예전시실 (흙으로만나는사람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382-1	792-5882
서귀포시립도서관 전시실	서귀포시 강정동 176	735-3563
서귀포학생문화원 전시실	서귀포시 동홍동 1460	763-0239
세심재 갤러리	제주시 용담1동 2822-18	753-5252

명칭	주소	전화
세종당 화랑	제주시 삼도2동 1192-22	757-3516
신산 갤러리	제주시 일도2동 837-20	727-7800
아트센터 갤러리수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 (일출랜드 내)	784-2080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시 노형동 1295-13 지하	745-3693
연 갤러리	제주시 이도2동 680-4 2층	757-4477
열공 갤러리	제주시 노형동 2614-5	741-8888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센터 탐라홀	제주시 노형동 977-1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742-9501
전가조형연구소전시실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3338	772-4077
제주도예촌 전시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번지	792-0052
제주조각공원전시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27	794-968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시 일도2동 852	750-7347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제주시 이도2동 414	724-1691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제주시 삼도2동 1262	759-1339
중문관광센터 전시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서귀포시 색달동 2864-36	738-8550
한라아트홀 전시실	제주시 노형동 1534	741-7575
현인 갤러리	제주시 노형동 904번지	747-1500
호 갤러리	제주시 오등동 1367-1	744-4403
홍 갤러리	제주시 오라3동 3399-1	-

문화시설 공연장

명칭	주소	규모	전화
간드락 소극장	제주시 아라2동 1371-5	100석	726-3031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강정동 176	383석	739-3548
더마파크 공연장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신8	1,246석	795-8080
동홍야외공연장	서귀포시 동홍동 646-1	308석	735-3516
미예랑	제주시 이도1동 1404-2	90석	722-5254
새별오름 관광타운 공연장(구 그린리조트)	애월읍 봉성리 산 59-1	980석	792-6100
서귀포 대정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68-1	250석	794-6260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시 동홍동 454	288석	733-1527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서귀포시 강정동 1481-3	428석	735-3634 735-3345
서귀포학생문화원 공연장	서귀포시 동홍동 1460	850석	763-0239
세이레 아트센터	제주시 연동 304-1(아름누리 꽃방 지하)	60석	744-8911
예향당	제주시 도두1동 1249-7	130석	-
자작나무숲	제주시 오라2동 3293-1	70석	747-7596
저지문화예술 야외공연장	한경면 저지리 2114-63	1,000석	710-6601
제주관광대학 노형관 소극장	제주시 노형동 1296-8 제주관광대학 노형교육관	300석	754-5910
제주관광대학 야외공연장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535번지 제주관광대학	300석	740-8700
국립제주박물관 소강당	제주시 삼사석로 11(건입동 261번지)	300석	720-80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서귀포시 중문동 2700	1,500석	738-679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미래창조관	제주시 화북1동 4810번지	350석	754-4724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시 아라1동 산 1번지	453석	754-4696

명칭	주소	규모	전화
제주매직월드	제주시 해안동 2137-1	1,646석	746-9005
제주산업정보대학 야외공연장	제주시 영평동 2235	316석	754-0220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제주시 건입동 538번지	172석	728-3960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이도1동 1700-1	800석	728-3939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	제주시 건입동 538	316석	750-7256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주시 일도2동 837-20번지 ㈔제주영상위원회	280석	727-78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주시 일도2동 852	대 896석 소 200석 전시실 2실	750-7347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 이도2동 414	대 1,004석 소 212석 전시실 1실	724-1691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삼도2동 1262	대 1,234석 전시실 1실	759-1339
㈜이레제주조랑말타운	표선면 성읍리 2684	993석	787-2258
㈜제주드림랜드	애월읍 봉성리 산 59-1	980석	792-6100
㈜파충류 테마파크	표선면 성읍리 2981	964석	787-5700
천지연 야외공연장	서귀포시 서홍동 661-1	420석	733-1528
칠십리 야외공연장	서귀포시 서홍동 689	-	735-3324
풍림리조트 오름공연장	서귀포시 강정동 2677번지	278석	739-9001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관광안내 상영실	서귀포시 색달동 2864-3	150석	735-7363
한라공연장	제주시 회천동 3-16	248석	725-9000
한라아트홀	제주시 노형동 1534	대 831석 소 240석 전시실 1실	741-7575
해피타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86	992석	794-4444

2013 제주문예연감

인쇄일	2013년 8월 일
발행일	2013년 8월 일
발행인	**양 영 흠**
발행·편집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8F Tel. (064) 800-9155 Fax. (064) 800-9119
인쇄처	일신옵셋인쇄사(☎ 758-1500)

<비매품> ISSN 2234-2907

※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의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